

---

# 오산시 청소년 실태 파악 및 정책 제언

---

2023. 11.



오산시의회  
OSANCITY COUNCIL

# 제 출 문

오산시의회 귀하

본 보고서를 “오산시 청소년 실태 파악 및 정책 제언”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 년 11 월 30 일

연구 책임자 : 백석대학교 유성렬

공동 연구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진호

: 백석대학교 이지연

## 목 차

결과보고서 요약문 .....	1
제 1 장 서론 .....	3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제 2 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5
제 2 장 조사 개요 .....	7
제 1 절 조사 개요 .....	7
제 2 절 조사 방법 .....	7
제 3 절 조사 내용 .....	9
제 4 절 표본 설계 .....	10
제 3 장 조사 분석 결과 .....	12
제 1 절 건강과 주관적 삶의 질 .....	12
제 2 절 존중과 가치 .....	28
제 3 절 청소년 참여 .....	48
제 4 절 학습과 활동 .....	54
제 5 절 진로 및 직업탐색 .....	76
제 6 절 부적응 경험 .....	104
제 7 절 사회 진입/ 학교폭력예방교육 경험 .....	113
제 8 절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삶의 변화 .....	125
제 4 장 요약 및 시사점 .....	134
참고문헌 .....	147
부    록 .....	148

## 표 목 차

〈표 2-1〉 2023년도 오산시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조사표 구성 .....	9
〈표 2-2〉 2023년도 오산시 행정동별 표집 결과 .....	11
〈표 2-3〉 2023년도 오산시 행정동별 표집 결과(교차분석) .....	11
〈표 3-1〉 주관적 안녕감 .....	13
〈표 3-2〉 스트레스 -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느낀다 .....	14
〈표 3-3〉 심리상담서비스 이용 여부 .....	15
〈표 3-4〉 주관적 건강상태 -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	17
〈표 3-5〉 주관적 건강상태 - 나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	18
〈표 3-6〉 일상생활 만족도 - 영역별 삶의 만족도 .....	20
〈표 3-7〉 사회적 역량 -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린다 .....	22
〈표 3-8〉 사회적 역량 -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 한다 .....	23
〈표 3-9〉 사회적 역량 - 다른 사람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잘 해결한다 ....	24
〈표 3-10〉 자아존중감 -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25
〈표 3-11〉 자아존중감 -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	26
〈표 3-12〉 자아존중감 -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	27
〈표 3-13〉 의견존중 - 우리 가족은 나의 의견을 존중한다 .....	29
〈표 3-14〉 의견존중 - 내 친구들은 나의 의견을 존중한다 .....	30
〈표 3-15〉 의견존중 - 내가 다니는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	31
〈표 3-16〉 의견존중 - 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한다 .....	32
〈표 3-17〉 부모님(또는 양육자)과의 활동 - 나의 고민에 대한 대화 .....	33
〈표 3-18〉 부모님(또는 양육자)과의 활동 -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	34
〈표 3-19〉 부모님(또는 양육자)과의 활동 - 책, 텔레비전, 영화에 대한 대화 ....	35
〈표 3-20〉 부모님(또는 양육자)과의 활동 - 정치, 사회적 주제에 관한 대화(선거 등) ....	36
〈표 3-21〉 부모님(또는 양육자)과의 활동 - 여가활동 .....	37

<표 3-22> 부모님(또는 양육자)과의 활동 - 저녁 식사 .....	38
<표 3-23>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대화 시간 포함) - 아버지 .....	29
<표 3-24>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대화 시간 포함) - 어머니 .....	40
<표 3-25>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대화 시간 포함) - 양육자 .....	41
<표 3-26> 부모님(또는 양육자)의 관심 - 학교 수업(학원 포함)이 끝난 후 집 에 늦게 들어와도 관심이 없다 .....	43
<표 3-27> 부모님(또는 양육자)의 관심 - 내가 고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다 .....	44
<표 3-28> 다문화관 - 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는 또래를 친구로 사 귄 수 있다 .....	46
<표 3-29> 다문화관 - 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는 또래를 이성친구 로 사귄 수 있다 .....	47
<표 3-30> 참여도 -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함 ..	48
<표 3-31> 참여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이나 수립 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함 .....	49
<표 3-32> 참여도 - 청소년이 사회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참여함 .....	50
<표 3-33> 필요도 -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함 ..	51
<표 3-34> 필요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이나 수립 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함 .....	52
<표 3-35> 필요도 - 청소년이 사회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참여함 .....	53
<표 3-36> 청소년 활동 참여 경험 .....	55
<표 3-37> 직접 활동주제와 내용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거나 진행한 경험 ..	56
<표 3-38> 직접 아이디어를 내거나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할 기회 .....	57
<표 3-39> 희망하는 청소년 활동 1순위 .....	58
<표 3-40> 가입하여 활동하는 청소년 단체 및 동아리 .....	59
<표 3-41> 청소년 활동 시설 이용 경험 .....	60
<표 3-42> 청소년 정책 사업 인지도 .....	62

<표 3-43> 청소년증 발급 경험 및 발급받지 않은 이유 .....	64
<표 3-44> 학교생활 만족도 - 나는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	66
<표 3-45> 학교생활 만족도 - 우리 학교는 우리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 67	
<표 3-46> 학교생활 만족도 -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	68
<표 3-47> 학교생활 만족도 - 우리 학교는 교칙이 엄격하다 .....	69
<표 3-48> 학교생활 만족도 - 선생님, 친구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이 만족스럽다 .....	70
<표 3-49> 현재 학업 성취도 .....	71
<표 3-50> 사교육 경험 및 혼자 공부하는 시간 .....	73
<표 3-51> 방과 후 어른 없이 있는 시간(일주일 평균) .....	74
<표 3-52> 방과 후 어른 없이 있을 때 불안 정도 .....	75
<표 3-53> 진로교육경험 - ‘진로직업’ 과목 수업을 통한 진로교육 .....	77
<표 3-54> 진로교육경험 - 현장학습이나 견학을 통한 진로 교육 .....	78
<표 3-55> 진로교육경험 - 상담센터의 상담 중심 진로 교육 .....	79
<표 3-56> 진로교육경험 - 진로관련 검사를 통한 진로 교육 .....	80
<표 3-57> 진로교육경험 - 인터넷 또는 동영상을 통한 진로 교육 .....	81
<표 3-58> 진로교육경험 - 소집단 혹은 동아리 활동을 통한 진로 교육 ...	82
<표 3-59> 진로교육경험 - 저명인사나 선배의 초청 강연을 통한 진로 교육 ...	84
<표 3-60> 진로교육경험 - 재량 활동(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한 진로 교육 ...	85
<표 3-61> 진로체험경험 - 진로 박람회(잡월드, 키자니아 포함)에 간 경험 ..	88
<표 3-62> 진로체험경험 -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	89
<표 3-63> 진로체험경험 -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 램에 참여한 경험 .....	90
<표 3-64> 진로체험경험 -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과(전공) 관련 견학 프로그 램에 참여한 경험 .....	91
<표 3-65> 진로 및 직업선택 - 내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	94

<표 3-66> 진로 및 직업선택 -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	95
<표 3-67> 진로 및 직업선택 -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있다 .....	96
<표 3-68> 진로 및 직업선택 - 나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	97
<표 3-69> 진로 및 직업선택 -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구체 적인 정보를 알아본 적이 있다 .....	98
<표 3-70> 진로 및 직업선택 - 나는 관심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 나서 그 직업에 대하여 알아본 적이 있다 .....	99
<표 3-71> 인생 및 직업관 - 나는 분명한 인생목표가 있다 .....	101
<표 3-72> 인생 및 직업관 - 진로나 직업을 선택할 시기가 되면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택할 것이다 .....	102
<표 3-73> 인생 및 직업관 -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미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103
<표 3-74> 초·중·고 학업중단 경험다 .....	104
<표 3-75> 학업중단의 주된 이유 1순위 .....	105
<표 3-76>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 경험 .....	106
<표 3-77> 가출 경험 .....	107
<표 3-78> 자살시도 경험 - 지난 1년 동안 자살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다 ....	109
<표 3-79> 자살시도 경험 -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계획해 본 적이 있다 .....	110
<표 3-80> 자살시도 경험 -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 .....	111
<표 3-81> 자살생각 주요 이유 .....	112
<표 3-82>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	113
<표 3-83> 아르바이트 시 발생한 부정적 경험 -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 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	114
<표 3-84> 아르바이트 시 발생한 부정적 경험 - 계약 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하였 거나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였다 .....	115

<표 3-85> 아르바이트 시 발생한 부정적 경험 -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	116
<표 3-86> 아르바이트 시 발생한 부정적 경험 -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	117
<표 3-87> 아르바이트 시 발생한 부정적 경험 - 작업 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 ....	118
<표 3-88> 아르바이트 시 발생한 부정적 경험 -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했다 ...	119
<표 3-89> 아르바이트 시 발생한 부정적 경험 -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 .....	120
<표 3-90> 아르바이트 시 발생한 부정적 경험 - 성적 피해(성희롱·성추행)를 당했다 .....	121
<표 3-91> 아르바이트 시 발생한 부정적 경험 - 최저임금(2022년 기준 시간 당 9,160 원, 2023년 기준 시간 당 9,620원)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다 ....	122
<표 3-92> 학교폭력예방교육 경험 .....	123
<표 3-93> 코로나19 이후 학업 스트레스 변화 .....	125
<표 3-94>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 - 전반적인 생활 .....	127
<표 3-95>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 - 가족관계 .....	128
<표 3-96>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 - 친구관계 .....	129
<표 3-97>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 - 학교 생활 .....	130
<표 3-98>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 - 사회에 대한 신뢰 .....	131
<표 3-99>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 -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전망 .....	132

## 그림 목 차

<그림 3-1> 오산시 청소년들의 진로교육 경험 및 도움정도 .....	76
<그림 3-2> 오산시 청소년들의 진로체험 경험 및 도움정도 .....	87
<그림 3-3> 오산시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직업선택(진로성숙도) 긍정 응답률 ....	93
<그림 3-4> 오산시 청소년들의 인생 및 직업관 긍정 응답률 .....	100
<그림 3-5> 코로나19 이후 오산시 청소년들의 영역별 삶의 변화 응답 결과(%) ....	126



# 결과보고서 요약문

## 1.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오산시 청소년의 현황과 상태를 실증적·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중장기 청소년정책의 비전과 목표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되었음. 특히 본 조사에서는 코로나 19 이후 2023년 현재 청소년 삶의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오산시 청소년정책 수립의 기본 바탕이 되는 청소년 삶의 현주소를 종합적·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었음.

## 2. 연구 내용

- 오산시 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① 건강과 주관적 삶의 질, ② 존중과 가치, ③ 참여 및 사회인식, ④ 학습과 활동, ⑤ 진로 및 직업탐색, ⑥ 부적응 경험, ⑦ 사회진입 경험/학교폭력예방교육 경험, ⑧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삶의 변화 등 크게 8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음.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는 성별, 학교 및 학년, 가정의 경제수준, 거주지역 등을 조사하였음.

## 3. 조사 개요

- **(조사목적)** 오산시 청소년실태조사의 목적은 오산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현황과 상태를 실증적·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오산시 청소년들을 위한 중장기 청소년정책의 비전과 목표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데 있음.
- **(조사 대상)** 본 조사의 참여 대상은 오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9~18세 청소년 1,415명이었음.
- **(조사 방법)** 이 연구의 연구방법은 설문조사임. 이 연구에서는 오산시의 청소년실태조사 실시를 위해 조사문항을 확정하고 조사 설계와 실시, 조사데이터 생성 및 분석이 이루어졌음.
- **(조사 기간)** 현장 실시 기간은 2023년 9월 8일부터 9월 22일까지 약 2주동안 진행되었음
- **(조사 내용)** 조사표는 건강과 주관적 삶의 질, 권리와 존중, 참여 및 인식, 학습과 활동, 진로 및 직업탐색, 부적응 경험, 사회진입 경험/학교폭력예방교육 경험,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삶의 변화, 응답자 특성 등으로 구성됨.

## 4. 조사 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 (건강과 주관적 삶의 질)

- 오산시 청소년들의 주관적 안녕감은 보통수준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근심·걱정과 우울정도가 평균 5점 이하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우울은 3.11점으로 가장 낮아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 오산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점수가 보통수준 이상으로 높은 수준인데 비해서 심리상담서비스 이용경험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의미하며, 향후 청소년 심리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함.
- 오산시 청소년들의 주관적 건강상태(신체적, 정신적)는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며, 정책을 수립할 때 학교급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함.
- 오산시 청소년들의 사회적 역량의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3점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사람과의 협력이나 갈등발생시 해결역량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향후 청소년정책 수립시 협력과 갈등해결에 대한 관심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함.
- 오산시 청소년들의 자존감이 4점 만점에 3점 이상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니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와 비교했을 때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졌다는 생각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보다 더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 • (존중과 가치)

- 오산시 청소년들의 존중받는 정도는 4점 만점에 3점 이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지만, 2022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4가지 항목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향후 오산시 청소년정책 수립시 청소년들의 의견이 존중되는 형태로의 방향전환을 위한 관심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시사함.
- 오산시의 청소년들이 양육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비율은 4.7%p 높게 나타났으며, 거의 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25.4%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오산시의 경우 청소년에 대한 부모님의 관심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경제수준별·거주지역별 등에 따라서 그 수준차가 있다는 것을 시사함.

- 다문화수용성이 낮게 나타난 집단을 대상으로 다문화수용성 향상 프로그램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함.
- **(참여 및 사회인식)**
  - 오산시 청소년들의 경우 청소년관련 문제나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과정에서 전혀 참여하지 않다는 비율이 적극 참여한다는 비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청소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함.
  - 청소년참여 활성화정책을 수립할 때 상대적으로 참여도가 낮게 나타나는 대상들에 대해서 정책적 관심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함.
- **(학습과 활동)**
  - 오산시청소년들의 경우 문화/예술 활동과 직업/진로활동, 건강.보건 활동 등은 상대적으로 참여경험이 높은 반면, 국제교류활동, 자원봉사활동, 환경보존활동, 모험/개척활동, 과학/정보활동 등은 상대적으로 참여경험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
  - 오산시 청소년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활동과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활동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함.
  - 오산시 청소년들의 경우 자기주도적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형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청소년의 자기주도성과 PBL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 오산시의 경우 청소년단체나 청소년동아리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청소년정책 수립시 청소년동아리 활동과 단체활동에 대한 관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함.
  -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청소년정책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함.
  - 방과후 나홀로 있을 때 불안정도는 평균 4점 만점에 1.36점으로 낮긴 하지만, 불안정도가 학교급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는 점에 기초할 때, 방과후 나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책적 서비스를 계획할 시, 불안정도가 심한 청소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함.
- **(진로 및 직업탐색)**
  - 오산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진로교육과 도움이 되는 정도의 순위가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인터넷이나 동영상 등을 통한 진로교육처럼 실제로 경험은 많이 하지만 도움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진로교육경험이 존재하고 있어서, 만족도가 낮은 진로교육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문제점에 대한 변화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오산시 청소년들의 진로체험 경험의 정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진로체험 경험기회를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향후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 진로성숙도 역시 학교급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진로성숙도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진로성숙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의 청소년에 대해서 보다 더 정책적 관심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향후 진로 및 직업탐색 관련 프로그램에서 ‘분명한 인생목표 설정’ 과 관련된 내용을 보다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부적응 경험)**
  - 오산시 청소년들의 자살에 대한 생각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청소년들의 자살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 **(사회진입 경험/ 학교폭력예방교육 경험)**
  - 오산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부당한 경험을 당하고 있어서, 향후 정책적 개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 학교폭력예방교육 경험의 도움정도에 대해서는 평균점수 역시 4점 만점에 2.95점으로 비교적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삶의 변화)**
  - 코로나19 이후 학습스트레스가 증가했다는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음.
  - 오산시에서는 청소년정책을 수립할 때 사회적 신뢰와 진로·취업에 대한 전망에 대한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고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제 1 장 서론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청소년정책은 대상 중심 정책으로 정책 대상인 청소년들의 삶 전반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정확한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증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기본법” 제15조의2에 여성가족부로 하여금 청소년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3년 마다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국가통계포털의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대한 통계설명자료에 명시된 조사 목적을 살펴보면, 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청소년의 현황과 상태를 실증적·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중장기 청소년정책의 비전과 목표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되고 있음.
- 여성가족부가 작성하는 “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 전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전국의 약 5,000여 가구를 표집하여 해당 가구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음.
- 오산시의 청소년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는 오산시의 청소년들이 보이는 특성이 전국의 청소년들의 특성과 다르지 않다는 가정이 성립하여야 비로소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청소년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임.
- 물론 오산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과 전국의 청소년들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나,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나는 결과는 오산시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성을 전혀 보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오산시 청소년정책이 해당 정책대상인 청소년들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오산시 청소년들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오산시 청소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정책의 타당성과 더불어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작업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 조사는 오산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현황과 상태를 실증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오산시 청소년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하고자 함.

## 제 2 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1. 연구수행체계

- 2023년 오산시 청소년실태조사는 오산시의회가 사업 주관기관이며 사업수행은 책임연구자 1인과 공동연구자 2인이 맡아 진행되었음. 연구진 3인은 사업 전체의 기획과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과 함께 조사 설계와 조사항목 개발, 조사 결과에 대한 심층분석과 정책 제언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음.

### 2. 연구내용

- 이 연구 내용은 오산시 청소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위한 정책계획 수립을 위해 오산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조사를 설계하고 조사하는 것임.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오산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1,438명이었음.
- 본 조사의 표본추출을 위해 오산시의 6개 동별 초·중·고등학교 분포를 감안하여 각 동별로 초·중·고교를 선정하고, 선정된 학교의 각 학년별(초등학교는 4~6학년, 중고등학교는 1~3학년)로 무작위로 학급을 선정하여 해당 학급 학생들에게 조사를 실시하였음. 다만,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 1,415명을 대상으로 분석이 진행되었음.
- 본 연구에서는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과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와 2023년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오산시 청소년종합실태에 대한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음. 단, 2020년의 청소년종합실태조사가 코로나19 시기에 진행되었음을 감안하여 조사결과를 비교·해석함에 있어 주의가 필요함.
-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오산시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및 중·장기적인 청소년 정책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음. 이 부분은 마지막 장인 요약 및 시사점에서 다루었음.

### 3. 연구방법

#### 1) 문헌분석

- 이 연구에서는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를 중심으로 조사 문항과 관련된 문헌분석을 실시하였음. 신규 문항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참고한 문헌은 2022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를 참고하였음.

#### 2) 설문조사

- 이 연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연구방법은 설문조사임. 이 연구에서는 오산시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실시를 위해 조사문항을 확정하고 조사 설계와 실사, 조사 데이터 생성이 이루어졌음.
- 본 조사의 조사 대상은 앞서도 제시하였듯이 오산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으로, 전체 1,438명이 참여하였음.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 1,415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함.

## 제 2 장 조사개요

### 제 1 절 조사 개요

- 2023년 오산시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목적은 오산시 청소년의 현황과 상태를 실증적·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중장기 청소년 정책의 비전과 목표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있음.
- 본 조사에서는 코로나 19이후 현재의 청소년 삶의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 정책 수립의 기본 바탕이 되는 청소년 삶의 현주소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 본 조사는 2023년 9월 8일부터 9월 22일까지 2주 동안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학교급별 현장 방문을 통해 대면 조사를 진행하였음. 본 조사의 참여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임.
- 조사 대상의 선정은 다단계층화집락추출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1,438명이 이번 조사에 응하였음. 최종 분석은 1,415명의 자료가 활용되었음.
- 오산시 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오산시의회의 주관으로 총괄 연구책임자 1인과 공동 연구자 2인이 조사 총괄을 맞아 조사표 작성 및 자료 분석, 조사 실사를 수행하였음.

### 제 2 절 조사 방법

- 조사 방법은 오산시 초·중·고등학교 방문을 통한 일대일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종이조사표로 응답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음. 본 조사에 앞서 조사 수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 청소년 1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수행되었음.
- 구체적으로는 ① 응답이 난해한 문항이나 신규문항 추가에 따른 문항 간 논리적 오류가 있는지를 파악, ② 실사 진행시 문제점 수집·검토, 설문문항 타당도, 신뢰도, 조사진행 프로세스 등의 통계적 검증, ③ 표본의 접근성, 응답 소요시간, 실사 진행 시 어려움이나 문제점 확인, ④ 예비조사 결과를 통해 연구 목적 부합성 사전 검토 등이 이루어졌음.
- 예비조사 기간은 2023년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동안 진행되었음. 예비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최대한 개선하기 위해 이후 연구진 회의를 통해 설문지 수정·보완 작업이 이루어졌음. 이번 조사의 현장 실사 기간은 2023년 9월 8일부터 9월 22일까지 약 2주 동안 진행되었음.



## 제 3 절 조사 내용

- 본 조사의 각 영역별 조사내용과 출처 등은 아래와 같음.

&lt;표 2-1&gt; 2023년도 오산시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조사표 구성

구분	영역	조사항목	조사내용
1	건강과 주관적 삶의 질	주관적 안녕감	행복, 근심과 걱정, 우울, 삶의 만족도, 일에 대한 자부심
		스트레스	일상생활 스트레스
		심리상담	심리상담서비스 이용 여부
		주관적 건강평가	정신적, 신체적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 만족도 평가	영역별 삶의 만족도
		사회적 역량	상호교류, 협동, 갈등해결 등 사회적 역량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자기존중, 좋은 성품, 자신에 대한 만족)
2	존중과 가치	존중받는 정도	가족, 친구, 학교, 우리 사회가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정도
		부모님(또는 양육자)과의 활동	부모님과 함께 하는 활동
		부모님(또는 양육자)과의 관계	가정 내 방임 정도
		다문화관	다문화 수용성
3	참여 및 사회인식	청소년 참여	참여도 및 필요도
4	학습과 활동	청소년 활동 경험	청소년 활동 참여 경험
		정책 사업 인지도	청소년 정책 사업 인지도
		청소년증	청소년증 발급 경험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
		사교육	사교육 경험, 시간, 혼자공부하는 시간
		방과 후 활동	방과 후 어른 없이 있는 시간, 방과 후 어른 없이 있을 때 불안 정도
5	진로 및 직업탐색	진로활동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
		진로체험 경험	진로체험 경험
		진로 및 직업선택	진로 선택 기준
6	부적응 경험	학업중단	학업중단 사유
		가출경험	가출경험 여부
		자살시도 경험	자살시도 경험 여부
7	사회 진입 경험/학교폭력에 방교육 경험	아르바이트 경험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학교폭력에 방교육 경험	학교폭력에 방교육 경험 여부
8	코로나19이후 청소년 삶의 변화	코로나19이후 청소년 삶의 변화	학업 스트레스 변화 정도, 온라인 수업 및 활동 확대에 대한 의견
9	응답자 특성	성별	성별
		학교 및 학년	학교 및 학년
		함께 사는 사람	함께 사는 사람
		가정의 경제수준	가정의 경제수준
		부모님의 출신국가	부모님의 출신국가
		거주 지역	거주 지역

## 제 4 절 표본 설계

### 1. 모집단

- 본 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조사 시점인 2023년 9월 기준 오산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으로 규정할 수 있음.
- 가장 최근 자료인 2022년 기준 교육통계에 따르면 오산시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생 수는 총 22,243명으로 나타남.

### 2. 표본 크기 산출 및 표본 추출

- 본 조사에서는 표본 크기를 산출하기 위하여 아래의 공식을 활용하였음.

$$n(\text{표본크기}) = \frac{\frac{z^2 \times p(1-p)}{e^2}}{1 + \left(\frac{z^2 \times p(1-p)}{e^2 N}\right)},$$

이 식에서 N은 모집단의 크기, e는 표본오차, z는 신뢰수준, p는 관찰치를 의미함.

- 위 식에서 N=22,243명, 표본 오차는 2.5%, z점수는 1.96, 관찰치를 0.5로 가정할 경우 요구되는 표본의 크기는 약 1,438명으로 나타남.
- 조사 대상의 대부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임을 감안하여 본 조사의 표본추출은 기본적으로 학교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층화표집 방식을 적용하였음.
- 오산시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오산시를 6개 지역(세마동, 신장동, 남촌동, 초평동, 중앙동, 대원동)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의 청소년 규모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초·중·고교를 선정하였음.
- 따라서 본 조사를 위한 표본추출은 기본적으로 각 동별로 조사대상이 되는 초·중·고를 선정하고, 선정된 학교에서 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해당 학급 학생 전원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사된 인원의 현황은 아래 <표 2-2>와 같음.

**<표 2-2> 2023년도 오산시 행정동별 표집 결과**

행정동	응답자 수(명)	백분율(%)
세마동	247	18.8
신장동	219	16.7
남촌동	93	7.1
초평동	146	11.1
중앙동	263	20.0
대원동	346	26.3
유효사례수	1,314	100.0

주: 총 조사참여자는 1,415명이나, 이 가운데 거주지 정보 결측치가 101명임

- 본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지역별 및 학교급별 인원 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아래 <표 2-3>과 같음

**<표 2-3> 2023년도 오산시 행정동별 표집 결과(교차분석)**

행정동	초	중	고	계
세마동	114	69	61	244
신장동	50	92	76	218
남촌동	19	31	39	89
초평동	62	26	56	144
중앙동	71	93	97	261
대원동	79	139	126	344
계	395	450	455	1300

주: 위 표의 전체 사례 수는 결측치를 제외한 결과임

## 제 3 장 조사 결과 분석

### 제 1 절 건강과 주관적 삶의 질

#### 1. 주관적 안녕감

- 오산시 청소년들의 주관적 안녕감의 평균점수는 10점 만점에 6.59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5.35점)와 비교했을 때, 0.31점 높게 나타났음.
- 오산시 청소년들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평균은 어제의 행복 정도는 7.03점, 어제의 근심, 걱정 정도는 4.60점, 어제의 우울정도는 3.11점, 요즘의 삶의 만족도 6.91점,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 6.65점으로 나타남.
-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평균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교급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7.3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 6.58점, 고등학교 5.83점의 순으로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이 7.2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보통수준 6.33점, 어려운편 5.71점으로 나타났음. 결과적으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는 점을 시사함. 그리고 거주지역별로는 세마동(6.99점), 초평동(6.88점), 신장동(6.61점), 남촌동(6.45점), 중앙동(6.32점), 대원동(3.61점) 순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lt;표 3-1&gt; 주관적 안녕감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어제의 행복정 도	어제의 근심, 걱정 정도	어제 의 우울 정도	요즘의 삶의 만족도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	평균 (1~10점)	차이 검증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7,170	7.01	3.53	2.90	6.59	6.70	5.35	-
성별	남	671	7.33	4.20	2.66	7.30	6.84	6.29
	여	734	6.76	4.97	3.50	6.56	6.46	
학교급	초	464	7.57	3.57	2.32	7.76	7.23	80.89***
	중	476	6.95	4.57	2.93	6.80	6.57	
	고	460	6.57	5.69	4.09	6.18	6.14	
경제 수준	어려운편	83	6.42	5.16	4.30	5.98	5.55	7.00***
	보통	848	6.77	4.83	3.37	6.62	6.40	
	잘사는편	476	7.61	4.12	2.45	7.61	7.30	
거주 지역	세마동	247	7.24	4.21	2.88	7.21	7.14	4.63***
	신장동	219	7.16	4.63	2.91	6.77	6.48	
	남촌동	93	6.93	4.32	3.17	6.54	6.32	
	초평동	146	7.13	4.18	2.99	7.45	6.85	
	중앙동	263	6.82	5.19	3.60	6.87	6.66	
	대원동	346	6.80	4.83	3.23	6.49	6.31	
전체	1,415	7.03	4.60	3.11	6.91	6.65	5.66	-

\*p&lt;.05. \*\*p&lt;.01. \*\*\*p&lt;.001

## 2. 스트레스 및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

- 스트레스는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느끼는지에 대해 묻는 단일 문항으로 측정되었고, 관련 심리상담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음.
-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에 대한 평균점수 역시 4점 만점에 2.84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2.50점)와 비교했을 때 0.34점 높게 나타났음.
-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를 주요 변인별로 차이검증한 결과, 학교급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2.9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중학교 2.83점, 초등학교 2.78점의 순으로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어려운편이 3.0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보통수준 2.89점, 잘사는편 2.73점으로 나타났음. 결과적으로 학교급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가 높다는 점을 시사함. 그리고 거주지역별로는 대원동(2.96점), 신장동(2.90점), 남촌동(2.89점), 중앙동(2.77점), 세마동(2.75점), 초평동(2.71점) 순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lt;표 3-2&gt; 스트레스 -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느낀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그런적이 없다	한두번 경험했다	가끔 경험했다	자주 경험했다	평균 (1~4점)	차이 검증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7,170	8.6	39.0	46.2	6.2	2.50	-	
성별	남	671	8.5	32.6	38.3	20.6	2.71	-5.43
	여	734	3.6	25.9	25.9	29.0	2.96	
학교급	초	464	6.9	30.9	39.3	22.9	2.78	2.99*
	중	476	5.7	29.4	41.4	23.5	2.83	
	고	460	4.8	27.2	39.3	28.7	2.92	
경제 수준	어려운편	83	3.7	26.8	35.4	34.1	3.00	6.52**
	보통	848	4.5	29.1	39.6	26.8	2.89	
	잘사는편	476	8.9	29.7	40.9	20.5	2.73	
거주 지역	세마동	247	7.8	31.4	38.8	22.0	2.75	3.20**
	신장동	219	5.5	25.1	42.9	26.5	2.90	
	남촌동	93	4.3	28.0	41.9	25.8	2.89	
	초평동	146	7.5	35.6	35.6	21.2	2.71	
	중앙동	263	5.3	34.4	38.5	21.8	2.77	
대원동	346	5.2	24.6	39.1	31.0	2.96		
전체	1,415	5.9	29.1	39.9	25.2	2.84	-	

\*p&lt;.05. \*\*p&lt;.01. \*\*\*p&lt;.001

- 심리상담서비스 이용여부는 ‘지난 1년 동안 심리상담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적있는지’ 를 물어보았음.
- 이 문항은 학교의 상담실,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의학과 등 학교와 지역사회의 심리상담전문가와 상담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되었음.
- 오산시 청소년들의 심리상담서비스 이용 여부에 대해 서비스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2.1%, 안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7.9%로 나타났음. 2020년 전국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심리상담서비스 이용 여부에 대한 ‘받았다’ 의 비율은 9.8%p 높게 나타났으며, ‘안받았다’ 의 비율은 9.8%p 낮게 나타났음.
- 심리상담서비스 이용 여부를 주요 변인별로 비교한 결과, 여학생(12.3%)이 남학생(11.5%)에 비해 서비스를 받은 비율이 높았으며, 경제수준별로는 어려운편 21.3%, 잘사는편 13.0%, 보통 10.5%으로 나타났음. 거주지역별로는 남촌동 17.5%, 중앙동 14.7%, 세마동 11.2%, 신장동 11.1%, 초평동 10.6% 순으로 나타났음.

&lt;표 3-3&gt; 심리상담서비스 이용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받았다	안받았다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7,170	2.3	97.7
성별	남	671	11.5	88.5
	여	734	12.3	87.7
학교급	초	464	16.1	83.9
	중	476	10.9	89.1
	고	460	8.6	91.4
경제수준	어려운편	83	21.3	78.8
	보통	848	10.5	89.5
	잘사는편	476	13.0	87.0
거주지역	세마동	247	11.2	88.8
	신장동	219	11.1	88.9
	남촌동	93	17.6	82.4
	초평동	146	10.6	89.4
	중앙동	263	14.7	85.3
	대원동	346	10.1	89.9
전체		1,415	12.1	87.9

### 3. 주관적 건강상태

- 주관적 건강상태는 청소년 자신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수준에 대해 평가한 것이다. 여기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등 4가지 범주(4점 척도)로 측정하였음.
- 주관적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34.8%로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6%로 나타났음. 그리고 2020년 전국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신체적으로 건강하다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14.0%p 낮게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1.5%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신체적 건강 수준에 대한 평균점수 역시 4점 만점에 3.21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3.46점)와 비교했을 때 0.25점 낮게 나타났음.
- 신체적 건강 수준을 주요 변인별로 차이검정한 결과, 학교급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2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 3.24점, 고등학교 3.11점의 순으로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이 3.3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수준 3.16점, 어려운편 2.95점으로 나타났음. 결과적으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 건강 수준이 높다는 점을 시사함. 그리고 거주지역별로는 남촌동이 3.3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세마동(3.30점), 신장동(3.23점), 초평동(3.21점), 대원동(3.19점), 중앙동(3.09점) 순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lt;표 3-4&gt; 주관적 건강상태 -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1~4점)	차이 검증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7,170	0.1	2.5	48.6	48.8	3.46	-	
성별	남	671	1.5	10.6	50.5	37.4	3.24	1.47
	여	734	1.8	10.9	54.5	32.8	3.18	
학교급	초	464	1.1	10.0	49.5	39.5	3.27	7.30***
	중	476	1.1	9.5	53.7	35.8	3.24	
	고	460	2.6	12.6	55.9	28.9	3.11	
경제 수준	어려운편	83	4.8	16.9	56.6	21.7	2.95	17.14***
	보통	848	1.4	11.8	56.2	30.6	3.16	
	잘사는편	476	1.5	7.6	46.1	44.8	3.34	
거주 지역	세마동	247	0.8	7.3	53.3	38.6	3.30	2.83*
	신장동	219	2.3	8.7	52.8	36.2	3.23	
	남촌동	93	1.1	9.7	46.2	43.0	3.31	
	초평동	146	2.1	11.6	50.0	36.3	3.21	
	중앙동	263	2.3	13.3	57.4	27.0	3.09	
대원동	346	1.4	12.8	51.3	34.5	3.19		
전체	1,415	1.6	10.7	52.9	34.8	3.21	-	

\*p&lt;.05. \*\*p&lt;.01. \*\*\*p&lt;.001

- 주관적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나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36.0%로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3%로 나타났음. 그리고 2020년 전국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정신적으로 건강하다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7.2%p 낮게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2.2%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정신적 건강 수준에 대한 평균점수 역시 4점 만점에 3.19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3.41점)와 비교했을 때 0.22점 낮게 나타났음.
- 정신적 건강 수준을 주요 변인별로 차이검정한 결과, 학교급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3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 3.22점, 고등학교 3.03점의 순으로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이 3.3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수준 3.13점, 어려운편 2.71점으로 나타났음. 결과적으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정신적 건강 수준이 높다는 점을 시사함. 그리고 거주지역별로는 초평동이 3.3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세마동(3.26점), 신장동(3.25점), 남촌동(3.20점), 중앙동(3.10점), 대원동(3.09점) 순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lt;표 3-5&gt; 주관적 건강상태 - 나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1~4점)	차이 검증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7,170	0.1	24	54.3	43.2	3.41	-
성별	남	671	2.5	11.2	46.9	39.3	3.23	1.69
	여	734	2.2	12.6	51.9	33.3	3.16	
학교급	초	464	1.5	7.6	46.6	44.2	3.34	21.69***
	중	476	2.3	11.4	48.1	38.2	3.22	
	고	460	3.3	16.1	55.3	25.3	3.03	
경제 수준	어려운편	83	8.5	26.8	50.0	14.6	2.71	41.06***
	보통	848	2.4	12.3	55.2	30.1	3.13	
	잘사는편	476	1.3	8.5	40.0	50.3	3.39	
거주 지역	세마동	247	1.6	8.1	53.3	37.0	3.26	3.71**
	신장동	219	1.8	11.0	47.2	39.9	3.25	
	남촌동	93	2.2	10.8	51.6	35.5	3.20	
	초평동	146	0.7	11.7	42.8	44.8	3.32	
	중앙동	263	2.7	11.5	59.2	26.7	3.10	
	대원동	346	4.4	16.9	44.3	34.4	3.09	
전체		1,415	2.3	11.9	49.8	36.0	3.19	-

\*p&lt;.05. \*\*p&lt;.01. \*\*\*p&lt;.001

#### 4. 영역별 삶의 만족도

- 영역별 삶의 만족도는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것임.
- 청소년 삶의 중요 영역으로 제시된 것은 가족과의 관계, 내가 사는 집, 내 삶에서 선택의 자유, 친구들과의 관계, 내가 다니는 학교, 나의 외모,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물건, 나의 건강, 나의 미래, 나의 자유 시간, 우리 동네, 생활에서의 안전 등 12가지였음.
- 이에 대한 응답은 0점(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부터 10점(매우 만족한다)까지의 11점 척도로 측정하였음.
- 영역별 삶의 만족도 평균은 내가 사는 집 평균이 8.4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7.68점)와 비교했을 때 0.81점 높게 나타났음. 반면에 나의 외모의 평균이 6.5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7.29점)와 비교했을 때 0.71점 낮게 나타났음.
- 영역별 삶의 만족도 평균을 주요 변인별로 살펴본 결과, 남학생(8.59점)과 여학생(8.41점) 모두 내가 사는 집의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8.87점)과 중학생(8.40점)은 내가 사는 집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고등학생은 가족과의 관계가 8.40점으로 평균이 가장 높았음. 경제수준별로는 어려운편은 내 사람에서 선택의 자유(7.04점), 보통수준(8.23점)과 잘사는편(9.24점)은 내가 사는 집의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거주지역별로는 6개 지역 모두 내가 사는 집의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lt;표 3-6&gt; 일상생활 만족도 - 영역별 삶의 만족도

(단위: 점)

구분		영역별 삶의 만족도 평균(0~10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8.05	7.68	7.65	7.83	7.55	7.29	6.98	8.16	7.47	7.58	7.55	7.65
성별	남	8.53	8.59	8.02	8.27	7.81	6.86	7.50	7.91	7.47	7.88	7.92	8.31
	여	8.27	8.41	7.96	7.76	7.45	6.31	7.22	7.68	6.93	7.59	7.66	8.05
학교급	초	8.77	8.87	8.12	8.23	8.50	6.93	7.90	8.39	8.06	8.07	8.35	8.37
	중	8.31	8.40	7.97	7.96	7.54	6.30	7.18	7.73	6.90	7.75	7.77	8.23
	고	8.40	8.23	7.87	7.85	6.92	6.48	7.01	7.28	6.65	7.38	7.28	7.95
경제 수준	어려운편	6.84	6.81	7.04	7.13	6.95	5.59	5.34	6.60	5.82	6.99	6.65	6.88
	보통	8.16	8.23	7.70	7.81	7.36	6.17	6.88	7.47	6.85	7.50	7.54	7.95
	잘사는편	9.08	9.24	8.69	8.53	8.22	7.50	8.58	8.56	8.04	8.28	8.44	8.79
거주 지역	세마동	8.53	8.65	8.27	8.13	7.90	6.95	7.54	7.91	7.41	7.70	7.99	8.24
	신장동	8.53	8.57	8.16	8.12	7.74	6.35	7.21	7.88	7.03	7.80	8.03	8.42
	남촌동	8.05	8.09	7.63	7.88	7.10	6.24	6.60	7.72	6.91	7.46	7.34	7.62
	초평동	8.77	8.83	8.17	8.40	8.25	6.96	7.79	7.85	7.48	8.10	8.14	8.64
	중앙동	8.03	8.15	7.66	7.88	7.28	6.55	7.32	7.56	7.21	7.64	7.35	7.74
	대원동	8.31	8.45	7.85	7.79	7.26	6.31	7.17	7.62	6.86	7.54	7.66	8.16
전체		8.39	8.49	7.99	8.00	7.62	6.58	7.36	7.79	7.19	7.73	7.79	8.17

① 가족과의 관계, ② 내가 사는 집, ③ 내 삶에서 선택의 자유, ④ 친구들과의 관계, ⑤ 내가 다니는 학교, ⑥ 나의 외모, ⑦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물건, ⑧ 나의 건강, ⑨ 나의 미래, ⑩ 나의 자유시간, ⑪ 우리 동네, ⑫ 생활에서의 안전

## 5. 사회적 역량 및 자아존중감

- 사회적 역량은 문항들은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린다.’,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 한다.’, ‘다른 사람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잘 해결한다.’ 등의 세 가지 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등 4가지 응답범주(4점 척도)로 측정하였음.
- 사회적 역량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린다’ 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7.2%로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8%로 나타났음. 그리고 2020년 전국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린다는 데 대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11.5%p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1.7%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린다는 정도에 대한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3.14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3.09점)와 비교했을 때 0.05점 높게 나타났음.
-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린다는 정도를 주요 변인별로 차이검정한 결과, 학교급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1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 3.14점, 고등학교 3.09점의 순으로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이 3.3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수준 3.06점, 어려운편 2.98점으로 나타났음. 결과적으로 학교급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시사함. 그리고 거주지역별로는 세마동이 3.2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초평동(3.17점), 신장동(3.15점), 남촌동(3.11점), 대원동(3.10점), 중앙동(3.03점) 순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lt;표 3-7&gt; 사회적 역량 -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린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1~4점)	차이 검증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7,170	0.1	6.3	77.8	15.7	3.09	-	
성별	남	671	2.2	10.4	58.3	29.1	3.14	.34
	여	734	1.5	9.7	63.1	25.7	3.13	
학교급	초	464	1.9	9.1	57.7	31.3	3.18	2.52
	중	476	1.7	11.6	58.2	28.6	3.14	
	고	460	1.7	9.6	66.9	21.8	3.09	
경제 수준	어려운편	83	3.7	15.9	59.8	20.7	2.98	24.64***
	보통	848	1.9	10.5	67.5	20.1	3.06	
	잘사는편	476	1.5	8.2	48.9	41.4	3.30	
거주 지역	세마동	247	0.8	6.9	59.9	32.4	3.24	2.94*
	신장동	219	2.7	10.5	55.7	31.1	3.15	
	남촌동	93	3.2	9.7	60.2	26.9	3.11	
	초평동	146	0.7	9.7	61.4	28.3	3.17	
	중앙동	263	0.8	12.6	69.5	17.2	3.03	
	대원동	346	2.6	10.7	60.4	26.3	3.10	
전체	1,415	1.8	10.0	60.8	27.2	3.14	-	

\*p&lt;.05. \*\*p&lt;.01. \*\*\*p&lt;.001

- 사회적 역량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 한다’ 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5.0%로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9%로 나타났음. 그리고 2020년 전국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 한다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1.6%p 낮게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1.7%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 한다’ 는 정도에 대한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3.12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3.15점)와 비교했을 때 0.03점 낮게 나타났음.
-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 한다’ 는 정도를 주요 변인별로 차이검정한 결과, 학교급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1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3.10점, 중학교 3.09점의 순으로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이 3.2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수준 3.04점, 어려운편 2.96점으로 나타났음. 결과적으로 초등학생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 한다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시사함. 그리고 거주지역별로는 세마동이 3.2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초평동(3.18점), 신장동(3.14점), 남촌동(3.08점), 대원동(3.05점), 중앙동(3.04점) 순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lt;표 3-8&gt; 사회적 역량 -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 한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1~4점)	차이 검증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7,170	0.2	10.8	62.4	26.6	3.15	-	
성별	남	671	2.8	10.1	60.4	26.6	3.11	-0.37
	여	734	1.1	9.5	65.6	23.7	3.12	
학교급	초	464	1.3	9.3	62.0	27.4	3.16	1.43
	중	476	2.5	11.2	61.1	25.3	3.09	
	고	460	2.0	8.7	67.0	22.4	3.10	
경제 수준	어려운편	83	4.8	12.0	65.1	18.1	2.96	23.22***
	보통	848	1.8	11.2	68.1	18.9	3.04	
	잘사는편	476	1.5	6.7	54.8	37.0	3.27	
거주 지역	세마동	247	1.2	5.3	60.3	33.2	3.26	4.22***
	신장동	219	2.3	8.2	62.6	26.9	3.14	
	남촌동	93	2.2	11.8	62.4	23.7	3.08	
	초평동	146	0.7	6.2	67.6	25.5	3.18	
	중앙동	263	1.9	12.2	66.0	19.8	3.04	
	대원동	346	2.3	12.7	62.1	22.8	3.05	
전체	1,415	1.9	9.8	63.3	25.0	3.12	-	

\*p&lt;.05. \*\*p&lt;.01. \*\*\*p&lt;.001

- 사회적 역량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잘 해결한다’ 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18%로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3%로 나타났음. 그리고 2020년 전국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다른 사람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잘 해결한다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1.7%p 낮게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1.6%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다른 사람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잘 해결한다’ 는 정도에 대한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3.00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3.01점)와 비교했을 때 0.01점 낮게 나타났음.
- ‘다른 사람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잘 해결한다’ 는 정도를 주요 변인별로 차이검정한 결과,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이 3.1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수준 2.93점, 어려운편 2.88점으로 나타났음. 결과적으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다른 사람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잘 해결한다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시사함. 그리고 거주지역별로는 세마동이 3.0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초평동(3.06점), 신장동(3.06점), 남촌동(3.01점), 대원동(2.96점), 중앙동(2.90점) 순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성별과 학교급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lt;표 3-9&gt; 사회적 역량 - 다른 사람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잘 해결한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1~4점)	차이 검증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7,170	0.3	18.3	61.3	20.1	3.01	-	
성별	남	671	2.7	19.8	55.2	22.3	2.97	-1.43
	여	734	1.9	15.2	61.5	21.4	3.02	
학교급	초	464	2.2	22.8	52.1	23.0	2.96	1.23
	중	476	3.0	13.7	62.0	21.3	3.02	
	고	460	1.7	15.2	62.0	21.1	3.02	
경제 수준	어려운편	83	4.9	17.1	63.4	14.6	2.88	16.14***
	보통	848	2.2	18.9	62.2	16.6	2.93	
	잘사는편	476	1.9	14.1	51.6	32.4	3.15	
거주 지역	세마동	247	1.2	14.2	59.1	25.5	3.09	2.74*
	신장동	219	1.8	16.4	55.3	26.5	3.06	
	남촌동	93	0.0	18.5	62.0	19.6	3.01	
	초평동	146	1.7	15.2	62.1	22.1	3.06	
	중앙동	263	3.8	19.0	60.8	16.3	2.90	
	대원동	346	3.5	18.3	56.7	21.5	2.96	
전체	1,415	2.3	17.2	58.7	21.8	3.00	-	

\*p&lt;.05. \*\*p&lt;.01. \*\*\*p&lt;.001

- 자아존중감 문항은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등 3개 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등 4가지 범주(4점 척도)로 측정하였음. 이 세 가지 문항은 Rogenberg(1965)의 자아존중감(self-esteem) 척도의 일부임.
- 자아존중감과 관련하여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37.1%로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3%로 나타났음. 그리고 2020년 전국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데 대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14.7%p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1.7%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정도에 대한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3.19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3.11점)와 비교했을 때 0.08점 높게 나타났음.
-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정도를 주요 변인별로 차이검정한 결과, 학교급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2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3.15점의 순으로 나타



낮음.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이 3.4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 수준 3.09점, 어려운편 2.95점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초등학교와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시사함. 하지만 성별과 거주지역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표 3-10> 자아존중감 -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1~4점)	차이 검증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7,170	0.6	10.3	66.7	22.4	3.11	-	
성별	남	671	1.6	12.8	45.9	39.6	3.24	2.23
	여	734	2.9	14.4	47.9	34.8	3.15	
학교급	초	464	2.4	13.5	39.4	44.7	3.26	3.61*
	중	476	2.3	14.6	48.7	34.4	3.15	
	고	460	2.2	13.3	52.4	32.2	3.15	
경제수준	어려운편	83	7.2	15.7	51.8	25.3	2.95	31.32***
	보통	848	2.3	16.3	51.7	29.8	3.09	
	잘사는편	476	1.3	9.3	37.8	51.7	3.40	
거주지역	세마동	247	2.0	10.5	47.8	39.7	3.25	2.14
	신장동	219	2.3	14.2	45.2	38.4	3.20	
	남촌동	93	3.2	12.9	53.8	31.0	3.11	
	초평동	146	2.1	11.8	41.0	45.1	3.29	
	중앙동	263	1.5	14.9	54.2	29.4	3.11	
	대원동	346	2.6	16.6	45.9	33.8	3.12	
전체	1,415	2.3	13.8	46.9	37.1	3.19	-	

\*p<.05. \*\*p<.01. \*\*\*p<.001

- 자아존중감과 관련하여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9.9%로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3%로 나타났음. 그리고 2020년 전국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는 데 대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1.8%p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1.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는 정도에 대한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3.10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3.14점)와 비교했을 때 0.04점 낮게 나타났다.
-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는 정도를 주요 변인별로 차이검정한 결과,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남. 즉,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이 3.3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수준 2.99점, 어려운편 2.95점으로 나타났음. 결과적으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시사함. 그리고 거주지역별로는 초평동이 3.2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초평동(3.22점), 세마동(3.20점), 남촌동(3.08점), 신장동(3.07점), 대원동(3.06점), 중앙동(2.98점) 순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성별과 학교급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표 3-11> 자아존중감 -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1~4점)	차이 검증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7,170	1.3	11.6	59.1	28.1	3.14	-	
성별	남	671	2.2	14.3	51.6	31.8	3.13	1.60
	여	734	2.3	16.8	52.7	28.2	3.07	
학교급	초	464	1.9	13.4	51.5	33.1	3.16	2.26
	중	476	1.9	18.3	50.5	29.3	3.07	
	고	460	3.1	14.6	54.9	27.5	3.07	
경제 수준	어려운편	83	3.6	24.1	45.8	26.5	2.95	32.29***
	보통	848	2.4	18.8	56.2	22.6	2.99	
	잘사는편	476	1.9	8.4	46.3	43.4	3.31	
거주 지역	세마동	247	1.2	11.0	54.5	33.3	3.20	3.35**
	신장동	219	1.4	16.9	54.8	26.9	3.07	
	남촌동	93	3.2	19.4	44.1	33.3	3.08	
	초평동	146	0.0	14.5	49.0	36.6	3.22	
	중앙동	263	2.3	18.3	58.2	21.3	2.98	
대원동	346	3.5	18.0	48.1	30.4	3.06		
전체	1,415	2.3	15.7	52.2	29.9	3.10	-	

\*p<.05. \*\*p<.01. \*\*\*p<.001

- 자아존중감과 관련하여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37.4%로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로 나타났음. 그리고 2020년 전국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6.7%p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1.5%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는 정도에 대한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3.19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2.98점)와 비교했을 때 0.21점 높게 나타났음.
-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는 정도를 주요 변인별로 차이검증한

결과, 학교급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3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 3.11점, 고등학교 3.09점의 순으로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이 3.4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수준 3.06점, 어려운편 2.99점으로 나타났음. 결과적으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시사함. 그리고 거주지역별로는 초평동이 3.3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세마동(3.27점), 남촌동(3.17점), 신장동(3.16점), 대원동(3.12점), 중앙동(3.08점) 순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표 3-12> 자아존중감 -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1~4점)	차이 검증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7,170	0.5	11.5	77.3	10.7	2.98	-	
성별	남	671	1.2	11.3	44.8	42.7	3.29	4.92
	여	734	2.7	18.1	46.2	32.9	3.09	
학교급	초	464	1.1	9.9	39.7	49.2	3.37	20.93***
	중	476	2.1	19.2	44.8	33.9	3.11	
	고	460	2.8	15.0	52.4	29.8	3.09	
경제수준	어려운편	83	3.6	22.9	44.6	28.9	2.99	44.40***
	보통	848	2.4	17.9	50.9	28.8	3.06	
	잘사는편	476	1.1	8.0	36.6	54.3	3.44	
거주지역	세마동	247	0.8	15.0	40.9	43.3	3.27	3.65**
	신장동	219	2.8	16.1	43.6	37.6	3.16	
	남촌동	93	3.2	11.8	49.5	35.5	3.17	
	초평동	146	0.0	11.0	42.8	46.2	3.35	
	중앙동	263	1.9	16.7	53.2	28.1	3.08	
	대원동	346	3.2	15.3	47.7	33.8	3.12	
전체	1,415	2.0	14.9	45.6	37.4	3.19	-	

\*p<.05. \*\*p<.01. \*\*\*p<.001

## 제 2 절 존중과 가치

### 1. 존중 받는 정도

- 아동청소년의 권리의 한 차원으로서 자신의 의견이 가족, 친구, 학교,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존중 받는지를 측정하였음. ‘우리 가족은 나의 의견을 존중한다,’ ‘내 친구들은 나의 의견을 존중한다,’ ‘내가 다니는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한다’ 등의 4가지 문항을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로 측정함.
- 존중받는 정도와 관련하여 ‘우리 가족은 나의 의견을 존중한다’ 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49.9%로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0.4%로 나타났음. 그리고 2020년 전국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우리 가족은 나의 의견을 존중한다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3.6%p 낮게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0.3%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 가족은 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정도에 대한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3.44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3.51점)와 비교했을 때 0.07점 낮게 나타났음.
- ‘우리 가족은 나의 의견을 존중한다’ 는 정도를 주요 변인별로 차이검정한 결과,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경제수준별로는 보통수준이 3.6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잘사는편 3.44점, 어려운편 3.18점으로 나타났음. 결과적으로 경제수준이 보통수준일수록 우리 가족은 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시사함. 그리고 거주지역별로는 초평동이 3.5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세마동(3.49점), 신장동(3.48점), 대원동(3.39점), 남촌동(3.34점), 중앙동(3.33점) 순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성별과 학교급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lt;표 3-13&gt; 의견 존중 - 우리 가족은 나의 의견을 존중한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1~4점)	차이 검증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3,870	0.1	2.4	44.0	53.5	3.51	-	
성별	남	667	0.1	3.4	46.8	49.6	3.46	1.28
	여	733	0.7	7.0	41.9	50.5	3.42	
학교급	초	463	0.4	3.9	42.3	53.3	3.49	2.61
	중	476	0.8	6.5	45.0	47.7	3.39	
	고	456	0.0	5.3	46.3	48.5	3.43	
경제 수준	어려운편	83	1.2	9.6	59.0	30.1	3.18	38.46***
	보통	844	0.1	6.5	50.8	42.5	3.63	
	잘사는편	475	1.8	2.3	30.3	66.5	3.44	
거주 지역	세마동	246	0.0	5.3	40.2	54.5	3.49	4.31***
	신장동	217	0.5	3.2	43.8	52.5	3.48	
	남촌동	93	0.0	7.5	50.5	41.9	3.34	
	초평동	146	0.0	6.2	31.5	62.3	3.56	
	중앙동	262	0.4	5.7	54.6	39.3	3.33	
	대원동	345	1.9	5.8	46.7	46.7	3.39	
전체	1,410	0.4	5.2	44.5	49.9	3.44	-	

\*p&lt;.05. \*\*p&lt;.01. \*\*\*p&lt;.001

- 존중받는 정도와 관련하여 ‘내 친구들은 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34.8%로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0.7%로 나타났음. 그리고 2020년 전국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내 친구들은 나의 의견을 존중한다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6.0%p 낮게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0.7%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내 친구들은 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정도에 대한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3.27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3.37점)와 비교했을 때 0.10점 낮게 나타났음.
- ‘내 친구들은 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정도를 주요 변인별로 차이검정한 결과,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이 3.3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수준 3.23점, 어려운편 3.02점으로 나타났음. 결과적으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내 친구들은 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시사함. 그리고 거주지역별로는 신장동이 3.4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초평동(3.36점), 세마동(3.30점), 대원동(3.25점), 중앙동(3.15점), 남촌동(3.14점) 순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성별과 학교급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lt;표 3-14&gt; 의견 존중 - 내 친구들은 나의 의견을 존중한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1~4점)	차이 검증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3,870	0.0	3.5	55.7	40.8	3.37	-	
성별	남	667	0.9	7.0	57.4	34.6	3.26	.52
	여	732	0.5	6.0	58.2	35.2	3.28	
학교급	초	463	0.6	7.6	57.0	34.8	3.26	1.45
	중	475	0.8	8.0	57.1	34.1	3.24	
	고	456	0.7	3.7	59.6	36.0	3.31	
경제 수준	어려운편	83	2.4	9.6	71.1	16.9	3.02	18.87***
	보통	843	0.5	6.2	63.6	29.8	3.23	
	잘사는편	475	0.8	6.5	45.3	47.4	3.39	
거주 지역	세마동	246	1.4	6.1	56.1	37.4	3.30	5.82***
	신장동	219	0.5	2.7	53.4	43.4	3.40	
	남촌동	93	1.1	9.7	63.4	25.8	3.14	
	초평동	146	0.7	5.5	51.4	42.5	3.36	
	중앙동	262	1.1	8.4	64.9	25.6	3.15	
	대원동	342	0.6	7.0	59.1	33.3	3.25	
전체	1,409	0.7	6.5	57.9	34.8	3.27	-	

\*p&lt;.05. \*\*p&lt;.01. \*\*\*p&lt;.001

- 존중받는 정도와 관련하여 ‘내가 다니는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34.0%로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6%로 나타났음. 그리고 2020년 전국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내가 다니는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한다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3.1%p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2.4%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내가 다니는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정도에 대한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3.22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3.18점)와 비교했을 때 0.04점 낮게 나타났음.
- ‘내가 다니는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정도를 주요 변인별로 차이검정한 결과, 학교급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4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 3.15점, 고등학교 3.01점의 순으로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이 3.3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수준 3.15점, 어려운편 3.02점으로 나타났음. 결과적으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내가 다니는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시사함. 그리고 거주지역별로는 신장동과 초평동이 3.3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세마동(3.26점), 대원동(3.15점), 중앙동(3.10점), 남촌동

(3.10점) 순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표 3-15> 의견 존중 - 내가 다니는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해당없음	평균 (1~4점)	차이 검증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3,870	0.2	12.6	55.0	31.1	1.2	3.18	-	
성별	남	669	3.0	9.6	51.3	33.6	2.5	3.23	.10
	여	732	2.2	12.3	48.9	34.7	1.9	3.22	
학교급	초	464	0.9	3.9	43.8	48.3	3.2	3.49	51.77***
	중	475	3.4	12.6	50.9	31.8	1.3	3.15	
	고	458	3.5	16.8	56.1	22.3	1.3	3.01	
경제 수준	어려운편	83	2.4	15.7	60.2	20.5	1.2	3.02	16.05***
	보통	845	2.2	12.8	54.8	27.7	2.5	3.15	
	잘사는편	475	3.2	7.2	40.2	47.8	1.7	3.38	
거주 지역	세마동	246	2.4	9.3	48.8	38.6	0.8	3.26	4.44***
	신장동	219	1.8	5.9	49.8	41.1	1.4	3.34	
	남촌동	92	2.2	16.3	54.3	23.9	3.3	3.10	
	초평동	146	2.1	8.2	43.8	45.2	0.7	3.34	
	중앙동	263	3.8	12.9	56.7	23.2	3.4	3.10	
대원동	344	3.2	15.1	48.0	31.4	2.3	3.15		
전체	1,411	2.6	11.1	50.2	34.0	2.2	3.22	-	

\*p<.05. \*\*p<.01. \*\*\*p<.001

- 존중받는 정도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4.8%로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4.3%로 나타났음. 그리고 2020년 전국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존중한다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6%p 낮게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3.0%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정도에 대한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2.95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3.04점)와 비교했을 때 0.09점 낮게 나타났음.
-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정도를 주요 변인별로 차이검정한 결과, 학교급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2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 2.88점, 고등학교 2.74점의 순으로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이 3.1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수준 2.87점, 어려운편 2.78점으로 나타났음. 결과적으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시사함. 그리고 거주지역별로는 초평동이 3.1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신장동(3.00점), 세마동(2.99점), 대원동(2.88점), 중앙동(2.86점), 남촌동(2.85점) 순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표 3-16> 의견존중 - 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한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1~4점)	차이 검증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3,870	1.3	20.3	50.9	27.4	3.04	-	
성별	남	664	4.4	18.1	51.4	26.2	2.99	3.67
	여	731	4.4	23.7	48.3	23.7	2.91	
학교급	초	458	2.0	10.7	48.7	38.6	3.24	52.08***
	중	475	4.4	22.1	54.5	18.9	2.88	
	고	457	6.6	30.2	46.0	17.3	2.74	
경제 수준	어려운편	83	7.2	24.1	51.8	16.9	2.78	17.96***
	보통	844	4.4	23.0	53.6	19.1	2.87	
	잘사는편	470	3.8	16.4	43.0	36.8	3.13	
거주 지역	세마동	244	3.7	20.1	50.0	26.2	2.99	3.04**
	신장동	218	2.3	20.6	51.8	25.2	3.00	
	남촌동	92	6.5	23.9	47.8	21.7	2.85	
	초평동	145	2.1	18.6	44.8	34.5	3.12	
	중앙동	263	6.8	18.6	56.3	18.3	2.86	
대원동	343	5.0	26.2	44.6	24.2	2.88		
전체	1,405	4.3	20.9	49.9	24.8	2.95	-	

\*p<.05. \*\*p<.01. \*\*\*p<.001



## 2. 부모님(또는 양육자)과의 활동

- 대화 및 활동 나의 고민에 대한 대화,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책/텔레비전/영화에 대한 대화, 정치/사회적 주제에 관한 대화(선거 등), 여가 활동, 저녁 식사 등에 대해 5가지 범주(거의 하지 않는다, 월 1~3회, 주 1~3회, 주 4~6회, 매일한다)로 물어보았음.
- 부모님(또는 양육자)과의 활동과 관련하여 ‘나의 고민에 대한 대화’에 대해 매일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9%로 나타났으며,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36.4%로 나타났음. 그리고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청소년들이 부모님과 고민에 대해 매일 대화하는 비율은 4.9%p 높게 나타났으나 거의 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17.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나의 고민에 대해 매일 대화 정도를 주요 변인별로 비교하면, 여학생(11.9%)이 남학생(7.5%)보다 높았으며,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12.2%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8.8%, 초등학교 8.1% 순으로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 12.1%, 어려운편 9.8%, 보통수준 8.8% 순으로 나타났음. 거주지역별로는 남촌동이 15.1%로 가장 높았으며, 세마동 11.8%, 초평동 10.3%, 대원동 9.6%, 중앙동 8.8%, 신장동 7.4% 순으로 나타났음.

<표 3-17> 부모님(또는 양육자)과의 활동 - 나의 고민에 대한 대화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거의 하지 않는다	월 1~3회	주 1~3회	주 4~6회	매일한다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7,170	18.9	44.9	25.3	5.9	5.0	
성별	남	667	38.2	24.1	21.6	8.5	7.5
	여	731	35.2	21.5	23.9	7.5	11.9
학교급	초	458	44.8	19.9	18.3	9.0	8.1
	중	476	39.9	21.8	22.7	6.7	8.8
	고	459	25.7	26.6	27.2	8.3	12.2
경제수준	어려운편	82	46.3	22.0	17.1	4.9	9.8
	보통	845	37.6	24.0	22.7	6.9	8.8
	잘사는편	473	33.0	20.5	23.9	10.6	12.1
거주지역	세마동	246	29.3	22.4	29.3	7.3	11.8
	신장동	216	38.4	19.4	24.1	10.6	7.4
	남촌동	93	29.0	28.0	22.6	5.4	15.1
	초평동	146	43.8	21.2	20.5	4.1	10.3
	중앙동	261	38.3	24.9	22.2	5.7	8.8
대원동	345	37.1	23.8	20.0	9.6	9.6	
전체	1,408	36.4	22.7	22.8	8.0	9.9	

- 부모님(또는 양육자)과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에 대해 매일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2.1%로 나타났으며,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14.1%로 나타났음. 그리고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청소년들이 부모님과 학교생활에 대해 매일 대화하는 비율은 15.4%p 높게 나타났으나 거의 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1.4%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학교생활에 대해 매일 대화 정도를 주요 변인별로 비교하면, 여학생(25.6%)이 남학생(18.2%)보다 높았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25.6%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22.1%, 고등학교 19.2% 순으로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 29.9%, 보통수준 18.7%, 어려운편 12.2% 순으로 나타났음. 거주지역별로는 세마동이 25.6%로 가장 높았으며, 남촌동 24.7%, 신장동 22.0%, 대원동 21.8%, 초평동 19.9%, 중앙동 16.9% 순으로 나타났음.

**<표 3-18> 부모님(또는 양육자)과의 활동 -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거의 하지 않는다	월 1~3회	주 1~3회	주 4~6회	매일한다	해당없음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7,170	12.7	31.6	30.0	11.0	6.7	8.0	
성별	남	666	15.9	20.6	28.7	15.6	18.2	1.1
	여	733	12.4	18.1	26.5	16.5	25.6	0.8
학교급	초	461	13.7	19.3	25.4	15.0	25.6	1.1
	중	475	13.5	19.8	24.4	19.6	22.1	0.6
	고	458	15.5	18.3	33.2	13.8	19.2	0.0
경제수준	어려운편	82	28.0	30.5	19.5	8.5	12.2	1.2
	보통	844	14.2	20.4	31.2	14.7	18.7	0.8
	잘사는편	475	11.4	15.2	22.5	20.0	29.9	1.1
거주지역	세마동	246	8.5	16.7	30.9	17.9	25.6	0.4
	신장동	218	14.2	17.0	28.4	17.4	22.0	0.9
	남촌동	93	11.8	23.7	24.7	12.9	24.7	2.2
	초평동	146	17.1	26.7	21.2	14.4	19.9	0.7
	중앙동	261	16.9	20.7	32.2	11.9	16.9	1.5
	대원동	344	16.6	17.2	26.5	17.4	21.8	0.6
전체	1,409	14.1	19.2	27.6	16.0	22.1	0.9	

- 부모님(또는 양육자)과의 활동과 관련하여 ‘책, 텔레비전, 영화에 대한 대화’에 대해 매일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3.2%로 나타났으며,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28.6%로 나타났음. 그리고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청소년들이 부모님과 책, 텔레비전, 영화에 대해 매일 대화하는 비율은 8.7%p 높게 나타났으나 거의 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5.3%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책, 텔레비전, 영화에 대한 매일 대화 정도를 주요 변인별로 비교하면, 남학생(13.2%)이 여학생(13.0%)보다 높았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15.0%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12.5%, 고등학교 12.0% 순으로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 17.5%, 어려운편 13.6%, 보통수준 10.7% 순으로 나타났음. 거주지역별로는 신장동이 16.6%로 가장 높았으며, 세마동 15.8%, 남촌동 15.2%, 초평동 12.4%, 중앙동 10.3%, 대원동 10.2% 순으로 나타났음.

<표 3-19> 부모님(또는 양육자)과의 활동 - 책, 텔레비전, 영화에 대한 대화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거의 하지 않는다	월 1~3회	주 1~3회	주 4~6회	매일한다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7,170	23.3	35.9	27.9	8.5	4.5
성별	남	665	27.7	21.4	25.6	12.2	13.2
	여	730	29.5	21.2	25.6	10.7	13.0
학교급	초	461	26.9	23.6	22.8	11.7	15.0
	중	472	30.3	20.6	23.1	13.6	12.5
	고	457	28.9	19.3	31.3	8.5	12.0
경제수준	어려운편	81	40.7	17.3	22.2	6.2	13.6
	보통	842	29.9	21.6	27.1	10.7	10.7
	잘사는편	474	24.3	20.9	23.8	13.5	17.5
거주지역	세마동	247	21.5	23.9	28.7	10.1	15.8
	신장동	217	28.6	20.3	25.3	9.2	16.6
	남촌동	92	25.0	14.1	33.7	12.0	15.2
	초평동	145	37.2	18.6	22.1	9.7	12.4
	중앙동	261	30.7	22.2	29.1	7.7	10.3
	대원동	342	31.0	21.1	22.5	15.2	10.2
전체		1,405	28.6	21.1	25.8	11.3	13.2

- 부모님(또는 양육자)과의 활동과 관련하여 ‘정치, 사회적 주제에 대한 대화’에 대해 매일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0%로 나타났으며,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52.6%로 나타났음. 그리고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청소년들이 부모님과 정치, 사회적 주제에 대해 매일 대화하는 비율은 4.3%p 높게 나타났으며, 거의 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7.5%p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정치, 사회적 주제에 대해 매일 대화하는 정도를 주요 변인별로 비교하면, 여학생(6.4%)이 남학생(5.3%)보다 높았으며,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6.3%로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교 6.0%, 중학교 5.5% 순으로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 9.1%, 어려운편 7.4%, 보통수준 4.2% 순으로 나타났음. 거주지역별로는 남촌동과 초평동이 7.5%로 가장 높았으며, 세마동 6.9%, 신장동 5.6%, 대원동 5.3%, 중앙동 4.2% 순으로 나타났음.

&lt;표 3-20&gt; 부모님(또는 양육자)과의 활동 - 정치, 사회적 주제에 관한 대화(선거 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거의 하지 않는다	월 1~3회	주 1~3회	주 4~6회	매일한다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7,170	60.1	23.6	10.8	3.7	1.7	
성별	남	660	53.2	18.6	16.5	6.4	5.3
	여	729	52.4	21.4	15.1	4.7	6.4
학교급	초	452	55.1	18.8	12.8	7.3	6.0
	중	472	54.4	19.7	16.1	4.2	5.5
	고	459	48.8	21.8	18.3	4.8	6.3
경제 수준	어려운편	81	63.0	14.8	13.6	1.2	7.4
	보통	839	54.1	22.2	15.1	4.4	4.2
	잘사는편	470	48.5	17.2	17.2	7.9	9.1
거주 지역	세마동	247	50.6	20.6	15.0	6.9	6.9
	신장동	214	54.2	16.8	18.7	4.7	5.6
	남촌동	93	52.7	18.3	17.2	4.3	7.5
	초평동	146	50.0	23.3	13.7	5.5	7.5
	중앙동	259	55.2	21.6	14.7	4.2	4.2
	대원동	339	52.2	21.5	15.9	5.0	5.3
전체	1,398	52.6	20.2	15.8	5.4	6.0	

- 부모님(또는 양육자)과의 활동과 관련하여 ‘여가활동’에 대해 매일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1.2%로 나타났으며,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18.2%로 나타났음. 그리고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청소년들이 부모님과의 여가활동에 대한 비율은 16.7%p 높게 나타났으며, 거의 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1.6%p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여가활동에 대한 정도를 주요 변인별로 비교하면, 남학생(21.4%)이 여학생(21.0%)보다 높았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26.5%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22.4%, 고등학교 15.1% 순으로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 18.2%, 보통수준 17.6%, 어려운편 14.6% 순으로 나타났음. 거주지역별로는 신장동이 26.3%로 가장 높았으며, 남촌동 21.5%, 세마동 21.1%, 초평동 20.1%, 대원동 19.6%, 중앙동 16.5% 순으로 나타났음.

&lt;표 3-21&gt; 부모님(또는 양육자)과의 활동 - 여가활동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거의 하지 않는다	월 1~3회	주 1~3회	주 4~6회	매일한다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7,170	19.8	37.9	27.9	9.9	4.5
성별	남	665	18.6	17.3	27.8	14.9	21.4
	여	729	18.1	20.4	25.0	15.5	21.0
학교급	초	457	14.0	18.6	25.4	15.5	26.5
	중	474	16.9	17.3	25.7	17.7	22.4
	고	457	24.5	20.8	27.8	11.8	15.1
경제 수준	어려운편	82	34.1	19.5	24.4	7.3	14.6
	보통	840	19.8	22.3	26.1	14.3	17.6
	잘사는편	73	12.9	13.3	27.1	18.2	28.5
거주 지역	세마동	246	13.0	21.5	30.5	13.8	21.1
	신장동	217	14.7	15.7	26.3	17.1	26.3
	남촌동	93	23.7	16.1	24.7	14.0	21.5
	초평동	144	16.7	18.1	32.6	12.5	20.1
	중앙동	260	25.8	21.9	23.8	11.9	16.5
	대원동	342	18.4	19.3	24.9	17.8	19.6
전체		1,403	18.2	19.0	26.4	15.1	21.2

- 부모님(또는 양육자)과의 활동과 관련하여 ‘저녁 식사’에 대해 매일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8.3%로 나타났으며,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9.6%로 나타났음. 그리고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청소년들이 부모님과 여가활동에 대해 매일 대화하는 비율은 16.9%p 높게 나타났으며, 거의 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6.2%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저녁 식사에 대한 정도를 주요 변인별로 비교하면, 남학생(51.6%)이 여학생(45.6%)보다 높았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62.3%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52.6%, 고등학교 29.9% 순으로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 56.2%, 보통수준 44.4%, 어려운편 43.9% 순으로 나타났음. 거주지역별로는 초평동이 52.1%로 가장 높았으며, 대원동 48.8%, 신장동 47.7%, 남촌동 46.2%, 세마동 43.3%, 중앙동 42.1% 순으로 나타났음.

&lt;표 3-22&gt; 부모님(또는 양육자)과의 활동 - 저녁 식사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거의 하지 않는다	월 1~3회	주 1~3회	주 4~6회	매일한다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7,170	3.4	11.0	28.1	26.1	31.4	
성별	남	667	9.1	6.3	17.4	15.6	51.6
	여	732	10.1	8.9	19.5	15.8	45.6
학교급	초	461	6.7	6.3	11.5	13.2	62.3
	중	475	7.6	8.0	14.3	17.5	52.6
	고	458	14.8	9.2	29.9	16.2	29.9
경제 수준	어려운편	82	20.7	7.3	15.9	12.2	43.9
	보통	846	10.4	9.5	19.7	16.0	44.4
	잘사는편	473	6.3	5.1	16.3	16.1	56.2
거주 지역	세마동	247	6.5	6.1	23.9	20.2	43.3
	신장동	218	8.7	6.9	17.0	19.7	47.7
	남촌동	93	9.7	9.7	18.3	16.1	46.2
	초평동	146	8.2	11.0	12.3	16.4	52.1
	중앙동	261	18.8	10.0	18.4	10.7	42.1
	대원동	344	7.8	6.7	21.5	15.1	48.8
전체	1,409	9.6	7.8	18.5	15.8	48.3	

## 3. 부모님(또는 양육자)과의 보내는 시간(대화 시간 포함)

- 주중에 매일 부모님(또는 양육자)과 함께 얼마나 시간(대화 시간 포함)을 보내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음. 이에 대해 아버지,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으로 나누어 측정하였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안 계시는 경우 양육자와 보내는 시간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음.
-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과 관련하여 아버지와 2시간 이상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8.5%로 나타났음. 전혀 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6.5%로 나타났음. 그리고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청소년들이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비율은 23.0%p 높게 나타났으며, 거의 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1.1%p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주요 변인별로 비교하면, 남학생(29.9%)이 여학생(27.4%)보다 높았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4.0%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28.9%, 고등학교 22.7% 순으로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 38.3%, 보통수준 23.9%, 어려운편 16.3% 순으로 나타났음. 거주지역별로는 대원동이 32.1%로 가장 높았으며, 초평동 31.7%, 신장동 28.8%, 남촌동 26.9%, 세마동 26.0%, 중앙동 20.4% 순으로 나타났음.

&lt;표 3-23&gt;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대화 시간 포함) - 아버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하지 않다	30분 미만	1시간 미만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해당없음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7,170	7.6	47.7	26.2	8.9	5.5	4.0	
성별	남	662	7.1	19.9	19.5	21.0	29.9	2.6
	여	729	6.0	25.4	20.3	17.6	27.4	3.3
학교급	초	459	5.4	20.9	17.6	17.9	34.0	4.1
	중	474	6.5	22.2	19.0	21.1	28.9	2.3
	고	454	7.7	25.6	23.8	17.8	22.7	2.4
경제수준	어려운편	80	8.8	35.0	16.3	20.0	16.3	3.8
	보통	841	7.3	25.6	21.0	19.0	23.9	3.2
	잘사는편	473	4.9	16.3	19.0	19.5	38.3	2.1
거주지역	세마동	246	5.7	23.2	21.1	22.4	26.0	1.6
	신장동	219	6.4	19.2	21.0	21.9	28.8	2.7
	남촌동	93	6.5	28.0	17.2	16.1	26.9	5.4
	초평동	145	4.8	21.4	22.8	15.9	31.7	3.4
	중앙동	255	11.4	26.7	20.0	18.8	20.4	2.7
	대원동	343	5.2	22.2	20.1	17.8	32.1	2.6
전체	1,401	6.5	22.8	20.1	19.1	28.5	2.9	

-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과 관련하여 어머니와 2시간 이상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6.6%로 나타났다. 전혀 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2.3%로 나타났다. 그리고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청소년들이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비율은 31.1%p 높게 나타났으며, 거의 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0.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주요 변인별로 비교하면, 여학생(49.2%)이 남학생(43.9%)보다 높았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54.7%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47.7%, 고등학교 36.5%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 55.4%, 보통수준 42.4%, 어려운편 36.3%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초평동이 48.6%로 가장 높았으며, 대원동 48.5%, 신장동 47.7%, 남촌동 45.2%, 세마동 43.0%, 중앙동 40.4%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4〉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대화 시간 포함) - 어머니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하지 않다	30분 미만	1시간 미만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해당없음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7,170	1.9	19.8	37.1	23.6	15.5	2.1	
성별	남	661	2.4	14.5	15.7	21.3	43.9	2.1
	여	728	2.2	12.2	19.2	15.4	49.2	1.8
학교급	초	459	1.7	13.3	13.5	15.3	54.7	1.5
	중	476	2.5	12.0	16.4	19.1	47.7	2.3
	고	449	2.7	15.1	23.2	20.5	36.5	2.0
경제 수준	어려운편	80	3.8	30.0	12.5	12.5	36.3	5.0
	보통	840	2.3	13.7	19.4	20.5	42.4	1.8
	잘사는편	471	2.1	10.2	15.3	15.5	55.4	1.5
거주 지역	세마동	244	1.6	9.8	24.2	18.9	43.0	2.5
	신장동	218	0.9	12.4	17.0	20.2	47.7	1.8
	남촌동	93	2.2	14.0	19.4	18.3	45.2	1.1
	초평동	146	2.1	15.1	19.2	13.7	48.6	1.4
	중앙동	255	3.1	15.3	17.3	22.4	40.4	1.6
대원동	342	2.0	15.2	14.6	17.3	48.5	2.3	
전체	1,399	2.3	13.4	17.6	18.2	46.6	1.9	

- 양육자 함께 보내는 시간과 관련하여 양육자와 2시간 이상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5.6%로 나타났다. 전혀 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29.8%로 나타났다. 그리고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청소년들이 양육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비율은 4.7%p 높게 나타났으며, 거의 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25.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양육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주요 변인별로 비교하면, 남학생(28.6%)이 여학생(22.8%)보다 높았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2.9%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23.3%, 고등학교 4.8%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 32.7%, 보



통수준 20.3%, 어려운편 16.7% 순으로 나타났음. 거주지역별로는 세마동이 46.2%로 가장 높았으며, 초평동 37.5%, 신장동 25.0%, 남촌동 22.2%, 대원동 14.3%, 중앙동 13.2% 순으로 나타났음.

<표 3-25>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대화 시간 포함) - 양육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하지 않다	30분 미만	1시간 미만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30	44	28.8	37.1	8.8	20.9
성별	남	63	23.8	15.9	17.5	14.3	28.6
	여	57	36.8	15.8	14.0	10.5	22.8
학교급	초	70	30.0	18.6	11.4	7.1	32.9
	중	30	40.0	10.0	13.3	13.3	23.3
	고	21	14.3	19.0	33.3	8.6	4.8
경제 수준	어려운편	12	33.3	8.3	25.0	16.7	16.7
	보통	59	25.4	25.4	13.6	15.3	20.3
	잘사는편	49	34.7	8.2	16.3	8.2	32.7
거주 지역	세마동	13	30.8	7.7	15.4	0.0	46.2
	신장동	16	25.0	12.5	25.0	12.5	25.0
	남촌동	9	44.4	22.2	11.1	0.0	22.2
	초평동	16	25.0	6.3	6.3	25.0	37.5
	중앙동	38	28.9	26.3	18.4	13.2	13.2
	대원동	21	38.1	9.5	19.0	19.0	14.3
전체		121	29.8	16.5	15.7	12.4	25.6

#### 4. 부모님(또는 양육자)과의 관계(가정 내 방임 정도)

- 양육자의 관심은 방임 및 방치와 관련한 문항으로 두 번째 문항은 의료적 방임에 해당함. 여기서는 양육자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포함시켰음. ‘학교 수업(학원 포함)이 끝난 후 집에 늦게 들어와도 관심이 없다’, ‘내가 고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다’ 등임. 이에 대해 4가지 범주(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음.
- 부모님의 관심과 관련하여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집에 늦게 들어와도 관심이 없다’ 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2%로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52.9%로 나타났음. 그리고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집에 늦게 들어와도 관심이 없다는 데 대한 매우 그렇다의 비율은 0.2%p 낮게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21.2%p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집에 늦게 들어와도 관심이 없다’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 역시 4점 만점에 1.69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1.39점)와 비교했을 때 0.3점 높게 나타났음.
-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집에 늦게 들어와도 관심이 없다’ 문항에 대한 주요 변인별로 차이검정한 결과, 성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성별로는 남학생이 1.77점으로 여학생의 1.61점보다 높았음. 경제수준별로는 어려운편이 2.01점, 보통수준 1.71점, 잘사는편이 1.57점으로 나타났음. 결과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집에 늦게 들어와도 관심이 없는 정도가 높다는 점을 시사함. 그리고 거주지역별로는 남촌동이 1.9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앙동(1.93점), 초평동과 대원동(1.66점), 신장동(1.62점), 세마동(1.48점) 순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학교급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표 3-26> 부모님(또는 양육자)의 관심 - 학교 수업(학원 포함)이 끝난 후 집에 늦게 들어와도 관심이 없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해당없음	평균 (1~4점)	차이 검증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3,866	74.1	15.5	8.0	2.4	-	1.39	-	
성별	남	670	47.9	36.9	11.0	3.0	1.2	1.77	7.89**
	여	733	57.0	32.7	7.6	1.5	1.1	1.61	
학교급	초	463	56.4	31.3	8.2	3.0	1.1	1.65	.28
	중	476	53.6	32.4	11.3	2.3	0.4	1.65	
	고	459	48.8	40.5	8.3	1.3	1.1	1.70	
경제수준	어려운편	83	28.9	44.6	22.9	3.6	0.0	2.01	6.80***
	보통	846	49.1	39.0	8.7	2.1	1.1	1.71	
	잘사는편	476	64.3	25.0	7.4	1.9	1.5	1.57	
거주지역	세마동	246	63.0	27.6	7.7	1.6	0.0	1.48	5.59***
	신장동	219	57.1	31.5	8.2	2.3	0.9	1.62	
	남촌동	93	44.1	38.7	10.8	3.2	3.2	1.96	
	초평동	146	56.2	32.2	8.2	2.1	1.4	1.66	
	중앙동	262	39.3	41.2	14.5	3.4	1.5	1.93	
	대원동	346	53.2	35.8	8.7	1.2	1.2	1.66	
전체	1,413	52.9	34.5	9.3	2.2	1.1	1.69	-	

\*p&lt;.05. \*\*p&lt;.01. \*\*\*p&lt;.001

- 부모님의 관심과 관련하여 ‘내가 고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다’ 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1.0%로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80.6%로 나타났음. 그리고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내가 고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다에 대한 매우 그렇다의 비율은 1.6%p 낮게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0.6%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내가 고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다’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 역시 4점 만점에 1.26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1.33점)와 비교했을 때 0.07점 낮게 나타났음.
- ‘내가 고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다’ 문항에 대한 주요 변인별로 차이검증한 결과, 학교급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1.3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와 초등학교 1.22점 순으로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어려운편이 1.65점, 보통수준 1.27점, 잘사는편이 1.16점으로 나타났음. 결과적으로 학교급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내가 고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는 정도가 높다는 점을 시사함. 그리고 거주지역별로는 중앙동이 1.4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남촌동(1.32점), 초평동(1.26

점), 세마동과 대원동(1.25점), 신장동(1.14점) 순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표 3-27> 부모님(또는 양육자)의 관심 - 내가 고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1~4점)	차이 검증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3,870	80.0	10.1	7.4	2.6	1.33	-	
성별	남	669	78.8	15.5	4.5	1.2	1.28	2.25
	여	733	82.1	13.1	4.0	0.8	1.23	
학교급	초	463	84.9	9.9	3.9	1.3	1.22	6.39**
	중	476	82.8	13.2	3.4	0.6	1.22	
	고	457	74.2	19.3	5.5	1.1	1.33	
경제 수준	어려운편	83	56.6	27.7	9.6	6.0	1.65	28.88***
	보통	844	79.1	15.4	4.6	0.8	1.27	
	잘사는편	476	87.8	9.2	2.5	0.4	1.16	
거주 지역	세마동	246	81.7	12.6	4.9	0.8	1.25	5.16***
	신장동	218	90.4	6.4	2.3	0.9	1.14	
	남촌동	92	77.2	15.2	6.5	1.1	1.32	
	초평동	146	81.5	12.3	4.8	1.4	1.26	
	중앙동	262	67.9	24.8	6.5	0.8	1.40	
대원동	346	80.9	14.5	3.5	1.2	1.25		
전체	1,412	80.6	14.2	4.3	1.0	1.26	-	

\*p<.05. \*\*p<.01. \*\*\*p<.001

## 5. 다문화관(다문화 수용성)

- 다문화관은 다문화 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는 또래를 친구로 사귄 수 있다’, ‘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는 또래를 이성친구로 사귄 수 있다’ 등 두 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에 대해 4가지 범주(‘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음.
- 다문화관과 관련하여 ‘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는 또래를 친구로 사귄 수 있다’ 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43.9%로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3%로 나타났음. 그리고 2020년 전국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는 또래를 친구로 사귄 수 있다가에 대한 매우 그렇다의 비율은 26.1%p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가의 비율은 1.4%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는 또래를 친구로 사귄 수 있다’ 문항에 대한 평균점수 역시 4점 만점에 3.32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2.99점)와 비교했을 때 0.33점 높게 나타났음.
- ‘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는 또래를 친구로 사귄 수 있다’ 문항에 대한 주요 변인별로 차이검정한 결과, 성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성별로는 여학생이 3.39점으로 남학생 3.32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 3.39점, 보통수준 3.29점, 어려운편이 3.20점으로 나타났음. 결과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는 또래를 친구로 사귄 수 있다는 정도가 높다는 점을 시사함. 그리고 거주지역별로는 신장동이 3.4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초평동과 대원동이 3.36점, 세마동(3.31점), 남촌동(3.26점), 중앙동(3.17점) 순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학교급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표 3-28> 다문화관 - 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는 또래를 친구로 사귄 수 있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1~4점)	차이 검증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5,628	0.9	16.7	64.5	17.8	2.99	-	
성별	남	671	2.8	9.1	49.2	38.9	3.24	6.48***
	여	734	1.6	5.9	44.0	48.5	3.39	
학교급	초	464	2.8	7.3	48.5	41.4	3.28	1.17
	중	476	2.1	5.9	46.4	45.6	3.36	
	고	460	2.0	8.9	44.8	44.3	3.32	
경제 수준	어려운편	83	3.6	14.5	39.8	42.2	3.20	4.69**
	보통	848	2.2	7.0	50.6	40.2	3.29	
	잘사는편	476	1.9	7.1	40.5	50.4	3.39	
거주 지역	세마동	247	3.6	8.5	41.3	46.6	3.31	3.17*
	신장동	219	1.8	6.4	42.0	49.8	3.40	
	남촌동	93	1.1	6.5	58.1	34.4	3.26	
	초평동	146	1.4	7.5	45.2	45.9	3.36	
	중앙동	236	2.7	11.0	52.5	33.8	3.17	
	대원동	346	2.0	5.5	46.8	45.7	3.36	
전체	1,415	2.3	7.5	46.4	43.9	3.32	-	

\*p&lt;.05. \*\*p&lt;.01. \*\*\*p&lt;.001

- 다문화관과 관련하여 ‘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는 또래를 이성친구로 사귄 수 있다’ 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9.0%로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5.4%로 나타났음. 그리고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는 또래를 이성친구로 사귄 수 있다에 대한 매우 그렇다의 비율은 18.2%p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3.2%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는 또래를 이성친구로 사귄 수 있다’ 문항에 대한 평균점수 역시 4점 만점에 2.98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2.83점)와 비교했을 때 0.15점 높게 나타났음.
- ‘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는 또래를 이성친구로 사귄 수 있다’ 문항에 대한 주요 변인별로 차이검정한 결과, 성별, 학교급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성별로는 여학생이 3.05점으로 남학생 2.89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3.08점, 중학교 2.95점, 초등학교 2.91점으로 나타났음. 결과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교급이 높을수록 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는 또래를 이성친구로 사귄 수 있다는 정도가 높다는 점을 시사함. 그리고 거주지역별로는 신장동이 3.0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원동(2.99점), 세마동(2.98점), 초평동(2.92점), 남촌동과 중앙동(2.90점) 순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학교급별로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표 3-29> 다문화관 - 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는 또래를 이성친구로  
사귌 수 있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1~4점)	차이 검증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5,628	22	23.4	63.6	10.8	2.83	-	
성별	남	663	6.9	21.4	46.9	24.7	2.89	16.48***
	여	732	4.0	19.3	44.1	32.7	3.05	
학교급	초	459	5.9	21.4	48.4	24.4	2.91	4.87**
	중	474	6.5	21.5	42.0	30.0	2.95	
	고	457	3.7	17.5	46.0	32.8	3.08	
경제 수준	어려운편	83	4.8	24.1	43.4	27.7	2.94	.10
	보통	840	4.8	18.9	49.5	26.8	2.98	
	잘사는편	474	6.8	21.9	38.2	33.1	2.98	
거주 지역	세마동	245	5.7	22.9	39.2	32.2	2.98	1.41
	신장동	218	4.6	16.1	45.4	33.9	3.09	
	남촌동	92	5.4	22.8	47.8	23.9	2.90	
	초평동	146	5.5	23.3	44.5	26.7	2.92	
	중앙동	261	5.0	23.4	47.9	23.8	2.90	
	대원동	343	5.8	18.4	46.6	29.2	2.99	
전체	1,405	5.4	20.3	45.3	29.0	2.98	-	

\*p<.05. \*\*p<.01. \*\*\*p<.001

### 제 3 절 청소년 참여

#### 1. 청소년 참여

-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관련 문제, 청소년 정책이나 수립 과정,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 정도와 필요성에 대해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음.
-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참여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4%로 나타났으며,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1.4%로 나타났음. 그리고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청소년 관련 문제 참여도에 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비율은 7.6%p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비율은 28.0%p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참여도에 대한 평균점수 역시 4점 만점에 2.35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1.70점)와 비교했을 때 0.65점 높게 나타났음.
-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참여도에 대한 주요 변인별로 차이검증한 결과, 성별, 학교급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표 3-30> 참여도 -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함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다	별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	가끔 참여한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평균 (1~4점)	차이 검증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5,628	49.4	33.4	15.4	1.8	1.70	-	
성별	남	605	24.1	30.9	35.4	9.6	2.30	2.29
	여	670	19.1	32.7	39.1	9.1	2.38	
학교급	초	415	24.8	27.2	38.6	9.4	2.33	.38
	중	427	20.6	34.0	36.5	8.9	2.34	
	고	426	18.8	34.0	37.8	9.4	2.38	
경제 수준	어려운편	72	20.8	36.1	33.3	9.7	2.32	2.35
	보통	786	21.8	33.5	37.2	7.6	2.31	
	잘사는편	418	20.8	28.0	39.0	12.2	2.43	
거주 지역	세마동	226	21.7	24.8	42.0	11.5	2.43	1.15
	신장동	200	20.0	34.0	35.0	11.0	2.37	
	남촌동	82	20.7	34.1	30.5	14.6	2.39	
	초평동	136	26.5	29.4	34.6	9.6	2.27	
	중앙동	229	19.7	42.4	31.4	6.6	2.25	
대원동	316	22.5	28.8	40.5	8.2	2.34		
전체	1,415	21.4	31.9	37.4	9.4	2.35	-	



- 청소년 정책이나 수립 과정에 대한 참여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8.0%로 나타났으며,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5.0%로 나타났음. 그리고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청소년 정책이나 수립 과정에 대한 참여도에 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비율은 26.6%p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비율은 50.4%p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청소년 정책이나 수립 과정에 대한 참여도에 대한 평균점수 역시 4점 만점에 3.10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1.59점)와 비교했을 때 1.51점 높게 나타났음.
- 청소년 정책이나 수립 과정에 대한 참여도에 대한 주요 변인별로 차이검증한 결과, 학교급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고등학교가 3.2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학교 3.08점, 초등학교 2.99점으로 나타났음. 결과적으로 학교급이 높을수록 청소년 정책이나 수립 과정에 대한 참여도가 높다는 점을 시사함. 그리고 거주지역별로는 세마동과 남촌동이 3.2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원동(3.14점), 초평동(3.07점), 신장동(3.04점), 중앙동(2.90점) 순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성별, 경제수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표 3-31> 참여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이나 수립 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함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다	별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	가끔 참여한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평균 (1~4점)	차이 검증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5,628	55.4	31.4	11.7	1.4	1.59	-	
성별	남	455	5.5	11.0	55.4	28.1	3.06	1.63
	여	505	4.4	6.5	61.6	27.5	3.12	
학교급	초	301	7.3	10.6	58.1	23.9	2.99	6.81***
	중	313	4.2	9.6	60.1	26.2	3.08	
	고	342	3.5	6.1	57.0	33.3	3.20	
경제 수준	어려운편	49	10.2	8.2	55.1	26.5	2.98	1.87
	보통	572	4.0	9.3	62.2	24.5	3.07	
	잘사는편	343	5.5	7.6	53.1	33.8	3.15	
거주 지역	세마동	177	3.4	4.0	57.1	35.6	3.25	4.40***
	신장동	169	4.1	9.5	65.1	21.3	3.04	
	남촌동	56	1.8	10.7	48.2	39.3	3.25	
	초평동	106	6.6	6.6	60.4	26.4	3.07	
	중앙동	144	7.6	13.2	60.4	18.8	2.90	
대원동	250	4.8	8.4	55.2	31.6	3.14		
전체	1,415	5.0	8.7	58.4	28.0	3.10	-	

\*p<.05. \*\*p<.01. \*\*\*p<.001

-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4%로 나타났으며,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8.9%로 나타났음. 그리고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도에 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비율은 3.7%p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비율은 16.0%p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도에 대한 평균점수 역시 4점 만점에 1.92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1.61점)와 비교했을 때 0.31점 높게 나타났음.
-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도에 대한 주요 변인별로 차이검정한 결과, 학교급별, 경제수준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초등학교가 1.9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1.92점, 중학교 1.83점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이 2.0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어려운편 1.92점, 보통수준 1.85점으로 나타났음. 결과적으로 초등학교와 잘사는편의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도가 높다는 점을 시사함. 하지만 성별, 거주지역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표 3-32> 참여도 - 청소년이 사회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참여함**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다	별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	가끔 참여한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평균 (1~4점)	차이 검증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5,628	54.9	30.8	12.6	1.7	1.61		
성별	남	610	39.7	32.5	21.1	6.7	1.95	1.72
	여	669	38.7	38.6	18.4	4.3	1.88	
학교급	초	418	36.6	33.0	24.9	5.5	1.99	3.80*
	중	429	42.7	36.8	15.9	4.7	1.83	
	고	426	37.8	38.0	18.3	5.9	1.92	
경제 수준	어려운편	72	40.3	34.7	18.1	6.9	1.92	4.59**
	보통	783	40.2	37.7	18.5	3.6	1.85	
	잘사는편	425	36.7	33.2	21.9	8.2	2.02	
거주 지역	세마동	226	37.2	30.1	26.1	6.6	2.02	1.81
	신장동	200	39.0	33.5	21.0	6.5	1.95	
	남촌동	82	36.6	35.4	19.5	8.5	2.00	
	초평동	137	39.4	33.6	20.4	6.6	1.94	
	중앙동	235	37.0	42.1	17.0	3.8	1.88	
	대원동	313	42.8	37.4	15.7	4.2	1.81	
전체	1,415	38.9	36.1	19.6	5.4	1.92	-	

\*p&lt;.05. \*\*p&lt;.01. \*\*\*p&lt;.001

-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필요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3.6%로 나타났으며,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6.1%로 나타났음. 그리고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필요도에 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비율은 13.3%p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비율은 3.2%p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필요도에 대한 평균점수 역시 4점 만점에 2.97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2.65점)와 비교했을 때 0.32점 높게 나타났음.
-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필요도에 대한 주요 변인별로 차이검정한 결과, 학교급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고등학교 3.0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학교 3.00점, 초등학교 2.92점으로 나타났음. 결과적으로 학교급이 높을수록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필요도가 높다는 점을 시사함. 하지만 성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표 3-33> 필요도 -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함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다	별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	가끔 참여한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평균 (1~4점)	차이 검증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5,628	9.3	27.2	53.2	10.3	2.65	-	
성별	남	449	6.7	15.8	54.1	23.4	2.94	1.03
	여	502	5.8	12.5	58.2	23.5	2.99	
학교급	초	292	11.0	15.8	53.8	19.5	2.82	9.30***
	중	314	4.5	15.0	56.4	24.2	3.00	
	고	340	3.2	12.1	57.9	26.8	3.08	
경제 수준	어려운편	49	16.3	14.3	40.8	28.6	2.82	1.85
	보통	572	4.9	15.2	59.1	20.8	3.03	
	잘사는편	334	6.6	12.3	53.0	28.1	2.97	
거주 지역	세마동	176	5.7	10.8	55.1	28.4	3.06	1.81
	신장동	169	5.9	13.0	65.1	16.0	2.91	
	남촌동	56	3.6	16.1	44.6	35.7	3.13	
	초평동	106	8.5	12.3	50.0	29.2	3.00	
	중앙동	136	7.4	17.6	58.1	16.9	2.85	
	대원동	250	6.0	14.8	54.4	24.8	2.98	
전체	1,415	6.1	14.4	55.8	23.6	2.97	-	

\*p<.05. \*\*p<.01. \*\*\*p<.001

- 청소년 정책이나 수립 과정에 대한 필요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4%로 나타났으며,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43.0%로 나타났음. 그리고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청소년 정책이나 수립 과정에 대한 필요도에 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비율은 5.8%p 낮게 나타났으며,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비율은 32.1%p 높게 것으로 나타났음.
- 청소년 정책이나 수립 과정에 대한 필요도에 대한 평균점수 역시 4점 만점에 1.89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2.62점)와 비교했을 때 0.73점 낮게 나타났음.
- 청소년 정책이나 수립 과정에 대한 필요도에 대한 주요 변인별로 차이검증한 결과,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잘사는편이 1.9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보통수준 1.93점, 어려운편 1.92점으로 나타났음. 결과적으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필요도가 높다는 점을 시사함. 그리고 거주지역별로는 남촌동이 2.0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신장동(1.99점), 세마동(1.97점), 초평동(1.88점), 대원동(1.86점), 중앙동(1.74점) 순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성별, 학교급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표 3-34> 필요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이나 수립 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함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다	별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	가끔 참여한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평균 (1~4점)	차이 검증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5,628	10.9	28.8	48.2	12.2	2.62	-	
성별	남	611	44.8	28.6	19.3	7.2	1.89	.00
	여	671	41.7	33.7	18.8	5.8	1.89	
학교급	초	420	43.8	31.2	18.6	6.4	1.88	.59
	중	429	43.8	32.6	17.7	5.8	1.86	
	고	426	41.8	30.8	20.9	6.6	1.92	
경제 수준	어려운편	73	47.9	30.1	13.7	8.2	1.82	4.21*
	보통	785	44.5	32.7	17.7	5.1	1.83	
	잘사는편	425	40.0	29.2	22.4	8.5	1.99	
거주 지역	세마동	227	41.0	28.2	23.3	7.5	1.97	2.31*
	신장동	197	38.1	32.0	22.3	7.6	1.99	
	남촌동	83	38.6	32.5	19.3	9.6	2.00	
	초평동	138	44.9	30.4	16.7	8.0	1.88	
	중앙동	235	47.2	34.0	15.7	3.0	1.74	
	대원동	316	45.3	30.4	17.7	6.6	1.86	
전체	1,415	43.0	31.6	18.9	6.4	1.89	-	

\*p<.05. \*\*p<.01. \*\*\*p<.001

-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필요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6.9%로 나타났으며,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7.7%로 나타났음. 그리고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필요도에 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비율은 16.0%p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비율은 5.8%p 낮게 것으로 나타났음.
-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필요도에 대한 평균점수 역시 4점 만점에 2.98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2.55점)와 비교했을 때 0.43점 높게 나타났음.
-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필요도에 대한 주요 변인별로 차이검증한 결과, 성별, 학교급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여학생이 3.03점으로 남학생 2.93점보다 높게 나타났음.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3.1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학교 3.02점, 초등학교 2.77점으로 나타났음. 결과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교급이 높을수록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필요도가 높다는 점을 시사함. 하지만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표 3-35> 필요도 - 청소년이 사회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참여함**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다	별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	가끔 참여한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평균 (1~4점)	차이 검증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5,628	13.5	28.5	47.1	10.9	2.55	-	
성별	남	451	8.9	16.2	48.3	26.6	2.93	3.86*
	여	502	6.6	10.6	55.8	27.1	3.03	
학교급	초	295	13.6	18.0	46.4	22.0	2.77	15.82***
	중	314	6.1	1.1	53.8	29.0	3.02	
	고	340	4.1	9.1	55.9	30.9	3.14	
경제 수준	어려운편	48	12.5	20.8	35.4	31.3	2.85	1.43
	보통	577	6.9	13.7	55.3	24.1	2.97	
	잘사는편	332	8.1	11.4	48.8	31.6	3.04	
거주 지역	세마동	177	7.3	10.7	53.1	28.8	3.03	.87
	신장동	172	8.1	12.2	55.8	23.8	2.95	
	남촌동	55	1.8	20.0	45.5	32.7	3.09	
	초평동	104	10.6	8.7	52.9	27.9	2.98	
	중앙동	135	9.6	16.3	51.1	23.0	2.87	
	대원동	252	6.37	14.3	49.6	29.4	3.02	
전체	1,415	7.7	13.3	52.1	26.9	2.98	-	

\*p&lt;.05. \*\*p&lt;.01. \*\*\*p&lt;.001

## 제 4 절 학습과 활동

### 1. 청소년 활동 참여 경험

- 청소년활동 참여 경험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문화/예술 관련 활동’ 이 7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직업/진로 관련 활동’ (65.3%), ‘건강·보건 관련 활동’ (61.6%), ‘자기(인성)개발 관련 활동’ (49.1%), ‘과학/정보 관련 활동’ (44.6%), ‘모험/개척 관련 활동’ (44.0%), ‘환경 보존 관련 활동’ (41.0%), ‘자원봉사활동’ (37.5%), ‘국제교류활동’ (13.5%)의 순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청소년 참여활동 경험의 문화/예술 관련 활동은 16.3%p 높게 나타났으며, 국제교류활동의 비율도 6.8%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들은 오산시청소년들의 경우 문화/예술 활동과 직업/진로활동, 건강·보건 활동 등은 상대적으로 참여경험이 높은 반면, 국제교류활동, 자원봉사활동, 환경보존활동, 모험/개척활동, 과학/정보활동 등은 상대적으로 참여경험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
- 청소년 활동 참여 경험을 주요 변인별로 살펴본 결과, 남학생(71.0%)과 여학생(78.4%) 모두 문화/예술 관련 활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81.3%, 중학교 77.8%, 고등학교 65.1% 순으로 문화/예술 관련 활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경제수준별로는 보통수준 83.1%, 잘사는편 80.6%, 어려운편 62.7% 순으로 문화/예술 관련 활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거주지역별로는 6개 지역 모두 문화/예술 관련 활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lt;표 3-36&gt; 청소년 활동 참여 경험

(단위: 명, %)

구분	경험있음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7,170	57.0	18.9	18.4	21.5	20.9	6.7	21.6	21.6	21.1	
성별	남	666	71.0	45.6	44.5	32.6	60.6	13.7	60.8	48.2	38.5
	여	731	78.4	43.5	43.6	42.2	69.7	13.2	62.6	50.1	43.5
학교급	초	459	81.3	62.8	59.1	43.6	68.3	16.7	74.9	53.9	57.3
	중	474	77.8	43.1	39.8	39.0	65.7	9.7	62.1	46.1	39.2
	고	459	65.1	28.3	33.0	29.9	62.1	13.7	47.7	47.4	27.0
경제수준	어려운편	83	62.7	36.1	30.1	38.6	63.4	10.8	53.7	47.0	34.9
	보통	843	83.1	40.9	38.1	34.0	63.0	10.6	58.2	44.6	35.8
	잘사는편	474	80.6	52.9	56.5	43.1	70.2	18.9	69.3	57.2	51.4
거주지역	세마동	244	79.9	59.6	56.1	45.9	72.2	18.9	62.6	56.9	47.6
	신장동	217	77.0	40.8	46.1	38.7	62.8	13.4	61.6	49.3	46.6
	남촌동	93	76.3	39.8	47.3	40.9	75.3	18.5	63.0	55.4	44.6
	초평동	144	72.2	41.0	39.3	39.6	69.4	13.3	62.7	53.5	42.8
	중앙동	263	67.7	37.3	32.7	27.1	50.8	10.3	51.3	35.1	29.7
	대원동	346	74.6	41.9	40.2	37.0	70.1	10.4	65.6	49.3	38.1
전체	1,415	74.9	44.6	44.0	37.5	65.3	13.5	61.6	49.1	41.0	

① 문화/예술 관련 활동, ② 과학/정보 관련 활동, ③ 모험/개척 관련 활동, ④ 자원봉사 활동, ⑤ 직업/진로 관련 활동, ⑥ 국제 교류 활동, ⑦ 건강/보건 관련 활동, ⑧ 자기(인성)개발 관련 활동, ⑨ 환경 보존 관련 활동

- 직접 활동주제와 내용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거나 진행한 경험과 관련하여 36.3%가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직접 활동주제와 내용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거나 진행한 경험은 26.9%p 높게 나타났음.
- 직접 활동주제와 내용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거나 진행한 경험을 주요 변인별로 살펴본 결과, 여학생(37.0%)이 남학생(35.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40.7%, 초등학교 37.5%, 중학교 31.6% 순으로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 47.0%, 보통수준 31.6%, 어려운편 27.5%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거주지역별로는 대원동(38.2%), 세마동(37.8%), 남촌동(37.3%), 중앙동(35.4%), 신장동(34.1%), 초평동(32.2%)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lt;표 3-37&gt; 직접 활동주제와 내용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거나 진행한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5,084	94	90.6
성별	남	525	35.4	64.6
	여	608	37.0	63.0
학교급	초	384	37.5	62.5
	중	393	31.6	68.4
	고	349	40.7	59.3
경제 수준	어려운편	69	27.5	72.5
	보통	680	31.0	69.0
	잘사는편	383	47.0	53.0
거주 지역	세마동	217	37.8	62.2
	신장동	179	34.1	65.9
	남촌동	75	37.3	62.7
	초평동	118	32.2	67.8
	중앙동	178	35.4	64.6
	대원동	288	38.2	61.8
전체		1,415	36.3	63.7

- 직접 아이디어를 내거나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할 기회에 대해 많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6.8%로 나타났으며,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6.2%로 나타났음. 그리고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직접 아이디어를 내거나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할 기회에 대해 많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3.3%p 높게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도 3.5%p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직접 아이디어를 내거나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할 기회에 대한 평균점수 역시 4점 만점에 2.73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2.33점)와 비교했을 때 0.40점 높게 나타났음.
- 직접 아이디어를 내거나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주요 변인별로 차이 검증한 결과, 학교급별, 경제수준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2.8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 2.77점, 고등학교 2.56점의 순으로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이 2.9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수준 2.67점, 어려운편 2.42점으로 나타났음. 결과적으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직접 아이디어를 내거나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높다는 점을 시사함. 하지만 성별과 거주지역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lt;표 3-38&gt; 직접 아이디어를 내거나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할 기회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조금 있다	많이 있다	평균 (1~4점)	차이 검증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7,170	9.7	50.9	36.0	3.5	2.33	-
성별	남	661	8.5	29.0	46.7	15.7	2.70	2.73
	여	720	4.2	32.5	45.6	17.8	2.77	
학교급	초	453	5.3	24.3	47.9	22.5	2.88	19.09***
	중	469	4.5	30.3	49.0	16.2	2.77	
	고	454	8.8	38.3	41.4	11.5	2.56	
경제수준	어려운편	83	14.5	34.9	44.6	6.0	2.42	21.33***
	보통	832	6.5	34.0	45.7	13.8	2.67	
	잘사는편	468	3.8	24.6	47.9	23.7	2.91	
거주지역	세마동	242	4.5	30.6	47.1	17.8	2.78	1.63
	신장동	217	3.7	30.9	52.5	12.9	2.75	
	남촌동	92	7.6	34.8	35.9	21.7	2.72	
	초평동	142	4.9	28.9	45.1	21.1	2.82	
	중앙동	257	12.5	29.2	42.8	15.6	2.61	
	대원동	341	5.6	32.6	46.0	15.8	2.72	
전체		1,415	6.2	30.9	46.2	16.8	2.73	-

\*p&lt;.05. \*\*p&lt;.01. \*\*\*p&lt;.001

- 한편 청소년들의 희망하는 청소년활동은 ‘문화/예술관련 활동’이 38.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직업/진로 관련 활동’ (14.5%), ‘모험/개척 관련 활동’ (14.2%), ‘과학/정보 관련 활동’ (7.2%), ‘국제교류활동’ (6.4%), ‘건강/보건 관련 활동’ (5.9%), ‘환경 보존 관련 활동’ (5.0%), ‘자원봉사활동’ (4.7%), ‘자기(인성)계발 관련 활동’ (3.8%)의 순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희망하는 청소년 활동 1순위의 문화/예술 관련 활동은 2.7%p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계발 관련 활동의 비율도 4.2%p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희망하는 청소년 활동 1순위를 주요 변인별로 살펴본 결과, 남학생(29.4%)과 여학생(46.5%) 모두 문화/예술 관련 활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46.6%, 중학교 39.0%, 고등학교 29.9% 순으로 문화/예술 관련 활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경제수준별로는 보통수준 41.6%, 잘사는편 34.3%, 어려운편 29.1% 순으로 문화/예술 관련 활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거주지역별로는 6개 지역 모두 문화/예술 관련 활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lt;표 3-39&gt; 희망하는 청소년 활동 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7,170	35.7	9.1	12.3	7.8	10.8	9.0	4.8	8.0	2.4
성별	남	629	29.4	11.4	19.2	5.1	11.4	5.1	8.3	4.3	5.7
	여	691	46.5	3.5	9.6	4.2	17.4	7.5	3.8	3.3	4.3
학교급	초	442	29.9	6.3	16.3	7.7	18.1	5.2	5.2	3.8	7.5
	중	444	39.0	7.0	15.3	2.9	14.2	7.4	6.8	2.9	4.5
	고	427	46.6	8.4	10.3	3.5	11.2	6.8	5.6	4.7	2.8
경제 수준	어려운편	79	29.1	5.1	13.9	3.8	24.1	8.9	5.1	6.3	3.8
	보통	783	41.6	6.1	13.0	4.5	13.3	6.5	6.1	4.1	4.7
	잘사는편	458	34.3	9.6	15.9	5.2	14.8	5.9	5.7	2.8	5.7
거주 지역	세마동	231	35.5	6.5	15.6	4.3	13.0	11.7	4.8	3.5	5.2
	신장동	209	41.1	3.8	14.4	5.3	12.0	7.2	8.1	2.9	5.3
	남촌동	81	38.3	2.5	11.1	2.5	18.5	8.6	4.9	4.9	8.6
	초평동	135	37.0	13.3	11.9	5.2	14.8	4.4	7.4	3.0	3.0
	중앙동	237	43.0	8.0	16.0	3.8	16.5	3.0	4.6	1.7	3.4
	대원동	333	37.5	7.8	12.6	4.5	15.9	6.3	5.1	5.1	5.1
전체		1,415	38.4	7.2	14.2	4.7	14.5	6.4	5.9	3.8	5.0

① 문화/예술 관련 활동, ② 과학/정보 관련 활동, ③ 모험/개척 관련 활동, ④ 자원봉사 활동, ⑤ 직업/진로 관련 활동,  
 ⑥ 국제 교류 활동, ⑦ 건강/보건 관련 활동, ⑧ 자기(인성)개발 관련 활동, ⑨ 환경 보존 관련 활동

## 2. 청소년 단체 및 동아리 경험

- 가입하여 활동하는 청소년 단체 및 동아리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청소년 단체나 동아리는 22.4%, 사이버 단체나 동아리는 16.7%, 기타 단체나 동아리는 24.6%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청소년 단체 및 동아리 활동 경험은 청소년 단체나 동아리는 13.5%p 높게 나타났으며, 사이버 단체나 동아리는 8.4%p, 기타 단체나 동아리는 13%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가입하여 활동하는 청소년 단체 및 동아리를 주요 변인별로 살펴본 결과, 청소년 단체나 동아리는 여학생(23.3%)이 남학생(21.1%)보다 높았으나, 사이버 단체나 동아리(여학생 15.1%, 남학생 18.1%)와 기타 단체나 동아리(여학생 22.7%, 남학생 26.8%)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학교급별로는 청소년 단체나 동아리와 사이버 단체나 동아리는 학교급이 높을수록 활동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타 단체나 동아리는 학교급이 낮을수록 활동 경험이 높은 것을 나타냈음. 경제수준별로는 청소년 단체나 동아리는 잘사는편일수록, 사이버 단체나 동아리와 기타 단체와 동아리는 어려운편일수록 활동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거주지역별로는 청소년 단체나 동아리는 신장동(26.1%)이, 사이버단체나 동아리는 대원동(18.3%)이, 기타 단체나 동아리는 세마동(34.7%)의 활동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lt;표 3-40&gt; 가입하여 활동하는 청소년 단체 및 동아리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음			
		청소년 단체나 동아리	사이버 단체나 동아리	기타 단체나 동아리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7,170	8.8	8.3	11.6	
성별	남	667	21.1	18.1	26.8
	여	725	23.3	15.1	22.7
학교급	초	459	19.6	13.9	30.2
	중	470	21.7	17.2	22.5
	고	458	26.4	18.7	21.1
경제수준	어려운편	83	20.5	21.7	30.1
	보통	843	20.9	15.1	24.5
	잘사는편	468	25.2	18.4	24.2
거주지역	세마동	245	22.9	13.9	34.7
	신장동	218	26.1	17.4	21.9
	남촌동	93	23.7	17.4	20.7
	초평동	142	21.8	16.8	24.5
	중앙동	259	18.9	15.8	22.5
	대원동	344	22.7	18.3	20.9
전체	1,415	22.4	16.7	24.6	

## 3. 청소년 활동 시설 이용 경험

-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의 경우 공연시설(75.0%), 도서관(63.7%), 전시시설(52.0%), 수목원/수목림/자연휴양림(45.4%)은 상대적으로 이용경험이 높은 반면,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야영장)의 이용경험은 27.3%로 매우 낮게 나타남. 그리고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청소년 활동 시설 이용 경험은 공연 시설은 10.9%p, 도서관은 8.8%p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스호스텔은 2.0%p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청소년활동 시설 이용 경험을 주요 변인별로 살펴본 결과, 공연 시설(여학생 79.1%, 남학생 70.5%)과 도서관(여학생 67.5%, 남학생 59.4%), 유스호스텔(여학생 7.8%, 남학생 7.5%)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학교 급별로는 공연 시설과 도서관은 학교급이 낮을수록 청소년 활동 시설 이용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스호스텔은 중학교 8.9%, 초등학교 8.6%, 고등학교 5.7% 순으로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일수록 공연 시설, 도서관, 유스호스텔 이용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거주지역별로는 공연 시설은 세마동(72.0%), 도서관은 대원동(78.8%), 유스호스텔은 남촌동(10.8%)의 이용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lt;표 3-41&gt; 청소년 활동 시설 이용 경험

(단위: 명, %)

구분	경험 있음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7,170	21.7	9.6	54.9	64.1	33.1	10.1	30.7	
성별	남	669	26.3	7.5	59.4	70.5	47.5	15.3	39.8
	여	731	28.2	7.8	67.5	79.1	55.9	17.3	50.5
학교급	초	460	35.0	8.6	68.0	80.9	65.9	20.8	52.2
	중	475	28.4	8.9	67.9	76.2	49.7	18.3	45.2
	고	460	18.3	5.7	54.8	67.8	40.6	9.6	38.2
경제 수준	여러운편	83	26.5	8.4	59.0	62.7	42.2	18.3	42.2
	보통	845	27.1	7.0	62.0	75.0	47.0	14.1	40.9
	잘사는편	474	28.1	8.8	67.9	77.4	62.6	19.7	54.0
거주 지역	세마동	246	31.3	9.5	72.0	76.9	65.6	18.4	55.7
	신장동	219	32.0	5.1	63.9	72.9	48.4	16.4	53.7
	남촌동	93	48.4	10.8	57.0	72.0	48.4	25.8	47.3
	초평동	144	20.1	7.6	63.9	70.1	52.4	11.1	46.5
	중앙동	261	21.1	8.4	55.9	72.5	41.8	10.7	31.2
	대원동	346	22.5	7.2	66.0	78.8	50.0	19.5	41.2
전체	1,415	27.3	7.6	63.7	75.0	52.0	16.3	45.4	

① 청소년수련관(청소년센터 등),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야영장, ② 유스호스텔, ③ 도서관, ④ 공연 시설, ⑤ 전시 시설, ⑥ 사회복지관, ⑦ 수목원/수목림/자연 휴양림

#### 4. 청소년 정책 사업 인지도

- 청소년정책사업에 대한 인지도 역시 상담전화1388(73.9%), 섯다운제(55.3%), 청소년자원봉사활동(53.3%), 청소년증(50.1%)만 50% 이상의 인지도를 나타내었고, 나머지 정책사업들(청소년 참여활동,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국제교류활동, 위기청소년상담 및 복지활동, 가정밖 청소년 복지사업, 학교밖 청소년지원, 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지원,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아르바이트 청소년 권익 보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청소년 정책사업 인지도는 상담전화 1388은 23.7%p, 섯다운제는 1.2%p이 높았으며, 청소년자원봉사 활동은 23.0%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 정책사업 인지도를 주요 변인별로 살펴본 결과, 상담전화 1388에 대한 인지도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가장 높았으며, 남학생이 68.9%, 여학생이 78.4%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81.7%, 중학교 64.2%, 초등학교 64.2%로 학교급이 높을수록 상담전화 1388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으며,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 76.1%, 어려운편 74.7%, 보통수준 72.8%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신장동이 78.5%로 상담전화 1388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았으며, 대원동(77.9%), 중앙동(73.9%), 세마동(71.7%), 남촌동(68.8%), 초평동(68.5%) 순으로 나타났다.

&lt;표 3-42&gt; 청소년 정책 사업 인지도

(단위: 명, %)

구분		알고 있음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7,170	43.7	64.0	42.6	62.5	48.8	58.9	34.4
성별	남	666	26.9	34.4	24.2	44.1	17.5	42.3	30.3
	여	729	38.4	47.0	33.5	61.6	24.0	57.2	46.0
학교급	초	459	31.6	38.8	25.9	54.0	22.1	36.4	31.7
	중	475	36.2	41.1	32.0	57.5	19.4	53.3	39.5
	고	456	31.1	42.8	30.0	48.4	21.6	60.0	44.1
경제 수준	어려운편	82	30.5	38.6	25.3	51.8	24.1	51.8	37.3
	보통	842	31.7	41.4	26.7	52.4	17.6	50.4	37.0
	잘사는편	473	36.2	41.0	34.2	55.4	26.3	49.7	41.6
거주 지역	세마동	246	36.2	41.3	29.1	57.3	23.6	53.8	38.1
	신장동	218	32.6	46.3	34.9	56.0	22.1	56.6	45.0
	남촌동	93	35.5	55.9	36.6	50.0	22.0	47.3	47.3
	초평동	146	26.0	36.3	29.0	54.8	18.5	49.7	39.0
	중앙동	257	28.8	30.3	20.7	41.4	16.5	34.9	29.5
	대원동	345	38.8	42.3	31.2	59.0	23.1	60.5	41.7
전체		1,415	33.0	41.0	29.1	53.3	20.9	50.1	38.6
구분		알고 있음							
		사례수	⑧	⑨	⑩	⑪	⑫	⑬	⑭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7,170	36.6	31.2	50.2	33.9	54.1	29.7	29.7
성별	남	666	34.2	33.6	68.9	29.3	57.1	19.0	32.8
	여	729	48.4	43.5	78.4	35.2	54.0	47.3	41.8
학교급	초	459	35.2	34.0	64.2	27.3	46.5	25.9	26.3
	중	475	42.7	40.8	75.8	38.9	59.8	34.9	41.4
	고	456	47.1	41.0	81.7	31.4	59.9	40.4	44.9
경제 수준	어려운편	82	44.6	44.6	74.7	28.9	60.2	38.6	37.8
	보통	842	39.4	35.9	72.8	30.6	54.3	34.0	35.7
	잘사는편	473	45.2	43.0	76.1	36.4	56.8	32.6	40.5
거주 지역	세마동	246	38.5	39.0	71.7	34.6	54.9	39.4	39.4
	신장동	218	45.0	43.1	78.5	38.5	54.8	34.9	43.1
	남촌동	93	51.6	44.1	68.8	35.5	57.0	42.4	49.5
	초평동	146	45.2	42.1	68.5	23.4	59.3	35.6	32.9
	중앙동	257	31.4	32.0	73.9	24.1	44.6	25.7	25.0
	대원동	345	45.9	40.8	77.9	36.0	60.9	33.4	43.0
전체		1,415	41.6	38.8	73.9	32.4	55.3	33.8	37.5

① 청소년 참여활동, ② 청소년 수련활동, ③ 청소년어울림마당, ④ 청소년자원봉사활동, ⑤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⑥ 청소년증, ⑦ 위기청소년상담 및 복지 지원, ⑧ 가정 밖 청소년 복지사업, ⑨ 학교 밖 청소년 지원, ⑩ 상담전화 1388, ⑪ 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지원, ⑫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셋다운제), ⑬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⑭ 아르바이트 청소년 권익 보호(청소년근로보호센터)

## 5. 청소년증 발급 경험

- 청소년증 발급 경험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비율은 27.2%,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율은 72.8%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청소년증 발급 경험은 1.0%p 높았으며, 아니오는 1.0%p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증 발급 경험을 주요 변인별로 살펴본 결과, 여학생이(28.9%) 남학생(25.2%)에 비해 청소년증 발급 경험이 높았으며,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41.3%, 중학교 28.2%, 초등학교 9.1%로 학교급이 높을수록 청소년증 발급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경제수준별로는 어려운편 26.9%, 잘사는편 27.9%, 보통수준 26.7% 순으로 청소년증 발급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증을 발급받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청소년증을 알지 못해서가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증이 필요하지 않아서 31.6%, 청소년증 발급 대상이 아니어서 15.3%, 청소년증을 발급받는 절차가 까다로워서 4.1%, 기타 2.3%로 나타났음.
- 청소년증 발급받지 않는 이유를 주요 변인별로 살펴본 결과, 남학생이(49.5%) 여학생(44.0%)에 비해 청소년증을 알지 못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54.3%, 초등학교 51.9%, 고등학교 29.3% 순으로 청소년증을 알지 못하는 비율이 높았음. 경제수준별로는 어려운편 64.9%, 보통수준 46.7%, 잘사는편 43.1% 순으로 청소년증을 알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거주지역별로는 초평동이 5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촌동 54.3%, 중앙동 46.7%, 신장동 46.4%, 대원동 41.9%, 세마동 39.6% 순으로 청소년증을 알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lt;표 3-43&gt; 청소년증 발급 경험 및 발급받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발급받지 않은 이유					
				청소년증을 알지 못해서	청소년증이 필요하지 않아서	청소년증을 발급받는 절차가 까다로워서	청소년증 발급 대상이 아니어서	기타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328	26.2	73.8	26.5	63.5	8.2	1.8	-
성별	남	630	25.2	74.8	49.5	28.1	4.1	15.9	2.4
	여	688	28.9	71.1	44.0	34.7	4.0	14.9	2.2
학교급	초	408	9.1	90.9	51.9	11.6	1.1	34.4	1.1
	중	457	28.2	71.9	54.3	33.3	4.9	3.7	3.7
	고	448	41.3	58.7	28.3	59.8	7.5	2.0	2.4
경제 수준	어려운편	77	29.9	70.1	64.9	24.6	1.8	7.0	1.8
	보통	80	26.7	73.3	46.7	34.2	4.4	13.0	1.7
	잘사는편	441	27.9	72.1	43.1	28.4	3.8	21.1	3.5
거주 지역	세마동	240	18.3	81.7	39.6	25.1	4.8	30.5	0.0
	신장동	206	27.2	72.8	46.4	37.3	3.9	9.2	3.3
	남촌동	90	26.7	73.3	54.3	22.9	7.1	11.4	4.3
	초평동	133	27.8	72.2	58.2	22.0	2.2	13.2	4.4
	중앙동	242	31.8	68.2	46.7	39.6	2.4	10.1	1.2
	대원동	328	32.9	67.1	41.9	38.1	6.0	10.2	3.7
전체	1,415	27.2	72.8	46.7	31.6	4.1	15.3	2.3	



## 6. 학교생활 만족도

- 학교생활 만족도와 관련하여 ‘나는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1.0%로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5.8%로 나타났음. 그리고 2020년 전국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존중한다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14.0%p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4.6%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나는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는 정도에 대한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2.90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2.83점)와 비교했을 때 0.07점 높게 나타났음.
- ‘나는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는 정도를 주요 변인별로 차이검정한 결과, 학교급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0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 2.75점, 고등학교 2.67점의 순으로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잘 사는편이 3.0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수준 2.82점, 어려운편 2.67점으로 나타났음. 결과적으로 학교급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나는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시사함. 그리고 거주지역별로는 초평동이 3.0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세마동(3.02점), 신장동(2.86점), 남촌동(2.86점), 대원동(2.86점)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중앙동(2.75점) 순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lt;표 3-44&gt; 학교생활 만족도 - 나는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1~4점)	차이 검증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3,841	1.2	22.2	69.5	7.1	2.83	-	
성별	남	654	6.0	17.6	52.8	23.7	2.94	2.99
	여	722	5.5	20.5	55.5	18.4	2.87	
학교급	초	449	4.9	13.4	50.6	31.2	3.08	21.00***
	중	468	4.1	19.9	58.5	17.5	2.90	
	고	457	8.3	23.4	53.6	14.7	2.75	
경제 수준	여려운편	82	9.8	23.2	57.3	9.8	2.67	20.55***
	보통	833	5.5	22.8	55.5	16.2	2.82	
	잘사는편	463	5.6	11.7	51.4	31.3	3.08	
거주 지역	세마동	243	3.3	16.5	54.7	25.5	3.02	4.21***
	신장동	216	6.0	18.5	58.8	16.7	2.86	
	남촌동	91	6.6	20.9	52.7	19.8	2.86	
	초평동	142	3.5	15.5	54.2	26.8	3.04	
	중앙동	255	8.2	23.9	52.2	15.7	2.75	
대원동	339	7.4	18.6	54.3	19.8	2.86		
전체	1,415	5.8	19.0	54.2	21.0	2.90	-	

\*p&lt;.05. \*\*p&lt;.01. \*\*\*p&lt;.001

- 학교생활 만족도와 관련하여 ‘우리 학교는 우리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 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1.3%로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6.8%로 나타났음. 그리고 2020년 전국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존중한다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7.1%p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7.8%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 학교는 우리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 는 정도에 대한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2.87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2.87점)와 동일하게 나타났음.
- ‘우리 학교는 우리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 는 정도를 주요 변인별로 차이 검증한 결과, 학교급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2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 2.79점, 고등학교 2.59점의 순으로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이 3.0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수준 2.78점, 어려운편 2.66점으로 나타났음. 결과적으로 학교급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우리 학교는 우리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시사함. 그리고 거주지역별로는 세마동이 3.0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초평동 (2.92점), 신장동(2.85점), 대원동(2.83점), 남촌동(2.70점), 중앙동(2.69점) 순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표 3-45> 학교생활 만족도 - 우리 학교는 우리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1~4점)	차이 검증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3,841	1.0	24.8	60.0	14.2	2.87	-	
성별	남	653	7.8	19.1	51.1	21.9	2.87	.01
	여	721	5.5	22.3	51.2	20.9	2.88	
학교급	초	448	2.2	8.5	52.2	37.1	3.24	82.84***
	중 고	468 456	6.4 11.4	23.7 29.4	53.8 47.8	16.0 11.4	2.79 2.59	
경제 수준	어려운편	82	6.1	35.4	45.1	13.4	2.66	23.33***
	보통	833	7.7	22.7	53.9	15.7	2.78	
	잘사는편	462	5.2	14.7	47.4	32.7	3.08	
거주 지역	세마동	241	4.6	16.6	47.7	31.1	3.05	5.70***
	신장동	216	6.0	20.4	56.5	17.1	2.85	
	남촌동	91	7.7	34.1	38.5	19.8	2.70	
	초평동	142	4.2	21.8	51.4	22.5	2.92	
	중앙동 대원동	255 339	8.6 9.4	25.9 18.9	52.9 51.0	12.5 20.6	2.69 2.83	
전체	1,415	6.8	20.7	51.2	21.3	2.87	-	

\*p<.05. \*\*p<.01. \*\*\*p<.001

- 학교생활 만족도와 관련하여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0.3%로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7.2%로 나타났음. 그리고 2020년 전국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존중한다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4.6%p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6.3%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는 정도에 대한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2.83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2.95점)와 비교했을 때 0.12점 낮게 나타났음.
-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는 정도를 주요 변인별로 차이검정한 결과, 성별, 학교급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성별로는 남학생이 2.88점으로 여학생 2.79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1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 2.72점, 고등학교 2.66점의 순으로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이 3.0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수준 2.75점, 어려운편 2.62점으로 나타났음. 결과적으로 학교급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시사함. 그리고 거

주지역별로는 세마동이 3.0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초평동(2.87점), 대원동(2.83점), 신장동(2.77점), 남촌동(2.76점), 중앙동(2.60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6> 학교생활 만족도 -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1~4점)	차이 검증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3,841	0.9	18.4	64.9	15.7	2.95	-
성별	남	652	8.3	19.0	49.4	23.3	2.88	3.92*
	여	718	6.1	26.6	49.6	17.7	2.79	
학교급	초	445	3.1	14.4	50.3	32.1	3.11	42.15***
	중	466	7.3	26.4	53.6	12.7	2.72	
	고	457	11.2	28.0	44.4	16.4	2.66	
경제 수준	어려운편	82	7.3	34.1	47.6	11.0	2.62	16.16***
	보통	830	7.7	24.6	52.5	15.2	2.75	
	잘사는편	461	6.3	18.7	43.8	31.2	3.00	
거주 지역	세마동	240	4.6	16.7	50.0	28.7	3.03	6.99***
	신장동	216	7.4	26.4	48.1	18.1	2.77	
	남촌동	91	8.8	27.5	42.9	20.9	2.76	
	초평동	142	7.0	23.9	43.7	25.4	2.87	
	중앙동	256	10.5	28.9	50.4	10.2	2.60	
	대원동	336	7.1	22.3	50.9	19.6	2.83	
전체		1,415	7.2	23.1	49.3	20.3	2.83	-

\*p<.05. \*\*p<.01. \*\*\*p<.001

- 학교생활 만족도와 관련하여 ‘우리 학교는 교칙이 엄격하다’ 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12.7%로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3.6%로 나타났음. 그리고 2020년 전국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우리 학교는 교칙이 엄격하다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1%p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11.7%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 학교는 교칙이 엄격하다’ 는 정도에 대한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2.43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2.75점)와 비교했을 때 0.32점 낮게 나타났음.
- ‘우리 학교는 교칙이 엄격하다’ 는 정도를 주요 변인별로 차이검정한 결과, 학교급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2.7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 2.43점, 고등학교 2.13점의 순으로 나타났음. 결과적으로 학교급이 높을수록 우리 학교는 교칙이 엄격하다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시사함. 그리고 거주지역별로는 남촌동이 2.6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원동(2.56점), 중앙

동(2.51점), 세마동(2.38점), 초평동(2.35점), 신장동(2.33점) 순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성별과 경제수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표 3-47> 학교생활 만족도 - 우리 학교는 교칙이 엄격하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1~4점)	차이 검증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3,841	1.9	32.1	55.5	10.6	2.75	
성별	남	651	15.1	39.3	32.0	13.7	2.44	.32
	여	717	12.4	45.3	30.5	11.7	2.42	
학교급	초	442	24.2	44.6	24.9	6.3	2.13	53.03***
	중	467	9.9	49.0	29.8	11.3	2.43	
	고	457	7.2	34.4	38.1	20.4	2.72	
경제수준	어려운편	81	7.4	44.4	37.0	11.1	2.52	.46
	보통	830	12.5	43.5	33.0	11.0	2.42	
	잘사는편	460	16.7	40.4	27.0	15.9	2.42	
거주지역	세마동	239	13.8	42.3	36.4	7.5	2.38	3.39**
	신장동	214	12.6	51.9	25.7	9.8	2.33	
	남촌동	91	13.2	30.8	37.4	18.7	2.62	
	초평동	142	12.7	47.2	32.4	7.7	2.35	
	증양동	256	11.3	39.8	35.5	13.3	2.51	
	대원동	336	14.3	36.0	29.5	20.2	2.56	
전체		1,415	13.6	42.5	31.2	12.7	2.43	-

\*p<.05. \*\*p<.01. \*\*\*p<.001

- 학교생활 만족도와 관련하여 ‘선생님, 친구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이 만족스럽다’ 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34.3%로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5%로 나타났음. 그리고 2020년 전국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선생님, 친구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이 만족스럽다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4.8%p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3.1%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선생님, 친구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이 만족스럽다’ 는 정도에 대한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3.17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2.92점)와 비교했을 때 0.25점 낮게 나타났음.
- ‘선생님, 친구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이 만족스럽다’ 는 정도를 주요 변인별로 차이검정한 결과, 성별, 학교급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성별로는 남학생이 3.24점으로 여학생의 3.12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4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 3.16점, 초등학교 2.97점의 순으로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 3.35점, 보통

수준 3.09점, 어려운편 3.01점 순으로 나타났음. 결과적으로 학교급과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선생님, 친구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이 만족스럽다는 것을 시사함. 그리고 거주지역별로는 세마동이 3.3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초평동(3.28점), 신장동(3.22점), 대원동(3.11점), 남촌동(3.03점), 중앙동(3.00점) 순으로 나타났음.

**<표 3-48> 학교생활 만족도 - 선생님, 친구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이 만족스럽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1~4점)	차이 검증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3,841	0.4	16.6	73.5	9.5	2.92	-	
성별	남	653	3.4	8.4	49.0	39.2	3.24	9.36**
	여	719	3.5	11.3	55.2	30.0	3.12	
학교급	초	447	2.0	6.3	41.2	50.6	3.40	39.99***
	중	467	2.8	8.6	58.9	29.8	3.16	
	고	456	5.7	14.7	56.1	23.5	2.97	
경제 수준	어려운편	82	3.7	14.6	58.5	23.2	3.01	20.07***
	보통	831	3.7	11.6	56.3	28.4	3.09	
	잘사는편	462	3.0	6.1	43.9	47.0	3.35	
거주 지역	세마동	240	1.7	4.2	53.3	40.8	3.33	7.07***
	신장동	214	2.3	7.9	54.7	35.0	3.22	
	남촌동	90	5.6	14.4	51.1	28.9	3.03	
	초평동	142	2.8	7.7	47.9	41.5	3.28	
	중앙동	257	5.1	14.4	56.4	24.1	3.00	
대원동	339	4.7	12.4	49.9	33.0	3.11		
전체	1,415	3.5	9.9	57.2	34.3	3.17	-	

\*p<.05. \*\*p<.01. \*\*\*p<.001

## 7. 학업 성취도

- 현재 학업 성취도와 관련하여 매우 우수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6%로 나타났으며 매우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8%로 나타났음. 그리고 2020년 전국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현재 학업 성취도에 대해 매우 우수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1%p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못한다는 비율은 4.3%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재 학업 성취도에 대한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3.17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3.40점)와 비교했을 때 0.23점 낮게 나타났음.
- 현재 학업 성취도를 주요 변인별로 차이검증한 결과, 성별, 학교급별, 경제수준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성별로는 남학생이 3.22점으로 여학생의 3.12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5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 3.20점, 초등학교 2.81점의 순으로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 3.48점, 보통수준 3.04점, 어려운편 2.70점 순으로 나타났음. 결과적으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경제수준은 높은수록 학업 성취도에 대해 우수하다고 인지하는 것을 시사함. 그리고 거주지역별로는 세마동이 3.3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원동(3.14점), 남촌동(3.13점), 신장동과 중앙동(3.11점), 초평동(3.05점) 순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거주지역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lt;표 3-49&gt; 현재 학업 성취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못한다	못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우수한 편이다	매우 우수하다	평균 (1~5점)	차이 검증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3,841	0.5	6.2	49.6	40.2	3.5	3.40	-	
성별	남	653	5.7	14.7	42.6	25.7	11.3	3.22	3.81*
	여	718	4.0	16.4	49.0	24.2	6.3	3.12	
학교급	초	448	1.6	6.0	45.1	33.9	13.4	3.52	67.63***
	중	464	4.7	17.7	39.9	28.4	9.3	3.20	
	고	456	7.9	22.6	53.5	12.5	3.5	2.81	
경제수준	어려운편	81	9.9	29.6	43.2	14.8	2.5	2.70	44.73***
	보통	829	5.9	17.0	49.8	21.6	5.7	3.04	
	잘사는편	463	1.9	10.6	39.7	32.6	15.1	3.48	
거주지역	세마동	242	5.0	11.6	40.9	33.5	9.1	3.30	1.72
	신장동	216	6.5	16.2	47.7	19.4	10.2	3.11	
	남촌동	90	3.3	20.0	46.7	20.0	10.0	3.13	
	초평동	140	4.3	17.1	53.6	19.3	5.7	3.05	
	중앙동	256	4.7	13.3	55.5	19.5	7.0	3.11	
대원동	337	5.3	19.6	39.8	26.7	8.6	3.14		
전체	1,415	4.8	15.7	45.9	25.0	8.6	3.17	-	

\*p&lt;.05. \*\*p&lt;.01. \*\*\*p&lt;.001

## 8. 사교육 경험 및 혼자 공부하는 시간

- 사교육 경험 및 혼자 공부하는 시간과 관련하여 사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4.5%로 나타났다. 그리고 2020년 전국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사교육 경험은 16.7%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사교육으로 학습하는 일주일 총 시간은 9시간 13분으로 나타났으며, 혼자 공부하는 시간은 1시간 56분으로 나타났다. 이를 2020년 전국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사교육으로 학습하는 일주일 총 시간은 5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혼자 공부하는 시간은 1일 평균 10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사교육 경험을 주요 변인별로 차이검정한 결과, 여학생 54.7%, 남학생 45.3%로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38.8%, 고등학교 30.8%, 초등학교 30.4%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별로는 보통수준 59.6%, 잘사는편 35.9%, 어려운편 4.6%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대원동이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세마동 21.9%, 중앙동 17.5%, 신장동 15.9%, 초평동 10.7%, 남촌동 5.5% 순으로 나타났다.
- 사교육으로 학습하는 일주일 총 시간을 주요 변인별로 차이검정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습하는 시간이 16분 더 많았으며, 학교급과 경제수준별로는 학교급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으로 학습하는 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대원동이 사교육으로 학습하는 시간이 가장 높았으며, 세마동과 중앙동, 남촌동, 초평동, 신장동 순으로 나타났다.
-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주요 변인별로 차이검정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8분 더 많았으며, 학교급과 경제수준별로는 학교급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대원동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가장 높았음, 신장동, 초평동, 중앙동, 남촌동, 세마동 순으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3-50&gt; 사교육 경험 및 혼자 공부하는 시간

(단위: 명, %, 시간)

구분	사례수	사교육 경험		혼자 공부하는 시간(1일 평균)	
		있음	일주일 총시간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3,841	77.8	9:07	1:46
성별	남	582	45.3	9:30	1:50
	여	656	54.7	9:46	1:58
학교급	초	376	30.4	8:07	1:45
	중	440	38.8	9:05	1:47
	고	419	30.8	9:32	1:51
경제 수준	어려운편	75	4.6	8:41	1:50
	보통	746	59.6	9:11	1:55
	잘사는편	419	35.9	9:35	1:57
거주 지역	세마동	223	21.9	9:15	1:45
	신장동	198	15.9	9:09	1:57
	남춘동	87	5.5	9:11	1:46
	초평동	130	10.7	9:10	1:55
	중앙동	207	17.5	9:15	1:54
	대원동	319	28.4	9:21	1:58
전체		1,247	75.8	9:13	1:56

## 9. 방과 후 어른 없이 있는 시간과 불안 정도

- 방과 후 어른 없이 있는 시간에 대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3.6%로 나타났으며, 거의 없다는 61.8%로 나타났음. 그리고 2020년 전국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방과 후 어른 없이 있는 시간에 대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3%p 높게 나타났으며, 거의 없다는 비율은 0.6%p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방과 후 어른 없이 있는 시간을 주요 변인별로 차이검증한 결과,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이 13.9%, 여학생이 13.5%로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6.6%, 중학교 13.6%, 고등학교 10.9%로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어려운편이 25.3%, 보통수준 13.9%, 잘사는편 10.9% 순으로 나타났음. 거주지역별로는 대원동이 1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신장동 16.2%, 중앙동 12.3%, 초평동 11.4%, 세마동 9.2% 순으로 나타났음.

&lt;표 3-51&gt; 방과 후 어른 없이 있는 시간(일주일 평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거의 없다	1~2일 정도	3~4일 정도	거의 매일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3,841	45.9	31.4	13.0	9.7	
성별	남	606	62.4	13.2	10.6	13.9
	여	673	61.1	13.7	11.7	13.5
학교급	초	403	57.8	16.6	8.9	16.6
	중	440	63.9	12.3	10.2	13.6
	고	433	63.5	11.3	14.3	10.9
경제수준	어려운편	75	53.3	8.0	13.3	25.3
	보통	775	61.2	13.0	11.9	13.9
	잘사는편	431	64.5	14.8	9.7	10.9
거주지역	세마동	228	64.9	20.6	5.3	9.2
	신장동	204	59.3	11.8	12.7	16.2
	남촌동	81	65.4	13.6	8.6	12.3
	초평동	132	65.9	15.2	7.6	11.4
	중앙동	235	58.3	9.8	19.6	12.3
	대원동	317	62.5	10.4	10.1	17.0
전체	1,415	61.8	13.4	11.2	13.6	

- 방과 후 어른 없이 있을 때 불안 정도와 관련하여 매우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5%로 나타났으며 전혀 불안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75.1%로 나타났음. 그리고 2020년 전국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방과 후 어른 없이 있을 때 불안 정도에 대해 매우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1%p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불안하지 않다는 비율은 38.5%p 높은 것으로 나

타났음.

- 방과 후 어른 없이 있을 때 불안 정도에 대한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1.36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1.76점)와 비교했을 때 0.40점 낮게 나타났음.
- 방과 후 어른 없이 있을 때 불안 정도를 주요 변인별로 차이검정한 결과, 학교 급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1.5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 1.35점, 초등학교 1.19점의 순으로 나타났음. 결과적으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방과 후 어른 없이 있을 때 불안 정도가 높다는 것을 시사함. 그리고 거주지역별로는 초평동이 1.5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세마동(1.50점), 남촌동(1.43점), 중앙동(1.30점), 대원동(1.28점), 신장동(1.21점) 순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성별과 경제수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표 3-52> 방과 후 어른 없이 있을 때 불안 정도

(단위: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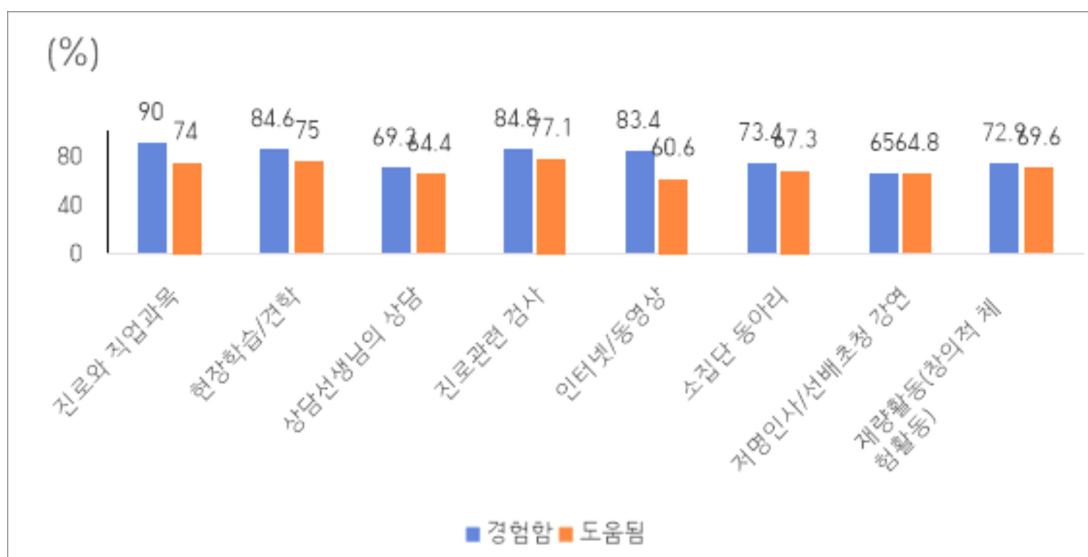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전혀 불안하지 않다	별로 불안하지 않다	약간 불안하다	매우 불안하다	평균 (1~4점)	차이 검증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077	36.6	50.8	12.2	0.4	1.76	-
성별	남	268	78.4	12.3	7.5	1.9	1.33	.83
	여	318	72.6	17.6	8.8	0.9	1.38	
학교급	초	215	65.6	20.9	11.2	2.3	1.50	9.54***
	중	205	76.1	15.1	6.8	2.0	1.35	
	고	162	86.4	8.0	5.6	0.0	1.19	
경제 수준	어려운편	45	66.7	17.8	15.6	0.0	1.49	1.10
	보통	350	76.0	14.9	7.7	1.4	1.35	
	잘사는편	189	76.7	15.3	6.9	1.1	1.32	
거주 지역	세마동	94	67.0	18.1	12.8	2.1	1.50	3.27**
	신장동	103	83.5	11.7	4.9	0.0	1.21	
	남촌동	37	70.3	16.2	13.5	0.0	1.43	
	초평동	56	66.1	16.1	14.3	3.6	1.55	
	중앙동	116	76.7	17.2	5.2	0.9	1.30	
대원동	137	82.5	8.8	7.3	1.5	1.28		
전체		1,415	75.1	15.2	8.2	1.5	1.36	-

\*p<.05. \*\*p<.01. \*\*\*p<.001

## 제 5 절 진로 및 직업탐색

### 1. 진로교육경험

- 오산시 청소년들의 진로교육경험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은 진로와 직업과목(90.0%), 진로관련 검사(84.8%), 현장학습 또는 견학(84.6%), 인터넷 또는 동영상(83.4%), 소집단 동아리(73.4%), 재량활동(창의적 체험활동)(72.9%), 상담선생님의 상담(69.3%), 저명인사 및 선배초청 강연(65.0%)의 순으로 나타남.
- 실제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은 진로관련 검사가 77.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현장학습 및 견학(75%), 진로와 직업과목(74.0%), 재량활동(창의적 체험활동)(69.6%), 소집단 동아리(67.3%), 저명인사 및 선배초청 강연(64.8%), 상담선생님 상담(64.4%), 인터넷 또는 동영상(60.6%)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오산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진로교육 중 1순위부터 3순위는 진로와 직업과목, 진로관련 검사, 현장학습 또는 견학이며, 이러한 진로교육경험들은 모두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의 1순위부터 3순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오산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진로와 직업과목, 진로관련 검사, 현장학습 또는 견학은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함. 반면 인터넷과 동영상은 네 번째로 많이 경험하는 진로교육이지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 오산시 청소년들의 진로교육 경험 및 도움정도

&lt;표 3-53&gt; 진로교육경험 - '진로직업' 과목 수업을 통한 진로교육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경험해 본 적 없다	경험 해본적 있다	도움 정도					평균 (1~4점)	차이 검증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5,628	26.3	73.7	5.0	32.8	58.5	3.7	2.61	-	
성별	남	661	12.4	87.6	8.1	18.1	48.4	25.4	2.91	.49
	여	718	7.9	92.1	7.3	18.0	53.6	21.1	2.89	
학교급	초	460	17.2	82.8	2.1	15.2	52.0	30.7	3.11	45.63**
	중	469	7.0	93.0	4.4	16.5	54.6	24.5	2.99	
	고	446	5.4	94.6	16.1	22.7	46.7	14.5	2.59	
경제 수준	어려운편	80	12.5	87.5	11.4	25.7	45.7	17.1	2.69	27.32**
	보통	833	10.1	89.9	9.6	19.6	53.8	17.0	2.78	
	잘사는편	468	9.2	90.8	3.5	14.4	47.3	34.8	3.13	
거주 지역	세마동	244	7.8	92.2	5.3	15.1	56.4	23.1	2.97	8.02***
	신장동	213	9.9	90.1	3.6	23.4	48.4	24.5	2.94	
	남촌동	92	10.9	89.1	12.2	17.1	54.9	15.9	2.74	
	초평동	143	9.1	90.9	4.6	15.4	55.4	24.6	3.00	
	중앙동	259	11.6	88.7	20.5	19.2	41.5	18.8	2.59	
	대원동	339	10.0	90.0	3.9	20.0	51.8	24.3	2.96	
전체	1,389	10.0	90.0	7.8	18.4	51.0	23.0	2.89	-	

\*p&lt;.05. \*\*p&lt;.01. \*\*\*p&lt;.001

- 진로교육경험과 관련하여 ‘진로와 직업 과목 수강’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0%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은 74.0%로 나타났음. 그리고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진로교육경험 비율은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73.7%)에 비해 16.3%p 높게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도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62.2%)에 비해 11.8%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진로와 직업 과목 수강’ 경험의 도움정도에 대한 평균점수 역시 4점 만점에 2.89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2.61점)와 비교했을 때 0.28점 높게 나타났음.
- ‘진로와 직업 과목 수강’의 도움정도를 주요 변인별로 차이검정한 결과, 학교급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1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 2.99점, 고등학교 2.59점의 순으로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이 3.1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수준 2.78점, 어려운편 2.69점으로 나타났음. 결과적으로 학교급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진로와 직업 과목 수강’의 도움정도가 낮다는 점을 시사함. 그리고 거주지역별로는 초평동이 3.0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세마동(2.97점), 대

원동(2.96점), 신장동(2.94점), 남촌동(2.74점), 중앙동(2.59점) 순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표 3-54> 진로교육경험 - 현장학습이나 견학을 통한 진로 교육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경험해본 적 없다	경험해본 적 있다	도움 정도					평균(1~4점)	차이 검증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5,628	33.3	66.7	7.1	35.6	49.0	8.4	2.59	-	
성별	남	660	18.0	82.0	7.8	16.6	44.2	31.4	2.99	.010
	여	725	13.1	86.9	6.8	18.4	43.5	31.3	2.99	
학교급	초	460	16.7	83.3	3.9	10.7	42.8	42.6	3.24	51.02**
	중고	468	12.8	87.2	3.9	17.6	44.6	33.8	3.18	
경제수준	어려운편	81	17.3	82.7	9.0	26.9	41.8	22.4	2.73	31.80**
	보통	835	16.4	83.6	9.3	19.6	47.4	23.6	2.85	
	잘사는편	471	13.4	86.6	3.7	12.3	37.7	46.3	3.27	
거주지역	세마동	244	11.5	88.5	6.0	15.3	43.1	35.6	3.08	7.61***
	신장동	217	15.7	84.3	4.9	19.1	43.7	32.2	3.03	
	남촌동	92	16.3	83.7	9.1	23.4	42.9	24.7	2.83	
	초평동	143	14.7	85.3	5.7	13.9	39.3	41.0	3.16	
	중앙동	259	9.7	90.3	15.4	22.6	40.6	21.4	2.68	
대원동	341	21.7	78.3	5.2	18.0	45.7	31.1	3.03		
전체	1,395	15.4	84.6	7.3	17.7	43.7	31.3	2.99	-	

\*p<.05. \*\*p<.01. \*\*\*p<.001

- 진로교육경험과 관련하여 ‘현장학습이나 견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4.6%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은 75.0%로 나타났음. 그리고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현장학습이나 견학’ 경험의 비율은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66.7%)에 비해서 17.9%p 높게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도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57.4%)에 비해 17.6%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장학습이나 견학’의 도움정도에 대한 평균점수 역시 4점 만점에 2.99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2.59점)와 비교했을 때 0.4점 높게 나타났음.
- ‘현장학습이나 견학’의 도움정도를 주요 변인별로 차이검정한 결과, 학교급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2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 3.18점, 고등학교 2.64점의 순으로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 편이 3.2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수준 2.85점, 어려운편 2.73점

으로 나타났음. 이는 학교급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현장학습이나 견학’의 도움정도에 대해 낮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함. 그리고 거주지역별로는 초평동이 3.1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세마동(3.08점), 대원동(3.03점), 신장동(3.03점), 남촌동(2.83점), 중앙동(2.68점) 순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표 3-55> 진로교육경험 - 상담센터의 상담 중심 진로 교육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경험해본 적 없다	경험해본 적 있다	도움 정도				평균 (1~4점)	차이 검증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5,628	24.1	75.9	7.3	33.7	51.2	7.9	2.60	-	
성별	남	658	31.9	68.1	9.6	25.4	46.4	18.5	2.74	.299
	여	723	29.9	70.1	10.3	25.4	46.2	18.1	2.72	
학교급	초	458	38.4	61.6	4.3	19.1	48.2	28.4	3.01	34.55***
	중	468	29.1	70.9	6.3	27.1	48.2	18.4	2.79	
	고	451	24.8	75.2	18.3	29.2	41.9	10.6	2.45	
경제수준	어려운편	80	27.5	72.5	10.3	36.2	41.4	12.1	2.55	19.77**
	보통	834	32.3	67.7	12.0	27.3	48.7	12.0	2.61	
	잘사는편	469	28.6	71.4	6.6	20.6	42.4	30.4	2.97	
거주지역	세마동	243	32.9	67.1	7.4	22.1	45.4	25.2	2.88	5.37***
	신장동	217	30.4	69.6	7.3	24.5	45.7	22.5	2.83	
	남촌동	92	19.6	80.4	12.2	20.3	50.0	17.6	2.73	
	초평동	142	37.3	62.7	5.6	27.0	50.6	16.9	2.79	
	중앙동	258	21.7	78.3	21.3	24.8	40.6	13.4	2.46	
	대원동	340	34.7	65.3	6.8	31.1	47.3	14.9	2.70	
전체	1,391	30.7	69.3	10.1	25.6	45.9	18.5	2.73	-	

\*p<.05. \*\*p<.01. \*\*\*p<.001

- 진로교육경험과 관련하여 ‘상담선생님의 상담중심 진로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9.3%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은 75.9%로 나타났음. 그리고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상담선생님의 상담중심 진로교육’ 경험의 비율은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75.9%)에 비해서 6.6%p 낮게 나타났음. 반면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은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59.1%)에 비해 5.3%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상담선생님의 상담중심 진로교육’의 도움정도에 대한 평균점수 역시 4점 만점에 2.73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2.60점)와 비교했을 때 0.13점 높게 나타났음.
- ‘상담선생님의 상담중심 진로교육’의 도움정도를 주요 변인별로 차이검증한 결과, 학교급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0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 2.79점, 고등학교 2.45점의 순으로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이 2.9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수준 2.61점, 어려운편 2.55점으로 나타났음. 이는 학교급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상담선생님의 상담중심 진로교육’의 도움정도에 대해 낮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함. 그리고 거주지역별로는 세마동이 2.8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신장동(2.83점), 초평동(2.79점), 남촌동(2.73점), 대원동(2.70점), 중앙동(2.68점) 순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표 3-56> 진로교육경험 - 진로관련 검사를 통한 진로 교육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경험해본 적 없다	경험해본 적 있다	도움 정도					평균 (1~4점)	차이 검증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5,628	24.3	75.7	7.5	33.1	51.8	7.5	2.58	-	
성별	남	659	17.9	82.1	9.2	20.7	48.1	22.0	2.83	- .69
	여	724	12.8	87.2	9.4	18.4	48.8	23.5	2.86	
학교급	초	460	29.3	70.7	4.6	14.8	48.3	32.3	3.08	37.12***
	중	467	11.1	88.9	6.0	17.6	52.8	23.6	2.94	
	고	452	4.9	95.1	16.3	24.9	44.2	14.7	2.57	
경제 수준	어려운편	81	13.6	86.4	14.3	24.3	42.9	18.6	2.66	19.02***
	보통	835	15.4	84.6	10.5	21.5	51.1	16.9	2.74	
	잘사는편	469	14.9	85.1	6.5	15.0	44.1	34.3	3.06	
거주 지역	세마동	243	15.2	84.8	10.2	13.6	51.9	24.3	2.90	7.51***
	신장동	216	15.3	84.7	6.0	20.8	44.3	29.0	2.96	
	남촌동	92	12.0	88.0	12.3	21.0	42.0	24.7	2.79	
	초평동	142	16.9	83.1	2.5	17.8	53.4	26.3	3.03	
	중앙동	260	15.0	85.0	19.5	22.6	43.0	14.9	2.53	
	대원동	341	13.5	86.5	7.1	21.7	50.5	20.7	2.85	
전체	1,393	15.2	84.8	9.4	19.6	48.3	22.8	2.84	-	

\*p<.05. \*\*p<.01. \*\*\*p<.001

- 진로교육경험과 관련하여 ‘진로관련 검사를 통한 진로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4.8%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은 71.1%로 나타났음. 그리고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진로관련 검사를 통한 진로교육’ 경험의 비율은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75.7%)에 비해서 9.1%p 높게 나타났음. 그리고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도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59.3%)에 비해 11.8%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진로관련 검사를 통한 진로교육’의 도움정도에 대한 평균점수 역시 4점 만점에 2.84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2.58점)와 비교했을 때 0.28점 높게 나타났음.



- ‘진로관련 검사를 통한 진로교육’의 도움정도를 주요 변인별로 차이 검증한 결과, 학교급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0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 2.94점, 고등학교 2.57점의 순으로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이 3.0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수준 2.74점, 어려운편 2.66점으로 나타났음. 이는 학교급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어려울수록 ‘진로관련 검사를 통한 진로교육’의 도움정도에 대해 낮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함. 그리고 거주지역별로는 초평동이 3.0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신장동(2.96점), 세마동(2.90점), 대원동(2.85점), 남촌동(2.79점), 중앙동(2.53점) 순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표 3-57> 진로교육경험 - 인터넷 또는 동영상을 통한 진로 교육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경험해본 적 없다	경험해본 적 있다	도움 정도					차이 검증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평균 (1~4점)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5,628	31.5	68.5	9.8	39.1	44.4	6.7	2.48	-	
성별	남	657	19.2	80.8	13.0	24.7	40.5	21.8	2.71	1.040
	여	724	14.1	85.9	12.5	28.5	40.0	19.0	2.65	
학교급	초	458	25.1	74.9	7.0	17.2	43.4	32.4	3.01	56.57***
	중	467	13.3	86.7	9.4	26.4	43.5	20.7	2.76	
	고	452	11.1	88.9	20.9	35.1	34.6	9.5	2.33	
경제 수준	어려운편	81	14.8	85.2	14.5	33.3	37.7	14.5	2.52	12.30***
	보통	834	17.6	82.4	13.1	29.8	41.6	15.4	2.59	
	잘사는편	468	14.7	85.3	11.5	19.8	38.8	29.8	2.87	
거주 지역	세마동	242	22.7	77.3	11.2	20.9	42.2	25.7	2.82	2.87***
	신장동	217	11.1	88.9	11.4	30.1	35.8	22.8	2.70	
	남촌동	92	15.2	84.8	17.9	26.9	38.5	16.7	2.54	
	초평동	142	14.1	85.9	9.8	26.2	41.0	23.0	2.77	
	중앙동	260	18.5	81.5	16.5	28.8	41.0	13.7	2.52	
대원동	339	15.3	84.7	13.2	28.9	40.1	17.8	2.62		
전체	1,391	16.6	83.4	12.7	26.7	40.3	20.3	2.68	-	

\*p<.05. \*\*p<.01. \*\*\*p<.001

- 진로교육경험과 관련하여 ‘인터넷 또는 동영상을 통한 진로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3.4%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은 60.6%로 나타났음. 그리고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인터넷 또는 동영상을 통한 진로교육’ 경험의 비율은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68.5%)에 비해서 14.9%p 높게 나타났음. 그리고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도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51.1%)에 비해 9.5%p 높은 것으로 나

타났음.

- ‘인터넷 또는 동영상을 통한 진로교육’의 도움정도에 대한 평균점수 역시 4점 만점에 2.68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2.48점)와 비교했을 때 0.2점 높게 나타났음.
- ‘인터넷 또는 동영상을 통한 진로교육’의 도움정도를 주요 변인별로 차이 검증한 결과, 학교급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0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 2.76점, 고등학교 2.33점의 순으로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이 2.8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수준 2.59점, 어려운편 2.52점으로 나타났음. 이는 학교급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어려울수록 ‘인터넷 또는 동영상을 통한 진로교육’의 도움정도에 대해 낮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함. 그리고 거주지역별로는 세마동이 2.8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초평동(2.77점), 신장동(2.70점), 대원동(2.62점), 남촌동(2.54점), 중앙동(2.52점) 순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표 3-58> 진로교육경험 - 소집단 혹은 동아리 활동을 통한 진로 교육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경험해본 적 없다	경험해본 적 있다	도움 정도					평균 (1~4점)	차이 검증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5,628	41.1	58.9	10.2	36.8	46.7	6.3	2.49	-	
성별	남	656	29.9	70.1	9.3	25.2	41.7	23.7	2.80	-0.72
	여	721	23.6	76.4	8.9	22.0	45.6	23.6	2.84	
학교급	초	457	33.5	66.5	5.3	15.8	44.4	34.5	3.08	24.92***
	중	466	28.1	71.9	9.0	23.9	43.3	23.9	2.82	
	고	450	17.6	82.4	12.4	29.4	43.7	14.6	2.60	
경제 수준	어려운편	80	20.0	80.0	12.5	34.4	37.5	15.6	2.56	14.21***
	보통	833	30.0	70.0	9.9	24.9	47.3	17.8	2.73	
	잘사는편	466	21.7	78.3	6.8	19.7	38.9	34.5	3.01	
거주 지역	세마동	243	28.4	71.6	9.8	19.0	42.5	28.7	2.90	3.06*
	신장동	215	27.0	73.0	7.6	23.6	42.7	26.1	2.87	
	남촌동	92	18.5	81.5	14.7	21.3	46.7	17.3	2.67	
	초평동	141	17.1	80.9	4.4	21.9	48.2	25.4	2.95	
	중앙동	260	26.2	73.8	13.0	27.1	43.8	16.1	2.63	
	대원동	338	28.1	71.9	9.1	28.0	40.7	22.2	2.76	
전체	1,387	26.6	73.4	9.0	23.7	43.6	23.7	2.82	-	

\*p<.05. \*\*p<.01. \*\*\*p<.001

- 진로교육경험과 관련하여 ‘소집단 혹은 동아리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3.4%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은 67.3%로 나타났음. 그리고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소집단 혹은 동아리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경험의 비율은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58.9%)에 비해서 14.5%p 높게 나타났음. 그리고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도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53.0%)에 비해 14.3%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소집단 혹은 동아리활동을 통한 진로교육’의 도움정도에 대한 평균점수 역시 4점 만점에 2.82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2.49점)와 비교했을 때 0.34점 높게 나타났음.
- ‘소집단 혹은 동아리활동을 통한 진로교육’의 도움정도를 주요 변인별로 차이 검증한 결과, 학교급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0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 2.82점, 고등학교 2.60점의 순으로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이 3.0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수준 2.73점, 어려운편 2.56점으로 나타났음. 이는 학교급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어려울수록 ‘소집단 혹은 동아리활동을 통한 진로교육’의 도움정도에 대해 낮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함. 그리고 거주지역별로는 초평동이 2.9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세마동(2.90점), 신장동(2.87점), 대원동(2.76점), 남촌동(2.67점), 중앙동(2.63점) 순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lt;표 3-59&gt; 진로교육경험 - 저명인사나 선배의 초청 강연을 통한 진로 교육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경험해 본 적 없다	경험 해본적 있다	도움 정도					평균 (1~4점)	차이 검증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5,628	38.5	61.5	8.4	34.1	50.5	7.0	2.56	-	
성별	남	659	36.4	63.6	10.3	28.4	37.9	23.4	2.74	-.91
	여	724	33.7	66.3	9.4	22.9	46.0	21.7	2.80	
학교급	초	459	49.2	50.8	8.2	23.2	36.9	31.8	2.92	6.26*
	중	467	34.7	65.3	8.5	25.9	41.6	23.9	2.81	
	고	453	20.8	79.2	11.7	26.5	46.0	15.9	2.66	
경제 수준	어려운편	80	23.8	76.3	9.8	36.1	36.1	18.0	2.62	12.45**
	보통	835	37.4	62.6	11.1	27.0	45.5	16.4	2.67	
	잘사는편	470	32.3	67.7	7.5	20.8	38.1	33.6	2.98	
거주 지역	세마동	243	35.8	64.2	10.3	20.5	46.8	22.4	2.81	2.84*
	신장동	217	32.7	67.3	11.0	23.3	39.7	26.0	2.81	
	남촌동	92	23.9	76.1	8.6	22.9	42.9	25.7	2.86	
	초평동	142	32.4	67.6	7.3	18.8	45.8	28.1	2.95	
	중앙동	259	31.7	68.3	14.1	30.5	39.5	15.8	2.57	
	대원동	341	38.4	61.6	8.1	30.5	42.9	18.6	2.72	
전체	1,393	35.0	65.0	9.7	25.5	42.2	22.6	2.78	-	

\*p&lt;.05. \*\*p&lt;.01. \*\*\*p&lt;.001

- 진로교육경험과 관련하여 ‘저명인사나 선배의 초청 강연을 통한 진로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5.0%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은 64.8%로 나타났음. 그리고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저명인사나 선배의 초청 강연을 통한 진로교육’ 경험의 비율은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61.5%)에 비해서 3.5%p 높게 나타났음. 그리고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도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57.5%)에 비해 7.5%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저명인사나 선배의 초청 강연을 통한 진로교육’의 도움정도에 대한 평균점수 역시 4점 만점에 2.78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2.49점)와 비교했을 때 0.22점 높게 나타났음.
- ‘저명인사나 선배의 초청 강연을 통한 진로교육’의 도움정도를 주요 변인별로 차이 검증한 결과, 학교급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2.9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 2.81점, 고등학교 2.66점의 순으로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이 2.9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수준 2.67점, 어려운편 2.62점으로 나타났음. 이는 학교급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어려울수록 ‘저명인사나 선배의 초청 강연을 통한 진로교육’의 도움정도에 대해 낮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함. 그리고 거주지역별로는 초평동이

2.9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남촌동(2.86점), 세마동(2.81점), 신장동(2.81점), 대원동(2.72점), 중앙동(2.57점) 순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표 3-60> 진로교육경험 - 재량 활동(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한 진로 교육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경험해본 적 없다	경험해본 적 있다	도움 정도				평균 (1~4점)	차이 검증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5,628	40.9	59.1	8.1	40.4	47.2	4.3	2.48	-	
성별	남	658	29.9	70.1	9.1	22.1	44.9	23.9	2.84	-0.46
	여	724	24.4	75.6	8.4	21.0	46.6	23.9	2.86	
학교급	초	458	32.5	67.5	4.9	16.2	43.7	35.3	3.09	23.55***
	중	467	28.1	71.9	6.5	22.9	49.4	21.1	2.85	
	고	453	20.3	79.7	13.9	25.5	44.0	16.6	2.63	
경제수준	어려운편	80	18.8	81.3	10.8	24.6	47.7	16.9	2.71	19.73***
	보통	834	29.5	70.5	10.0	24.1	49.1	16.7	2.72	
	잘사는편	470	23.6	76.4	6.1	16.7	40.1	37.0	3.08	
거주지역	세마동	243	25.9	74.1	5.6	15.6	52.2	26.7	3.00	3.65**
	신장동	217	28.1	71.9	7.7	21.2	48.1	23.1	2.87	
	남촌동	92	26.1	73.9	11.8	19.1	51.5	17.6	2.75	
	초평동	141	18.4	81.6	7.0	17.4	47.0	28.7	2.97	
	중앙동	260	28.5	71.5	14.5	25.8	39.8	19.9	2.65	
	대원동	340	28.2	71.8	8.2	25.8	42.2	23.8	2.82	
전체	1,392	27.1	72.9	8.7	21.7	45.8	23.8	2.6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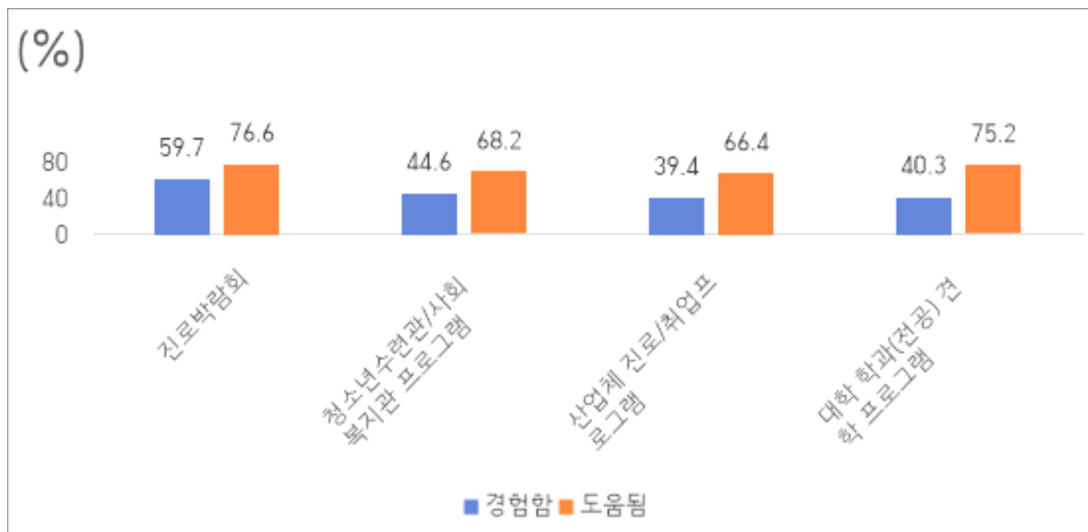
\*p<.05. \*\*p<.01. \*\*\*p<.001

- 진로교육경험과 관련하여 ‘재량활동(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2.9%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은 69.6%로 나타났음. 그리고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재량활동(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경험의 비율은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59.1%)에 비해서 13.8%p 높게 나타났음. 그리고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도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51.5%)에 비해 18.1%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재량활동(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진로교육’의 도움정도에 대한 평균점수 역시 4점 만점에 2.65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2.48점)와 비교했을 때 0.17점 높게 나타났음.
- ‘재량활동(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진로교육’의 도움정도를 주요 변인별로 차이 검증한 결과, 학교급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0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 2.85점, 고등학교 2.63점의 순으로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이 3.0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수준 2.72점, 어려운편 2.71점으로 나타났음. 이는 학교급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어려울수록 ‘재량활동(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진로교육’의 도움정도에 대해 낮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함. 그리고 거주지역별로는 세마동이 3.0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초평동(2.97점), 신장동(2.87점), 대원동(2.82점), 남촌동(2.75점), 중앙동(2.65점) 순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2. 진로체험경험

- 오산시 청소년들의 진로체험 경험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은 진로박람회(59.7%), 청소년수련관/사회복지관 프로그램(44.6%), 대학 학과(전공) 견학 프로그램(40.3%), 산업체 진로/취업프로그램(39.4%)의 순으로 진로체험활동을 경험하고 있었음.
- 진로체험경험이 실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진로박람회가 76.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 학과(전공) 견학 프로그램(75.2%), 청소년수련관/사회복지관 프로그램(68.2%), 산업체 진로/취업프로그램(66.4%)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2> 오산시 청소년들의 진로체험 경험 및 도움 정도

**<표 3-61> 진로체험경험 - 진로 박람회(잡월드, 키자니아 포함)에 간 경험**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경험해 본 적 없다	경험 해본적 있다	도움 정도					평균 (1~4점)	차이 검증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5,628	56.1	43.9	9.6	35.5	52.2	2.7	2.48	-	
성별	남	664	43.5	56.5	7.5	20.5	42.1	29.9	2.94	-3.20**
	여	727	37.7	62.3	2.4	17.2	45.3	35.1	3.13	
학교급	초	457	56.9	43.1	2.0	10.7	35.0	52.3	3.38	30.35***
	중	473	32.6	67.4	2.8	18.5	47.3	31.3	3.07	
	고	456	32.5	67.5	8.4	24.7	45.1	21.8	2.80	
경제 수준	어려운편	81	30.9	69.1	7.1	25.0	50.0	17.9	2.79	15.83***
	보통	837	43.7	56.3	5.1	21.4	46.8	26.7	2.95	
	잘사는편	473	36.4	63.6	3.3	13.0	38.5	45.2	3.26	
거주 지역	세마동	242	31.0	69.0	5.4	18.0	43.1	33.5	3.05	2.95*
	신장동	218	43.6	56.4	2.4	21.1	40.7	35.8	3.10	
	남촌동	91	35.2	64.8	3.4	25.4	44.1	27.1	2.95	
	초평동	146	33.6	66.4	3.1	12.4	43.3	41.2	3.23	
	중앙동	259	45.2	54.8	7.7	21.1	50.7	20.4	2.84	
대원동	344	41.9	58.1	5.0	18.0	42.0	35.0	3.07		
전체	1,401	40.3	59.7	4.7	18.8	43.9	32.7	3.05	-	

\*p&lt;.05. \*\*p&lt;.01. \*\*\*p&lt;.001

- 진로교육경험과 관련하여 ‘진로박람회에 간 경험’ 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9.7%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은 76.6%로 나타났음. 그리고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진로박람회에 간 경험’ 의 비율은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43.9%)에 비해서 15.8%p 높게 나타났음. 그리고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도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54.9%)에 비해 21.7%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진로박람회에 간 경험’ 의 도움정도에 대한 평균점수 역시 4점 만점에 3.05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2.48점)와 비교했을 때 0.57점 높게 나타났음.
- ‘진로박람회에 간 경험’ 의 도움정도를 주요 변인별로 차이 검증한 결과, 학교급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3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 3.07점, 고등학교 2.80점의 순으로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이 3.2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수준 2.95점, 어려운편 2.79점으로 나타났음. 이는 학교급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어려울수록 ‘진로박람회에 간 경험’ 의 도움정도에 대해 낮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함. 그



리고 거주지역별로는 초평동이 3.2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신장동(3.10점), 대원동(3.07점), 세마동(3.05점), 남촌동(2.95점), 중앙동(2.85점)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표 3-62> 진로체험경험 -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경험해본 적 없다	경험해본 적 있다	도움 정도				평균 (1~4점)	차이 검증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5,628	54.0	46.0	10.0	37.1	48.7	4.2	2.47	-	
성별	남	661	55.4	44.6	8.8	24.1	44.1	23.1	2.81	-1.19
	여	727	55.8	44.2	5.9	24.3	43.9	25.9	2.90	
학교급	초	455	55.6	44.4	5.0	17.3	37.1	40.6	3.13	21.18***
	중	472	56.1	43.9	5.8	23.2	51.7	19.3	2.85	
	고	456	54.6	45.4	11.1	32.9	42.0	14.0	2.59	
경제수준	어려운편	81	43.2	56.8	10.9	34.8	43.5	10.9	2.54	11.95***
	보통	838	58.1	41.9	6.8	28.2	46.2	18.8	2.77	
	잘사는편	471	53.3	46.7	6.8	15.9	40.5	36.8	3.07	
거주지역	세마동	242	43.8	56.2	5.9	25.0	41.9	27.2	2.90	1.22
	신장동	217	58.1	41.9	5.5	24.2	42.9	27.5	2.92	
	남촌동	90	42.2	57.8	5.8	25.0	44.2	25.0	2.88	
	초평동	146	56.8	43.2	6.3	30.2	36.5	27.0	2.84	
	중앙동	259	55.6	44.4	10.4	29.6	42.6	17.4	2.67	
	대원동	344	61.0	39.0	9.7	17.9	51.5	20.9	2.84	
전체	1,398	55.4	44.6	7.4	24.4	43.8	24.4	2.85	-	

\*p<.05. \*\*p<.01. \*\*\*p<.001

- 진로교육경험과 관련하여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에서 실시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4.6%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은 68.2%로 나타났음. 그리고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에서 실시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의 비율은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46.0%)에 비해서 0.6%p 높게 나타났음. 그리고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도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52.9%)에 비해 15.3%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에서 실시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의 도움정도에 대한 평균점수 역시 4점 만점에 2.85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2.47점)와 비교했을 때 0.38점 높게 나타났음.
-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에서 실시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의 도움정도를 주요 변인별로 차이 검증한 결과, 학교급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3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 3.07점, 고등학교 2.80점의 순으로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이 3.2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수준 2.95점, 어려운편 2.79점으로 나타났음. 이는 학교급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어려울수록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에서 실시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의 도움정도에 대해 낮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함. 그리고 거주지역별로는 신장동이 2.9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세마동(2.90점), 남촌동(2.88점), 초평동(2.84점), 대원동(2.84점), 중앙동(2.67점) 순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표 3-63> 진로체험경험 -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경험해본 적 없다	경험해본 적 있다	도움 정도				평균 (1~4점)	차이 검증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5,628	60.3	39.7	11.3	34.4	47.9	6.4	2.49	-	
성별	남	662	58.2	41.8	10.5	23.8	40.1	25.6	2.81	-0.624
	여	728	62.9	37.1	4.4	27.8	45.6	22.2	2.86	
학교급	초	456	64.3	35.7	6.1	17.2	33.7	42.9	3.13	16.27***
	중	473	60.0	40.0	5.3	28.0	52.9	13.8	2.75	
	고	456	57.2	42.8	10.8	31.8	40.5	16.9	2.64	
경제수준	어려운편	81	50.6	49.4	10.0	27.5	50.0	12.5	2.65	7.73***
	보통	839	63.6	36.4	7.2	31.1	43.0	18.7	2.73	
	잘사는편	472	57.4	42.6	7.0	17.9	41.3	33.8	3.02	
거주지역	세마동	242	55.4	44.6	6.5	21.3	42.6	29.6	2.95	1.11
	신장동	218	64.2	35.8	5.1	32.1	41.0	21.8	2.79	
	남촌동	91	46.2	53.8	4.1	24.5	46.9	24.5	2.92	
	초평동	146	54.8	45.2	9.1	28.8	37.9	24.2	2.77	
	중앙동	259	60.6	39.4	8.8	26.5	44.1	20.6	2.76	
	대원동	344	64.5	35.5	9.8	27.9	43.4	18.9	2.71	
전체	1,400	60.6	39.4	7.4	26.1	42.6	23.8	2.83	-	

\*p<.05. \*\*p<.01. \*\*\*p<.001

- 진로교육경험과 관련하여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9.4%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은 66.4%로 나타났음. 그리고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의 비율은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39.7%)에 비해서 0.3%p 낮게 나타났음. 반면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은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54.3%)에 비해 12.1%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의 도움 정도에 대한 평균점수 역시 4점 만점에 2.83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점수(2.49점)와 비교했을 때 0.34점 높게 나타났음.
-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의 도움 정도를 주요 변인별로 차이 검증한 결과, 학교급별, 경제수준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1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 2.75점, 고등학교 2.64점의 순으로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이 3.0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수준 2.73점, 어려운편 2.65점으로 나타났음. 이는 학교급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어려울수록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의 도움정도에 대해 낮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함. 하지만 성별, 거주지역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표 3-64> 진로체험경험 -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과(전공) 관련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경험해본 적 없다	경험해본 적 있다	도움 정도					차이 검증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평균 (1~4점)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5,628	54.4	45.6	8.5	34.2	52.0	5.3	2.54	-	
성별	남	662	57.3	42.7	8.8	19.4	41.7	30.0	2.93	-1.99*
	여	728	62.1	37.9	3.3	17.4	48.2	31.2	3.07	
학교급	초	456	69.3	30.7	2.1	17.9	35.0	45.0	3.23	7.62**
	중	473	62.8	37.2	5.1	20.5	47.2	27.3	2.97	
	고	456	46.5	53.5	9.0	18.0	48.8	24.2	2.88	
경제수준	어려운편	81	54.3	45.7	5.4	27.0	48.6	18.9	2.81	7.81**
	보통	839	61.6	38.4	6.8	19.9	48.8	24.5	2.91	
	잘사는편	472	57.6	42.4	4.5	15.0	37.5	43.0	3.19	
거주지역	세마동	242	57.4	42.6	4.9	12.6	46.6	35.9	3.14	.97
	신장동	218	64.7	35.3	7.8	22.1	41.6	28.6	2.91	
	남촌동	91	44.0	56.0	2.0	21.6	45.1	31.4	3.06	
	초평동	146	53.4	46.6	5.9	20.6	41.2	32.4	3.00	
	중앙동	259	56.8	43.2	8.0	20.5	42.0	29.5	2.93	
	대원동	344	61.9	38.1	6.9	18.3	48.1	26.7	2.95	
전체	1,400	59.7	40.3	6.0	18.8	44.7	30.5	3.00	-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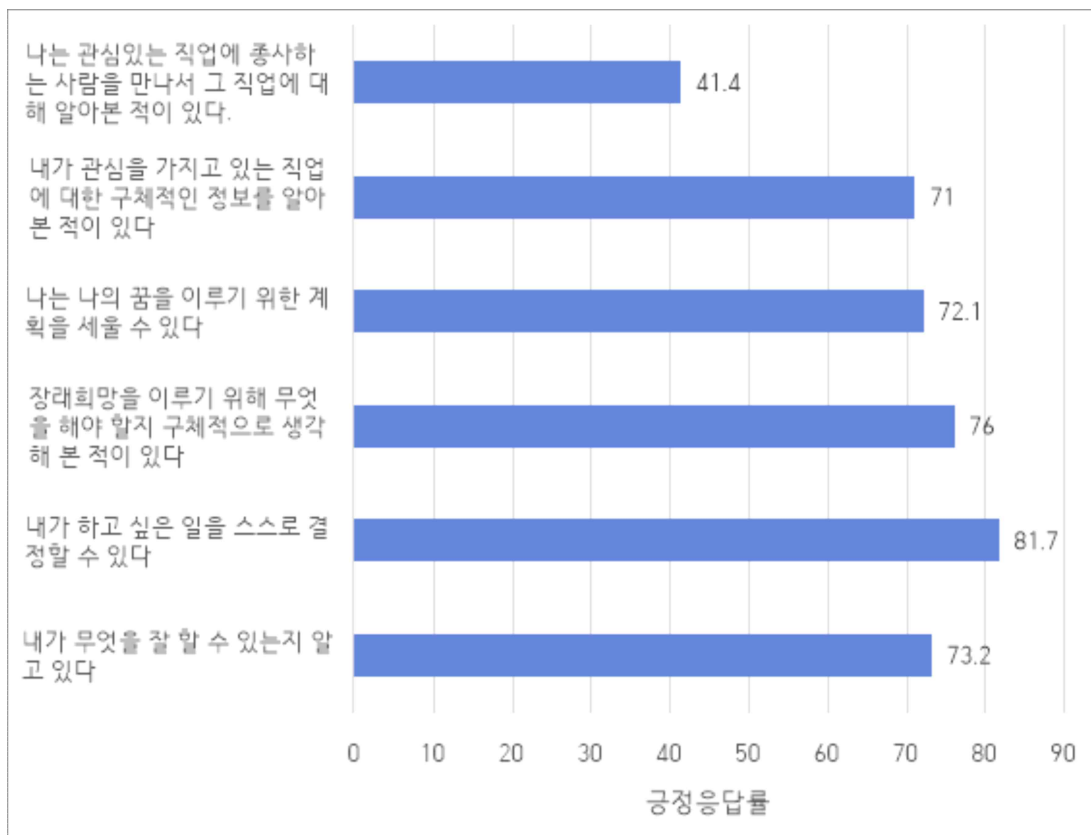
- 진로교육경험과 관련하여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과(전공)관련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3%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은 75.2%로 나타났음. 그리고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과(전공)관련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의 비율은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45.6%)에 비해서 5.3%p 낮게 나타났음. 반면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은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57.3%)에 비해 17.9%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과(전공)관련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의 도움정도에 대한 평균점수 역시 4점 만점에 3.00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2.54점)와 비교했을 때 0.46점 높게 나타났음.
-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과(전공)관련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의 도움정도를 주요 변인별로 차이 검증한 결과, 학교급별, 경제수준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2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 2.97점, 고등학교 2.88점의 순으로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이 3.1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수준 2.91점, 어려운편 2.81점으로 나타났음. 이는 학교급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어려울수록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과(전공)관련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의 도움정도에 대해 낮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함. 하지만 성별, 거주지역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3. 진로 및 직업선택

- 오산시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직업선택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진로성숙도 문항을 분석한 결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81.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다’ (76.0%), ‘내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73.2%), ‘나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72.1%),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 본 적이 있다’ (71.0%)의 순으로 나타났음.
- 반면 ‘나는 관심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직업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다’ 는 41.4%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이는 관심있는 직업 종사자와의 만남을 통한 진로 및 직업탐색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함.



<그림 3-3> 오산시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직업선택(진로성숙도) 긍정 응답률

&lt;표 3-65&gt; 진로 및 직업선택 - 내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1~4점)	차이 검증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7,170	0.6	20.5	71.2	7.7	2.86	-	
성별	남	666	4.8	20.0	46.5	28.7	2.99	1.57
	여	727	5.0	23.5	45.9	25.6	2.92	
학교급	초	459	2.8	15.0	40.3	41.8	3.21	34.45***
	중	471	6.4	27.6	44.2	21.9	2.82	
	고	458	5.5	23.1	53.1	18.3	2.84	
경제 수준	어려운편	80	6.3	25.0	47.5	21.3	2.84	39.00***
	보통	843	5.6	26.0	49.6	18.9	2.82	
	잘사는편	472	3.2	14.2	40.0	42.6	3.22	
거주 지역	세마동	254	3.7	18.0	48.2	30.2	3.05	1.45
	신장동	216	4.6	21.3	43.5	30.6	3.00	
	남촌동	93	3.2	23.7	51.6	21.5	2.91	
	초평동	146	6.2	22.6	43.8	27.4	2.92	
	중앙동	260	4.6	22.7	50.8	21.9	2.90	
대원동	342	6.1	24.9	42.7	26.3	2.89		
전체	1,403	4.8	22.0	46.1	27.1	2.95	-	

\*p&lt;.05. \*\*p&lt;.01. \*\*\*p&lt;.001

- ‘내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 청소년의 73.2%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음. 그리고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내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에 대한 오산시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은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78.9%)에 비해서 5.7%p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내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에 대한 평균점수 역시 4점 만점에 2.95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2.86점)와 비교했을 때 0.09점 높게 나타났음.
- ‘내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의 평균점수를 주요 변인별로 차이 검증한 결과, 학교급별, 경제수준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2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2.84점, 중학교 2.82점의 순으로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이 3.2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어려운편 2.84점, 보통 수준 2.82점 순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성별, 거주지역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lt;표 3-66&gt; 진로 및 직업선택 -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1~4점)	차이 검증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7,170	0.9	21.3	54.1	23.7	3.01	-
성별	남	666	2.7	13.8	47.6	35.9	3.17	2.06*
	여	729	1.9	18.0	49.9	30.2	3.08	
학교급	초	459	1.5	13.3	42.3	42.9	3.27	12.40**
	중	471	3.4	17.0	51.0	28.7	3.05	
	고	460	2.0	17.8	52.6	27.6	3.06	
경제 수준	어려운편	81	4.9	22.2	48.1	24.7	2.93	37.09***
	보통	845	2.6	18.1	54.6	24.7	3.01	
	잘사는편	417	1.3	10.6	38.9	49.3	3.36	
거주 지역	세마동	245	2.0	13.9	46.5	37.6	3.20	1.75
	신장동	217	2.3	14.3	50.2	33.2	3.14	
	남촌동	93	1.1	17.2	53.8	28.0	3.09	
	초평동	146	2.7	15.8	45.9	35.6	3.14	
	중앙동	261	1.9	21.5	50.6	26.1	3.01	
대원동	342	2.9	16.4	47.1	33.6	3.11		
전체		1,405	2.3	16.0	48.8	32.9	3.12	-

\*p&lt;.05. \*\*p&lt;.01. \*\*\*p&lt;.001

-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 청소년의 81.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음. 그리고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에 대한 오산시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은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77.8%)에 비해서 3.9%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에 대한 평균점수 역시 4점 만점에 3.12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3.01점)와 비교했을 때 0.11점 높게 나타났음.
-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의 평균점수를 주요 변인별로 차이 검증한 결과, 학교급별, 경제수준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2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3.06점, 중학교 3.05점의 순으로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이 3.3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수준 3.01점, 어려운편 2.93점 순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성별, 거주지역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표 3-67> 진로 및 직업선택 -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있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1~4점)	차이 검증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7,170	2.1	26.5	54.6	16.8	2.86	-	
성별	남	665	5.6	18.6	42.1	33.7	3.04	.89
	여	729	5.6	18.1	47.1	29.2	3.00	
학교급	초	457	5.7	16.4	39.4	38.5	3.11	6.49**
	중	472	7.6	20.8	44.7	26.9	2.91	
	고	460	3.5	18.5	49.6	28.5	3.03	
경제 수준	어려운편	80	7.5	27.5	32.5	32.5	2.90	28.67***
	보통	845	6.0	21.1	49.8	23.1	2.90	
	잘사는편	471	4.0	12.1	38.2	45.6	3.25	
거주 지역	세마동	246	4.5	19.5	39.8	36.2	3.08	.58
	신장동	218	6.9	12.4	47.7	33.0	3.07	
	남촌동	93	3.2	15.1	58.1	23.7	3.02	
	초평동	144	5.6	22.9	39.6	31.9	2.98	
	중앙동	260	3.5	21.2	48.8	26.5	2.98	
	대원동	342	7.0	19.6	40.1	33.3	3.00	
전체	1,404	5.6	18.4	44.7	31.3	3.02	-	

\*p&lt;.05. \*\*p&lt;.01. \*\*\*p&lt;.001

-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 청소년의 76.0%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음. 그리고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다’에 대한 오산시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은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71.4%)에 비해서 4.6%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다’에 대한 평균점수 역시 4점 만점에 3.02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2.86점)와 비교했을 때 0.16점 높게 나타났음.
-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다’의 평균점수를 주요 변인별로 차이 검증한 결과, 학교급별, 경제수준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1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3.03점, 중학교 2.91점의 순으로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이 3.2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수준 3.90점, 어려운편 2.90점 순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성별, 거주지역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표 3-68> 진로 및 직업선택 - 나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1~4점)	차이 검증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7,170	1.4	22.6	59.6	16.5	2.91	-	
성별	남	665	4.5	24.2	41.4	29.9	2.97	.77
	여	730	4.8	22.2	47.9	25.1	2.93	
학교급	초	459	4.4	19.4	40.1	36.2	3.08	10.02***
	중	471	6.8	25.7	44.2	23.4	2.84	
	고	460	3.0	23.7	50.7	22.6	2.93	
경제 수준	어려운편	81	7.4	30.9	35.8	25.9	2.80	31.43***
	보통	845	5.1	26.0	49.9	18.9	2.83	
	잘사는편	471	3.4	16.6	37.8	42.3	3.19	
거주 지역	세마동	246	3.3	20.7	45.1	30.9	3.04	1.51
	신장동	218	4.6	21.1	42.7	31.7	3.01	
	남촌동	92	2.2	23.9	48.9	25.0	2.97	
	초평동	146	6.8	24.7	39.0	29.5	2.91	
	중앙동	260	3.1	26.9	46.9	23.1	2.90	
	대원동	342	7.3	23.4	43.3	26.0	2.88	
전체	1,405	4.7	23.2	44.8	27.3	2.95	-	

\*p&lt;.05. \*\*p&lt;.01. \*\*\*p&lt;.001

- ‘나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 청소년의 72.1%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음. 그리고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나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에 대한 오산시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은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76.1%)에 비해서 4.0%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나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에 대한 평균점수 역시 4점 만점에 2.95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2.91점)와 비교했을 때 0.04점 높게 나타났음.
- ‘나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의 평균점수를 주요 변인별로 차이 검증한 결과, 학교급별, 경제수준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0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2.93점, 중학교 2.84점의 순으로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이 3.1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수준 2.83점, 어려운편 2.80점 순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성별, 거주지역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표 3-69> 진로 및 직업선택 -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본 적이 있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1~4점)	차이 검증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7,170	6.6	29.4	51.1	13.0	2.71	-	
성별	남	665	6.8	22.6	40.5	30.2	2.94	.15
	여	728	6.9	21.8	42.3	29.0	2.93	
학교급	초	457	8.5	24.5	33.0	33.9	2.92	9.87***
	중	471	8.9	23.6	44.8	22.7	2.81	
	고	460	3.0	19.1	45.7	32.2	3.07	
경제 수준	어려운편	81	6.2	25.9	40.7	27.2	2.89	12.73***
	보통	842	7.0	24.1	45.7	23.2	2.85	
	잘사는편	471	6.4	18.3	34.0	41.4	3.10	
거주 지역	세마동	246	5.7	17.9	44.7	31.7	3.02	2.85*
	신장동	217	5.1	18.0	42.4	34.6	3.06	
	남촌동	90	5.6	16.7	48.9	28.9	3.01	
	초평동	146	11.0	21.2	35.6	32.2	2.89	
	중앙동	260	4.6	35.0	36.2	24.2	2.80	
대원동	342	8.5	18.4	44.7	28.4	2.93		
전체	1,402	6.8	22.3	41.4	29.6	2.94	-	

\*p&lt;.05. \*\*p&lt;.01. \*\*\*p&lt;.001

-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본 적이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 청소년의 71.0%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음. 그리고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본 적이 있다’에 대한 오산시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은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64.1%)에 비해서 6.9%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본 적이 있다’에 대한 평균점수 역시 4점 만점에 2.94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2.71점)와 비교했을 때 0.23점 높게 나타났음.
-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본 적이 있다’의 평균점수를 주요 변인별로 차이 검증한 결과, 학교급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3.0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 2.92점, 중학교 2.81점 순으로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이 3.1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어려운편 2.89점, 보통수준 2.85점 순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거주지역별로는 신장동이 3.0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세마동(3.02점), 남촌동(3.01점), 대원동(2.93점), 초평동(2.89점), 중앙동(2.80점) 순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표 3-70> 진로 및 직업선택 - 나는 관심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직업에 대하여 알아본 적이 있다

(단위: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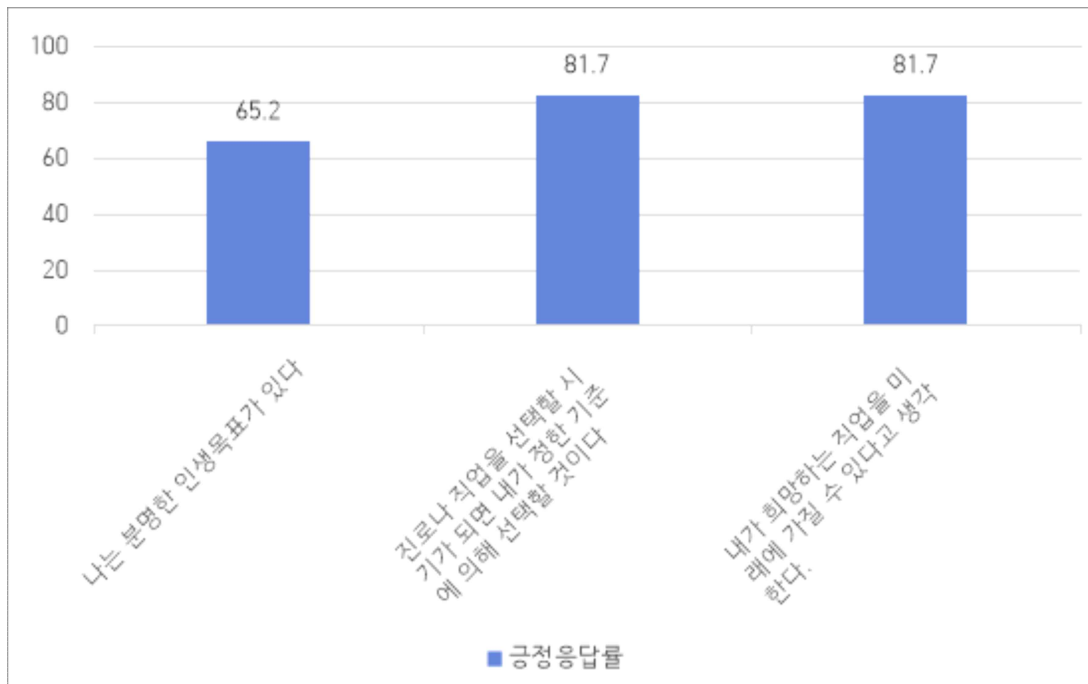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1~4점)	차이 검증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7,170	14.1	31.3	49.0	5.6	2.46	-	
성별	남	661	29.7	25.4	26.3	18.6	2.34	2.70**
	여	728	33.7	27.9	24.9	13.6	2.18	
학교급	초	455	32.5	25.3	21.8	20.4	2.30	1.83
	중	472	35.0	25.0	26.7	13.3	2.18	
	고	457	27.4	29.8	28.4	14.4	2.30	
경제 수준	어려운편	81	29.6	28.4	28.4	13.6	2.26	17.65***
	보통	840	34.3	28.8	27.0	9.9%	2.13	
	잘사는편	470	27.9	22.8	22.1	27.2	2.49	
거주 지역	세마동	245	26.5	25.3	27.3	20.8	2.42	2.02
	신장동	216	38.0	19.9	24.1	18.1	2.22	
	남촌동	92	25.0	25.0	32.6	17.4	2.42	
	초평동	145	35.9	23.4	23.4	17.2	2.22	
	중앙동	260	28.1	31.5	27.3	13.1	2.25	
대원동	341	33.1	29.0	24.3	13.5	2.18		
전체	1,399	31.7	26.8	25.4	16.0	2.26	-	

\*p&lt;.05. \*\*p&lt;.01. \*\*\*p&lt;.001

- ‘나는 관심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직업에 대하여 알아본 적이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 청소년의 41.4%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음. 그리고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나는 관심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직업에 대하여 알아본 적이 있다’에 대한 오산시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은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54.6%)에 비해서 13.2%p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나는 관심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직업에 대하여 알아본 적이 있다’에 대한 평균점수 역시 4점 만점에 2.26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2.46점)와 비교했을 때 0.20점 낮게 나타났음.
- ‘나는 관심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직업에 대하여 알아본 적이 있다’의 평균점수를 주요 변인별로 차이 검증한 결과, 성별, 경제수준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이 2.34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 청소년은 2.18점으로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이 2.4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어려운편 2.26점, 보통수준 2.13점 순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학교급별, 거주지역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4. 인생 및 직업관

- 오산시 청소년들의 인생 및 직업관을 조사한 결과, ‘진로나 직업을 선택할 시기가 되면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해 선택할 것이다’ 와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미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는 모두 81.7%로 높게 나타났음.
- 반면 ‘나는 분명한 인생목표가 있다’ 는 65.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이는 오산시 청소년들은 분명한 인생목표 설정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함.



<그림 3-4> 오산시 청소년들의 인생 및 직업관 긍정 응답률

&lt;표 3-71&gt; 인생 및 직업관 - 나는 분명한 인생목표가 있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1~4점)	차이 검증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5,628	0.4	22.7	66.5	10.3	2.87	-	
성별	남	666	6.5	24.8	37.8	30.9	2.93	2.99***
	여	733	7.1	30.4	38.9	23.6	2.79	
학교급	초	460	6.3	21.3	39.3	33.0	2.99	13.26***
	중	474	10.1	34.4	31.0	24.5	2.70	
	고	460	3.9	27.0	44.8	24.3	2.90	
경제 수준	어려운편	81	9.9	30.9	33.3	25.9	2.75	27.02***
	보통	846	7.1	32.6	40.2	20.1	2.73	
	잘사는편	474	5.5	19.2	35.2	40.1	3.10	
거주 지역	세마동	246	5.7	23.2	42.3	28.9	2.94	2.02
	신장동	218	6.4	22.9	37.6	33.0	2.97	
	남촌동	93	3.2	36.6	36.6	23.7	2.81	
	초평동	146	8.2	31.5	30.8	29.5	2.82	
	중앙동	260	6.2	31.9	39.6	22.3	2.78	
대원동	345	8.4	29.6	36.2	25.8	2.79		
전체	1,409	6.8	27.9	38.2	27.1	2.86	-	

\*p&lt;.05. \*\*p&lt;.01. \*\*\*p&lt;.001

- ‘나는 분명한 인생목표가 있다’에 대해 전체 응답 청소년의 65.3%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음. 그리고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나는 분명한 인생목표가 있다’에 대한 오산시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은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76.3%)에 비해서 11.5%p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나는 분명한 인생목표가 있다’에 대한 평균점수 역시 4점 만점에 2.86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2.87점)와 비교했을 때 0.01점 낮게 나타났음.
- ‘나는 분명한 인생목표가 있다’의 평균점수를 주요 변인별로 차이 검증한 결과, 성별, 학교급별, 경제수준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이 2.93점으로 여자 청소년(2.79점)보다 높게 나타났음.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2.9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2.90점, 중학교 2.70점의 순으로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이 3.1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어려운편 2.75점, 보통수준 2.73점 순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거주지역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표 3-72> 인생 및 직업관 - 진로나 직업을 선택할 시기가 되면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택할 것이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1~4점)	차이 검증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5,628	0.4	15.8	65.0	18.8	3.02	-	
성별	남	665	4.4	15.0	48.1	32.5	3.09	-0.69
	여	733	2.6	14.5	54.3	28.6	3.09	
학교급	초	459	3.9	14.4	46.2	35.5	3.13	1.64
	중	474	4.2	14.8	53.6	27.4	3.04	
	고	460	2.2	15.4	53.5	28.9	3.09	
경제 수준	어려운편	80	7.5	20.0	51.3	21.3	2.86	25.06***
	보통	846	3.0	17.5	55.7	23.9	3.00	
	잘사는편	474	3.2	9.1	44.1	43.7	3.28	
거주 지역	세마동	246	2.0	12.6	50.8	34.6	3.18	4.02**
	신장동	218	2.8	11.5	50.0	35.8	3.19	
	남촌동	93	2.2	15.1	57.0	25.8	3.06	
	초평동	145	4.1	12.4	49.0	34.5	3.14	
	중앙동	260	3.5	22.3	52.3	21.9	2.93	
대원동	345	4.9	13.6	51.6	29.9	3.06		
전체	1,408	3.4	14.8	51.4	30.3	3.09	-	

\*p&lt;.05. \*\*p&lt;.01. \*\*\*p&lt;.001

- ‘진로나 직업을 선택할 시기가 되면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택할 것이다’에 대해 전체 응답 청소년의 81.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음. 그리고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진로나 직업을 선택할 시기가 되면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택할 것이다’에 대한 오산시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은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83.8%)에 비해서 2.1%p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진로나 직업을 선택할 시기가 되면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택할 것이다’에 대한 평균점수 역시 4점 만점에 3.09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3.02점)와 비교했을 때 0.07점 낮게 나타났음.
- ‘진로나 직업을 선택할 시기가 되면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택할 것이다’의 평균점수를 주요 변인별로 차이 검증한 결과,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이 3.2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수준 3.00점, 어려운편 2.86점 순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거주지역별로는 신장동이 3.1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세마동(3.18점), 초평동(3.14점), 남촌동(3.06점), 대원동(3.06점), 중앙동(2.93점) 순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성별, 학교급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표 3-73> 인생 및 직업관 -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미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1~4점)	차이 검증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5,628	0.5	18.7	68.7	12.1	2.92	-	
성별	남	667	4.6	18.6	42.0	34.8	3.07	2.18**
	여	733	4.1	21.7	47.1	27.1	2.97	
학교급	초	460	3.0	16.3	40.2	40.4	3.18	13.71***
	중	475	5.7	24.2	43.4	26.7	2.91	
	고	460	4.1	20.0	50.2	25.7	2.97	
경제 수준	어려운편	81	4.9	25.9	50.6	18.5	2.83	23.90***
	보통	846	4.6	23.2	47.6	24.6	2.92	
	잘사는편	475	3.6	14.1	38.3	44.0	3.23	
거주 지역	세마동	247	2.8	18.6	44.5	34.0	3.10	2.89*
	신장동	218	4.6	14.7	45.9	34.9	3.11	
	남촌동	93	3.2	22.6	49.5	24.7	2.96	
	초평동	146	2.7	21.2	43.2	32.9	3.06	
	중앙동	260	3.8	28.8	43.1	24.2	2.88	
대원동	345	7.5	18.0	44.6	29.9	2.97		
전체	1,410	4.4	20.2	44.8	30.6	3.02	-	

\*p&lt;.05. \*\*p&lt;.01. \*\*\*p&lt;.001

-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미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에 대해 전체 응답 청소년의 75.4%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음. 그리고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미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오산시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은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80.8%)에 비해서 5.4%p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미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평균점수 역시 4점 만점에 3.02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2.92점)와 비교했을 때 0.10점 낮게 나타났음.
-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미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의 평균점수를 주요 변인별로 차이 검증한 결과, 성별, 학교급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청소년이 3.07점으로 여자 청소년(2.97점)보다 높게 나타났음.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3.1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고등학생 2.97점, 중학생 2.91점 순으로 나타남.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이 3.2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수준 2.92점, 어려운편 2.83점 순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거주지역별로는 신장동이 3.1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세마동(3.10점), 초평동(3.06점), 대원동(2.97점), 남촌동(2.96점), 중앙동(2.88점) 순으로 나타났음.

## 제 6 절 부적응 경험

## 1. 학업중단

- 오산시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경험을 알아본 결과, ‘학교를 그만 둔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1,365명 중 13명(1.0%)이 응답하였음. 그리고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학교를 그만 둔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0.8%)에 비해서 0.2%p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이 조사에서 학업중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수가 1,365명 중 13명(1.0%)로 매우 적어서 결과 해석시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최근 학업중단 시기를 살펴보면 학업중단 경험이 있다고 청소년 중에서 초등학교 때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4명(33.3%), 중학교 때는 4명(33.3%), 고등학교 때는 4명(33.3%)로 나타남.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에서는 고등학교 때가 49.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때는 35.2%, 초등학교때 15.8%로 나타난 결과와는 다소 다른 응답률을 보이고 있었음.

&lt;표 3-74&gt; 초·중·고 학업중단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경험 없음	경험 있음	(최근 중단 시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5,628	99.2	0.8	15.8	35.2	49.0	
성별	남	665	99.5	0.5	66.7	0.0	33.3
	여	700	98.6	1.4	22.2	44.4	33.3
학교급	초	439	99.3	0.7	50.0	0.0	50.0
	중	463	99.6	0.4	50.0	50.0	0.0
	고	448	99.8	0.2	0.0	100.0	0.0
경제 수준	어려운편	81	98.8	1.2	0.0	0.0	100.0
	보통	820	99.3	0.7	16.7	66.7	16.7
	잘사는편	457	98.7	1.3	60.0	0.0	40.0
거주 지역	세마동	239	99.2	0.8	0.0	100.0	0.0
	신장동	213	100.0	0.0	0.0	0.0	0.0
	남촌동	89	96.6	3.4	0.0	33.3	66.7
	초평동	143	99.3	0.7	0.0	0.0	100.0
	중앙동	255	98.8	1.2	33.3	66.7	0.0
	대원동	330	98.8	1.2	75.0	0.0	25.0
전체	1,365	99.0	1.0	33.3	33.3	33.3	



&lt;표 3-75&gt; 학업중단의 주된 이유 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44	신체건강문제 (48.3)	검정고시준비 (11.3)	특기 살리기 (8.6)	심리정신문제 (7.6)	공부하기 싫음 (7.5)
성별	남	3	특기 살리기 (33.3)	원하는 것 배우기(33.3)	학교친구문제 (폭력왕따) (33.3)	-	-
	여	7	심리정서적 문제 (57.1)	원하는 것 배우기(28.6)	신체건강문제 (14.3)	-	-
학교급	초	2	원하는 것 배우기(50.0)	학교친구문제 (폭력왕따) (50.0)	-	-	-
	중	1	신체건강문제 (100.0)	-	-	-	-
	고	1	심리정서적 문제(100.0)	-	-	-	-
경제 수준	어려운편	0	-	-	-	-	-
	보통	6	심리정서적 문제(33.3)	원하는 것 배우기(33.3)	신체건강문제 (16.7)	학교친구문제 (폭력왕따) (16.7)	-
	잘사는편	4	심리정서적 문제(50.0)	특기 살리기 (25.0)	원하는 것 배우기(25.0)	-	-
거주 지역	세마동	1	심리정서적 문제(100.0)	-	-	-	-
	신장동	0	-	-	-	-	-
	남촌동	2	심리정서적 문제(100.0)	-	-	-	-
	초평동	1	심리정서적 문제(100.0)	-	-	-	-
	증양동	3	원하는 것 배우기(66.7)	신체건강문제 (33.3)	-	-	-
	대원동	3	학교친구문제 (폭력왕따)(33.3)	원하는 것 배우기(33.3)	특기 살리기 (33.3)	-	-
전체	10	심리정신적 문제(40.0)	원하는 것 배우기(30.0)	신체건강문제 (10.0)	특기 살리기(10.0)	학교친구문제 (10.0)	

- 학업중단의 주된 이유로 1순위로 응답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심리·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40.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 (30.0%), ‘신체 건강상의 이유로’ (10.0%), ‘내 특기를 살리려고’ (10.0%), ‘학교친구들과의 문제(폭력, 왕따 등)로 인해’ (10.0%)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2022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경우 ‘신체 건강상의 이유로’ (48.3%), ‘검정고시를 준비하려고’ (11.3%), ‘내 특기를 살리려고’ (8.6%), ‘심리·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7.6%), ‘공부하기 싫어서’ (7.5%) 등의 순으로 나타나 오산시 청소년의 학업중단 이유와 차이를 보이고 있었음.

&lt;표 3-76&gt;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경험 없음	경험 있음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44	92.7	7.3
성별	남	3	0.0	100.0
	여	7	0.0	100.0
학교급	초	2	0.0	100.0
	중	1	0.0	100.0
	고	1	0.0	100.0
경제 수준	어려운편	0	-	-
	보통	6	0.0	100.0
	잘사는편	4	0.0	100.0
거주 지역	세마동	1	0.0	100.0
	신장동	0	-	-
	남촌동	2	0.0	100.0
	초평동	1	0.0	100.0
	중앙동	3	0.0	100.0
	대원동	3	0.0	100.0
전체		10	0.0	100.0

-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의 이용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이용 경험률은 100.0%로 나타났다.

## 2. 가출 경험

- 오산시 청소년들의 가출경험을 알아본 결과, ‘최근 1년 동안 가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1,376명 중 41명(3.0%)이 응답하였음. 그리고 이 문항은 오산시 청소년실태조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새롭게 추가한 문항이어서, 전국적인 수치와의 비교는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음. 그리고 이 조사에서 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수가 1,376명 중 41명(3.0%)로 매우 적어서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가 필요함.

&lt;표 3-77&gt; 가출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경험 없음	경험 있음	(가출 동기)						
				학업 문제	부모님 문제	학교 갈등· 폭력	경제적 어려움	친구 들과 함께 하기 위해	기타	
성별	남	655	96.6	3.4	27.8	38.9	0.0	5.6	5.6	22.2
	여	711	97.5	2.5	12.5	62.5	0.0	0.0	6.3	18.8
학교급	초	443	97.5	2.5	18.2	18.2	0.0	0.0	9.1	54.5
	중	467	96.4	3.6	15.4	76.9	0.0	0.0	0.0	7.7
	고	451	97.6	2.4	30.0	40.0	0.0	10.0	10.0	10.0
경제 수준	어려운편	82	91.5	8.5	14.3	57.1	0.0	14.3	0.0	14.3
	보통	827	97.6	2.4	20.0	53.3	0.0	0.0	6.7	20.0
	잘사는편	459	97.2	2.8	25.0	33.3	0.0	0.0	8.3	33.3
거주 지역	세마동	243	98.8	1.2	0.0	50.0	0.0	0.0	0.0	50.0
	신장동	214	97.7	2.3	0.0	60.0	0.0	0.0	20.0	20.0
	남촌동	90	96.7	3.3	0.0	100.0	0.0	0.0	0.0	0.0
	초평동	140	97.9	2.1	50.0	50.0	0.0	0.0	0.0	0.0
	중앙동	256	95.7	4.3	20.0	30.0	0.0	10.0	0.0	40.0
	대원동	337	96.4	3.6	22.2	66.7	0.0	0.0	11.1	0.0
전체	1,376	97.0	3.0	20.0	48.6	0.0	2.9	5.7	22.9	

- 최근 1년 동안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을 주요 배경변인 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이 3.4%로 여자 청소년(2.5%)보다 높았음.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3.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 2.5%, 고등학교 2.4% 순으로 나타남. 경제수준별로는 어려운편이 8.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잘사는편 2.8%, 보통 2.4% 순으로 나타남. 거주지역별로는 중앙동이 4.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대원동(3.6%), 남촌동(3.3%), 신장동(2.3%), 초평동(2.1%)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마동이 1.2%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1년동안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출동기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가출동기는 ‘부모님(보호자)과의 문제(불화, 폭행, 간섭 등) 때문

에’ (48.6%)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때문에’ (20.0%),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5.7%),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2.9%)의 순으로 나타났다.

### 3. 자살 시도 경험

- 오산시 청소년들의 자살 시도 경험을 알아본 결과, ‘지난 1년 동안 자살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31.4%로 나타났음.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계획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전체 응답자 중 8.5%로 나타났으며,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4.8%로 나타났음. 그리고 자살 시도 경험과 관련한 문항은 오산시 청소년실태조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새롭게 추가한 문항이어서, 전국적인 수치와의 비교는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음.

<표 3-78> 자살시도 경험 - 지난 1년 동안 자살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없다	1번	2~3번	월 1~2회	주 1~2회 이상
성별	남	663	69.1	13.6	11.9	3.3	2.1
	여	726	68.3	10.1	11.2	5.5	5.0
학교급	초	454	71.6	10.1	11.2	4.0	3.1
	중	473	70.2	10.4	11.6	3.6	4.2
	고	457	64.3	14.7	11.8	5.9	3.3
경제 수준	어려운편	82	50.0	14.6	19.5	9.8	6.1
	보통	842	66.7	12.1	12.8	5.0	3.3
	잘사는편	467	75.4	10.5	7.9	2.8	3.4
거주 지역	세마동	245	75.1	8.6	9.0	4.5	2.9
	신장동	216	67.1	13.4	9.3	5.1	5.1
	남촌동	92	67.4	8.7	13.0	5.4	5.4
	초평동	146	72.6	10.3	12.3	4.1	0.7
	중앙동	257	64.6	15.6	14.0	4.3	1.6
	대원동	343	64.7	11.7	13.1	5.0	5.5
전체		1,399	68.6	11.7	11.6	4.5	3.6

- ‘지난 1년 동안 자살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중 68.6%는 전혀 없다고 응답함. 하지만 응답자 중 31.4%는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1번이 11.7%로 가장 높았고, 2~3번이 11.6%, 월 1~2회 4.5%, 주1~2회 이상 3.6%의 순으로 나타났음.
- ‘지난 1년 동안 자살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질문에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주요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이 31.7%로 남자 청소년(30.9%)보다 높게 나타났음.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35.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 29.8%, 초등학교 28.4%

로 나타났다. 경제수준별로는 어려운편이 50.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수준 33.3%, 잘사는편 24.6%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중앙동이 35.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원동(35.3%), 신장동(32.9%), 남촌동(32.6%), 초평동(27.4%), 세마동(24.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79> 자살시도 경험 -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계획해 본 적이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없다	1번	2~3번	월 1~2회	주 1~2회 이상
성별	남	660	91.7	5.5	1.8	0.3	0.8
	여	725	91.4	4.3	1.9	1.2	1.1
학교급	초	452	90.9	5.3	1.8	0.9	1.1
	중	472	91.3	5.7	1.1	0.8	1.1
	고	456	92.5	3.5	2.4	0.9	0.7
경제수준	어려운편	79	81.0	5.1	8.9	2.5	2.5
	보통	839	92.1	4.8	1.7	0.8	0.6
	잘사는편	469	92.5	4.9	0.6	0.6	1.3
거주지역	세마동	245	92.7	3.7	1.6	1.2	0.8
	신장동	215	89.8	6.5	1.9	0.9	0.9
	남촌동	93	87.1	5.4	4.3	2.2	1.1
	초평동	145	93.1	2.1	4.8	0.0	0.0
	중앙동	256	93.4	4.3	0.0	1.6	0.8
	대원동	341	90.3	5.9	2.1	0.3	1.5
전체		1,395	91.5	4.8	1.9	0.9	0.9

-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계획해 본 적이 있다’ 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중 68.6%는 전혀 없다고 응답함. 하지만 응답자 중 8.1%는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계획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1번이 4.8%로 가장 높았고, 2~3번이 1.9%, 월 1~2회 0.9%, 주1~2회 이상 0.9%의 순으로 나타났다.
- ‘지난 1년 동안 자살에 대하여 계획해 본 적이 있다’ 는 질문에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주요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이 8.6%로 남자 청소년(8.3%)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9.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 8.7%, 고등학교 7.5%로 나타났다. 경제수준별로는 어려운편이 19.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수준 7.9%, 잘사는편 7.5%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남촌동이 12.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신장동(10.2%), 대원동(9.7%), 세마동(7.3%), 초평동(6.9%), 중앙동(6.6%)의 순으로 나타났다.

&lt;표 3-80&gt; 자살시도 경험 -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없다	1번	2~3번	월 1~2회	주 1~2회 이상
성별	남	660	95.3	2.6	1.2	0.3	0.6
	여	724	95.2	2.8	1.4	0.4	0.3
학교급	초	453	95.4	2.6	1.3	0.4	0.2
	중	472	95.6	2.3	1.1	0.4	0.6
	고	454	94.9	2.9	1.3	0.2	0.7
경제 수준	어려운편	78	80.8	7.7	7.7	1.3	2.6
	보통	840	95.8	2.6	1.0	0.2	0.4
	잘사는편	468	96.8	1.9	0.6	0.2	0.4
거주 지역	세마동	245	94.7	2.4	1.2	1.2	0.4
	신장동	215	94.4	3.7	1.9	0.0	0.0
	남촌동	92	91.3	5.4	2.2	0.0	1.1
	초평동	145	95.2	0.0	3.4	0.7	0.7
	중앙동	256	94.9	3.5	0.8	0.4	0.4
	대원동	341	96.2	2.6	0.6	0.0	0.6
전체		1,394	95.2	2.7	1.3	0.4	0.5

-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 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중 85.2%는 전혀 없다고 응답함. 하지만 응답자 중 4.8%는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1번이 2.7%로 가장 높았고, 2~3번이 1.3%, 주1~2회 이상 0.5%, 월 1~2회 0.4%의 순으로 나타났음.
-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 는 질문에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주요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이 4.8%로 남자 청소년(4.7%)보다 높게 나타났음.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5.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 4.6%, 중학교 4.4%로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어려운편이 19.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수준 4.2%, 잘사는편 3.2%의 순으로 나타났음. 거주지역별로는 남촌동이 8.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신장동(5.6%), 세마동(5.3%), 중앙동(5.1%), 초평동(4.8%), 대원동(3.8%)의 순으로 나타났음.

&lt;표 3-81&gt; 자살생각 주요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학업 문제	가족 간 갈등	또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만	기타
성별	남	194	25.3	31.4	5.7	2.1	6.2	29.4
	여	238	33.6	23.9	9.7	1.7	5.9	25.2
학교급	초	181	23.2	28.2	5.0	2.2	3.9	37.6
	중	135	32.6	30.4	11.9	0.7	5.2	19.3
	고	111	38.7	21.6	8.1	1.8	9.0	20.7
경제 수준	어려운편	37	21.6	29.7	2.7	8.1	10.8	27.0
	보통	258	31.8	29.1	9.7	0.8	5.0	23.6
	잘사는편	137	29.2	23.4	5.8	1.5	6.6	33.6
거주 지역	세마동	79	30.4	26.6	7.6	3.8	3.8	27.8
	신장동	78	26.9	25.6	6.4	2.6	5.1	33.3
	남촌동	29	27.6	20.7	10.3	6.9	13.8	20.7
	초평동	45	17.8	31.1	6.7	0.0	6.7	37.8
	중앙동	70	32.9	22.9	5.7	1.4	10.0	27.1
	대원동	106	34.0	34.0	10.4	0.0	4.7	17.0
전체		434	30.0	27.2	8.1	1.8	6.0	27.0

- 지난 1년 동안 자살 생각을 하게 된 주요 이유를 살펴보면,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이 30.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가족 간의 갈등’(27.2%),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학교폭력 등)’(8.1%), ‘미래(진로)에 대한 불만’(6.0%), ‘경제적인 어려움’(1.8%)의 순으로 나타났음.
- 지난 1년 동안 자살생각을 하게 된 주요 이유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 가족간 갈등(31.4%)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학업문제(25.3%), 미래에 대한 불만(6.2%)의 순으로 나타났음. 반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업문제(33.6%)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가족간 갈등(23.9%), 또래갈등(9.7%)의 순으로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어려운편의 경우 가족간 갈등(29.7%)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업문제(21.6%), 미래에 대한 불만(10.8%) 순으로 나타났음. 반면 보통수준의 경우에는 학업문제(29.2%), 가족간 갈등(29.1%), 또래갈등(9.7%)의 순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잘사는편의 경우에는 학업문제(29.2%), 가족간 갈등(23.4%), 미래에 대한 불만(6.6%)의 순으로 나타났음. 거주지역별로는 세마동과 신장동, 남촌동, 중앙동의 경우 학업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초평동은 가족간 갈등(31.1%)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그리고 남촌동과 중앙동의 경우 미래에 대한 불만이 각각 13.8%, 10.0%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이상의 결과에 기초할 때, 자살생각의 주요 이유는 주요 배경변인 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시사함.



## 제 7 절 사회진입/ 학교폭력예방교육 경험

## 1.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 이 있는지를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1,352명 가운데 5.8%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그리고 2022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6.7%)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 은 0.9%p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lt;표 3-82&gt;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있다	없다	
2022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5,815	6.7	93.3
성별	남	641	5.0	95.0
	여	701	6.4	93.6
학교급	초	421	1.0	99.0
	중	466	2.1	97.9
	고	451	13.7	86.3
경제수준	어려운편	81	11.1	88.9
	보통	817	6.2	93.8
	잘사는편	446	4.0	96.0
거주지역	세마동	239	3.8	96.2
	신장동	213	7.5	92.5
	남촌동	89	9.0	91.0
	초평동	140	12.1	87.9
	중앙동	248	4.4	95.6
	대원동	331	5.1	94.9
전체	1,352	5.8	94.2	

-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 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주요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이 6.4%로 남자 청소년(5.0%)보다 높게 나타났음.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13.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 2.1%, 초등학교 1.0%로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어려운편이 11.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수준 6.2%, 잘사는편 4.0%의 순으로 나타났음. 거주지역별로는 초평동이 12.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남촌동(9.0%), 신장동(7.5%), 대원동(5.1%), 중앙동(4.4%), 세마동(3.8%)의 순으로 나타났음. 이상의 결과에 기초할 때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이,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높을 수록, 그리고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함. 그리고 지역별로는 초평등과 남초등, 신장동이 상대적으로 아르바이트 경험이 높은 반면, 세마동과 중앙동은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시사함.

**<표 3-83> 아르바이트 시 발생한 부정적 경험 -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1~2번	3번 이상
2022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385	88.0	10.4	1.6
성별	남	30	90.0	6.7	3.3
	여	44	97.7	2.3	0.0
학교급	초	4	100.0	0.0	0.0
	중	8	100.0	0.0	0.0
	고	61	91.8	4.9	3.3
경제수준	어려운편	9	88.9	0.0	11.1
	보통	49	91.8	6.1	2.0
	잘사는편	17	100.0	0.0	0.0
거주지역	세마동	8	100.0	0.0	0.0
	신장동	15	100.0	0.0	0.0
	남촌동	8	62.5	37.5	0.0
	초평동	17	94.1	0.0	5.9
	중앙동	10	90.0	0.0	10.0
	대원동	17	100.0	0.0	0.0
전체		75	93.3	4.0	2.7

-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청소년 중에서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는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93.3%는 전혀 없다고 응답함. 하지만 응답자 중 6.7%는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험’ 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1~2번이 4.0%로 가장 높았고, 3번 이상이 2.7% 순으로 나타났음.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는 질문에 한번이라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2022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비교해서 살펴보면 오산시의 경우 2022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12.0%)보다 5.3%p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는 질문에 한번이라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주요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이 10.0%로 여자 청소년(2.3%)보다 높게 나타났음.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8.2%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0.0%로 낮게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어려운편이 11.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수준 8.2%, 잘사는편 0.0%의 순으로 나타났음. 거주지역별로는 남촌동이 37.5%로 가장 높

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앙동(10.0%), 초평동(5.9%), 대원동(0.0%), 신장동(0.0%), 세마동(0.0%)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3-84> 아르바이트 시 발생한 부정적 경험 - 계약 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하였거나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였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1~2번	3번 이상
2022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385	85.6	10.5	3.8
성별	남	30	90.0	3.3	6.7
	여	44	84.1	9.1	6.8
학교급	초	4	100.0	0.0	0.0
	중	8	100.0	0.0	0.0
	고	61	82.0	8.2	9.8
경제수준	어려운편	9	55.6	22.2	22.2
	보통	49	89.8	4.1	6.1
	잘사는편	17	88.2	5.9	5.9
거주지역	세마동	8	100.0	0.0	0.0
	신장동	15	100.0	0.0	0.0
	남촌동	8	50.0	25.0	25.0
	초평동	17	76.5	11.8	11.8
	중앙동	10	80.0	10.0	10.0
	대원동	17	94.1	0.0	5.9
전체		75	85.3	6.7	8.0

-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청소년 중에서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하였거나,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였다’ 는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5.3%는 전혀 없다고 응답함. 하지만 응답자 중 14.7%는 ‘계약 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하였거나,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한 경험’ 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1~2번이 6.7%로 가장 높았고, 3번 이상이 8.0% 순으로 나타났음.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하였거나,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였다’ 는 질문에 한번이라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2022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비교해서 살펴보면 오산시의 경우 2022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14.3%)보다 0.4%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하였거나,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였다’ 는 질문에 한번이라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주요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이 15.9%로 남자 청소년(10.0%)보다 높게 나타났음.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18.0%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0.0%로 낮게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어려운편이 44.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잘사는편 11.8%, 보통수준 10.2%의 순으로 나타났음. 거주지역별로는

남촌동이 50.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초평동(23.5%), 중앙동(20.0%), 대원동(5.9%), 신장동(0.0%), 세마동(0.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85> 아르바이트 시 발생한 부정적 경험 -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1~2번	3번 이상
2022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385	67.1	26.2	6.7
성별	남	30	73.3	16.7	10.0
	여	44	77.3	20.5	2.3
학교급	초	4	75.0	25.0	0.0
	중	8	87.5	0.0	12.5
	고	61	73.8	21.3	4.9
경제수준	어려운편	9	77.8	11.1	11.1
	보통	49	73.5	22.4	4.1
	잘사는편	17	76.5	17.6	5.9
거주지역	세마동	8	75.0	25.0	0.0
	신장동	15	100.0	0.0	0.0
	남촌동	8	50.0	50.0	0.0
	초평동	17	70.6	23.5	5.9
	중앙동	10	70.0	30.0	0.0
	대원동	17	70.6	11.8	17.6
전체		75	74.7	20.0	5.3

-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청소년 중에서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74.7%는 전혀 없다고 응답함. 하지만 응답자 중 25.3%는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1~2번이 20.0%로 가장 높았고, 3번 이상이 5.3% 순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질문에 한번이라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2022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비교해서 살펴보면 오산시의 경우 2022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32.9%)보다 7.6%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질문에 한번이라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주요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이 26.7%로 여자 청소년(22.7%)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26.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25.0%), 중학교(15.2%)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별로는 보통수준이 26.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잘사는편 23.5%, 어려운편 22.2%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남촌동이 50.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앙동(30.0%), 대원동(29.4%), 초평동(29.4%), 세마동(25.0%), 신장동(0.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86> 아르바이트 시 발생한 부정적 경험 -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1~2번	3번 이상
2022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385	91.6	6.8	1.6
성별	남	30	93.3	3.3	3.3
	여	44	88.6	9.1	2.3
학교급	초	4	100.0	0.0	0.0
	중	8	100.0	0.0	0.0
	고	61	88.5	8.2	3.3
경제수준	어려운편	9	88.9	0.0	11.1
	보통	49	91.8	8.2	0.0
	잘사는편	17	82.4	11.8	5.9
거주지역	세마동	8	100.0	0.0	0.0
	신장동	15	100.0	0.0	0.0
	남촌동	8	62.5	37.5	0.0
	초평동	17	94.1	0.0	5.9
	중앙동	10	80.0	20.0	0.0
	대원동	17	88.2	5.9	5.9
전체		75	89.3	8.0	2.7

-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청소년 중에서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는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9.3%는 전혀 없다고 응답함. 하지만 응답자 중 10.7%는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험’ 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1~2번이 8.0%로 가장 높았고, 3번 이상이 2.7% 순으로 나타났음.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는 질문에 한번이라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2022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비교해서 살펴보면 오산시의 경우 2022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8.4%)보다 2.3%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는 질문에 한번이라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주요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이 11.4%로 남자 청소년(6.7%)보다 높게 나타났음.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11.5%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0.0%로 낮게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이 17.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어려운편 11.1%, 보통수준 8.2%의 순으로 나타났음. 거주지역별로는 남촌동이 37.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앙동(20.0%), 대원동(11.8%), 초평동(5.9%), 세마동(0.0%), 신장동(0.0%)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3-87> 아르바이트 시 발생한 부정적 경험 - 작업 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1~2번	3번 이상
2022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385	89.7	7.8	2.4
성별	남	30	90.0	10.0	0.0
	여	44	90.9	9.1	0.0
학교급	초	4	50.0	50.0	0.0
	중	8	100.0	0.0	0.0
	고	61	90.2	9.8	0.0
경제수준	어려운편	9	88.9	11.1	0.0
	보통	49	91.8	8.2	0.0
	잘사는편	17	82.4	17.6	0.0
거주지역	세마동	8	100.0	0.0	0.0
	신장동	15	100.0	0.0	0.0
	남촌동	8	75.0	25.0	0.0
	초평동	17	88.2	11.8	0.0
	중앙동	10	70.0	30.0	0.0
	대원동	17	94.1	5.9	0.0
전체		75	89.3	10.7	0.0

-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청소년 중에서 ‘작업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는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9.3%는 전혀 없다고 응답함. 하지만 응답자 중 10.7%는 ‘작업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1~2번이 10.7%로 가장 높았고, 3번 이상이 0.0% 순으로 나타났다. ‘작업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는 질문에 한번이라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2022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비교해서 살펴보면 오산시의 경우 2022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10.2%)보다 0.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작업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는 질문에 한번이라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주요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이 10.0%로 여자 청소년(9.1%)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50.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9.8%), 중학교(0.0%)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이 17.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어려운편 11.1%, 보통수준 8.2%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중앙동이 30.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남촌동(25.0%), 초평동(11.8%), 대원동(5.9%), 세마동(0.0%), 신장동(0.0%)의 순으로 나타났다.

&lt;표 3-88&gt; 아르바이트 시 발생한 부정적 경험 -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1~2번	3번 이상
2022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385	89.9	6.9	3.1
성별	남	30	76.7	20.0	3.3
	여	44	84.1	15.9	0.0
학교급	초	4	50.0	50.0	0.0
	중	8	100.0	0.0	0.0
	고	61	82.0	14.8	3.3
경제수준	어려운편	9	77.8	11.1	11.1
	보통	49	81.6	16.3	2.0
	잘사는편	17	76.5	23.5	0.0
거주지역	세마동	8	100.0	0.0	0.0
	신장동	15	100.0	0.0	0.0
	남촌동	8	62.5	37.5	0.0
	초평동	17	82.4	11.8	5.9
	중앙동	10	40.0	50.0	10.0
	대원동	17	82.4	17.6	0.0
전체		75	80.0	17.3	2.7

-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청소년 중에서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했다’는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80.0%는 전혀 없다고 응답함. 하지만 응답자 중 20.0%는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1~2번이 17.3%로 가장 높았고, 3번 이상이 2.7% 순으로 나타났음.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했다’는 질문에 한번이라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2022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비교해서 살펴보면 오산시의 경우 2022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10.0%)보다 10.0%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했다’는 질문에 한번이라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주요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이 23.3%로 여자 청소년(15.9%)보다 높게 나타났음.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50.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17.0%), 중학교(0.0%) 순으로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이 23.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어려운편 22.2%, 보통수준 18.4%의 순으로 나타났음. 거주지역별로는 중앙동이 60.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남촌동(37.5%), 대원동(17.6%), 초평동(17.6%), 세마동(0.0%), 신장동(0.0%)의 순으로 나타났음.

&lt;표 3-89&gt; 아르바이트 시 발생한 부정적 경험 -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1~2번	3번 이상
2022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385	96.7	2.5	0.8
성별	남	30	93.3	6.7	0.0
	여	44	95.5	4.5	0.0
학교급	초	4	50.0	50.0	0.0
	중	8	100.0	0.0	0.0
	고	61	95.1	4.9	0.0
경제수준	어려운편	9	88.9	11.1	0.0
	보통	49	95.9	4.1	0.0
	잘사는편	17	88.2	11.8	0.0
거주지역	세마동	8	100.0	0.0	0.0
	신장동	15	100.0	0.0	0.0
	남촌동	8	87.5	12.5	0.0
	초평동	17	94.1	5.9	0.0
	중앙동	10	70.0	30.0	0.0
	대원동	17	100.0	0.0	0.0
전체		75	93.3	6.7	0.0

-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청소년 중에서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는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93.3%는 전혀 없다고 응답함. 하지만 응답자 중 6.7%는 ‘구타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1~2번이 6.7%로 가장 높았고, 3번 이상이 0.0% 순으로 나타났음.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는 질문에 한번이라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2022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비교해서 살펴보면 오산시의 경우 2022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3.3%)보다 3.4%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는 질문에 한번이라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주요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이 6.7%로 여자 청소년(4.5%)보다 높게 나타났음.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50.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4.9%), 중학교(0.0%) 순으로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이 11.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어려운편 11.1%, 보통수준 4.1%의 순으로 나타났음. 거주지역별로는 중앙동이 30.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남촌동(12.5%), 초평동(5.9%), 대원동(0.0%), 신장동(0.0%), 세마동(0.0%)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3-90> 아르바이트 시 발생한 부정적 경험 - 성적 피해(성희롱·성추행)를 당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1~번	3번 이상
2022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383	95.7	3.2	1.1
성별	남	30	90.0	6.7	3.3
	여	44	93.2	6.8	0.0
학교급	초	4	50.0	50.0	0.0
	중	8	100.0	0.0	0.0
	고	61	91.8	6.6	1.6
경제수준	어려운편	9	88.9	0.0	11.1
	보통	49	93.9	6.1	0.0
	잘사는편	17	82.4	17.6	0.0
거주지역	세마동	8	100.0	0.0	0.0
	신장동	15	100.0	0.0	0.0
	남촌동	8	87.5	12.5	0.0
	초평동	17	94.1	0.0	5.9
	중앙동	10	70.0	30.0	0.0
	대원동	17	88.2	11.8	0.0
전체		75	90.7	8.0	1.3

-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청소년 중에서 ‘성적 피해(성희롱·성추행 등)를 당했다’는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90.7%는 전혀 없다고 응답함. 하지만 응답자 중 9.3%는 ‘성적 피해(성희롱·성추행 등)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1~2번이 8.0%로 가장 높았고, 3번 이상이 1.3% 순으로 나타났음. ‘성적 피해(성희롱·성추행 등)를 당했다’는 질문에 한번이라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2022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비교해서 살펴보면 오산시의 경우 2022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4.3%)보다 5.0%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성적 피해(성희롱·성추행 등)를 당했다’는 질문에 한번이라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주요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이 10.0%로 여자 청소년(6.8%)보다 높게 나타났음.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50.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8.2%), 중학교(0.0%) 순으로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이 17.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어려운편 11.1%, 보통수준 6.1%의 순으로 나타났음. 거주지역별로는 중앙동이 30.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남촌동(12.5%), 대원동(11.8%), 초평동(5.9%), 신장동(0.0%), 세마동(0.0%)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3-91> 아르바이트 시 발생한 부정적 경험 - 최저임금(2022년 기준 시간당 9,160원, 2023년 기준 시간당 9,620원)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1~2번	3번 이상
2022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38	90.1	5.7	4.2
성별	남	31	83.9	9.7	6.5
	여	44	93.2	6.8	0.0
학교급	초	4	25.0	50.0	25.0
	중	8	77.8	11.1	11.1
	고	61	95.1	4.9	0.0
경제수준	어려운편	9	88.9	11.1	0.0
	보통	49	90.0	6.0	4.0
	잘사는편	17	88.2	11.8	0.0
거주지역	세마동	9	88.9	11.1	0.0
	신장동	15	100.0	0.0	0.0
	남촌동	8	75.0	25.0	0.0
	초평동	17	94.1	5.9	0.0
	중앙동	10	80.0	20.0	0.0
	대원동	17	88.2	0.0	11.8
전체		75	90.7	8.0	1.3

-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청소년 중에서 ‘최저임금(2022년 기준 시간당 9,160원, 2023년 기준 시간당 9,620원) 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다’ 는 문항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90.7%는 전혀 없다고 응답함. 하지만 응답자 중 9.3%는 ‘최저임금 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한 경험’ 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1~2번이 8.0%로 가장 높았고, 3번 이상이 1.3% 순으로 나타났음. ‘최저임금 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다’ 는 질문에 한번이라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2022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비교해서 살펴보면 오산시의 경우 2022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9.9%)보다 0.7%p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최저임금 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다’ 는 질문에 한번이라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주요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이 16.1%로 여자 청소년(6.8%)보다 높게 나타났음.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75.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22.2%), 고등학교(4.9%) 순으로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이 11.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어려운편 11.1%, 보통수준 10.0%의 순으로 나타났음. 거주지역별로는 남촌동이 25.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앙동(20.0%), 대원동(11.8%), 세마동(11.1%), 초평동(5.9%), 신장동(0.0%)의 순으로 나타났음.

## 2. 학교폭력예방교육 경험

- 오산시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예방교육 경험을 알아본 결과, ‘최근 1년 동안 학교나 학교밖 기관에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1,365명 중 69.2%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은 72.2%로 나타났다. 이 문항은 오산시 청소년실태조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새롭게 추가한 문항이어서, 전국적인 수치와의 비교는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음.

&lt;표 3-92&gt; 학교폭력예방교육 경험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 수	없다	있다	(도움정도)					평균 (1~4점)	차이 검증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성별	남	646	32.5	67.5	12.1	16.4	39.1	32.5	2.92	-.96
	여	709	29.1	70.9	8.3	19.0	39.2	33.5	2.98	
학교급	초	437	21.7	78.3	1.8	10.1	30.7	57.3	3.44	118.71***
	중	462	34.0	66.0	6.7	17.4	50.0	25.8	2.95	
	고	451	35.7	64.3	23.8	26.6	37.9	11.7	2.38	
경제 수준	어려운편	79	44.3	55.7	11.6	32.6	27.9	27.9	2.72	25.14***
	보통	818	31.1	68.9	12.5	19.2	43.9	24.3	2.80	
	잘사는편	460	27.8	72.2	5.2	13.3	33.0	48.5	3.25	
거주 지역	세마동	239	31.8	68.2	7.5	18.2	38.4	35.8	3.03	6.38***
	신장동	210	31.9	68.1	5.0	15.8	43.9	35.3	3.09	
	남촌동	87	40.2	59.8	10.0	26.0	28.0	36.0	2.90	
	초평동	143	31.5	68.5	7.3	14.6	32.3	45.8	3.17	
	중앙동	256	31.6	68.4	23.8	16.3	35.5	24.4	2.60	
	대원동	337	26.7	73.3	7.8	19.8	41.2	31.3	2.96	
전체	1,365	30.8	69.2	10.1	17.7	39.2	33.0	2.95	-	

\*p&lt;.05. \*\*p&lt;.01. \*\*\*p&lt;.001

- 학교폭력예방교육 경험의 도움정도에 대한 평균점수 역시 4점 만점에 2.95점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예방교육 경험의 도움정도를 주요 변인별로 차이 검증한 결과, 학교급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4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 2.95점, 고등학교 2.38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이 3.2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수준 2.80점, 어려운편 2.7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급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어려울수록 ‘학교폭력예방교육 경험’의 도움정도에 대해 낮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시

사함. 그리고 거주지역별로는 초평동이 3.1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신장동(3.09점), 세마동(3.03점), 대원동(2.96점), 남촌동(2.90점), 중앙동(2.60점) 순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제 8 절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삶의 변화

## 1. 코로나19 이후 학업 스트레스 변화

- 코로나19 이후 학업 스트레스의 변화를 물어본 결과, 오산시 청소년들의 29.9%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음.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46.7%였고, 학업스트레스가 감소하였다는 응답은 23.5%로 나타났음.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이후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46.0%)에 비해서 13.1%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lt;표 3-93&gt; 코로나19 이후 학업 스트레스 변화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감소하였다	약간 감소하였다	변화 없다	약간 증가하였다	매우 증가하였다	평균 (1~5점)	차이 검증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7,170	1.1	6.9	45.9	33.8	7.2	3.44	-	
성별	남	668	12.1	13.2	47.5	22.2	5.1	2.95	-2.67***
	여	730	9.7	12.2	45.9	23.0	9.2	3.10	
학교급	초	460	14.3	15.2	48.5	17.6	4.3	2.82	19.38***
	중	473	10.8	14.2	43.8	25.4	5.9	3.01	
	고	460	7.4	8.7	47.4	25.2	11.3	3.24	
경제 수준	어려운편	83	12.0	12.0	43.4	24.1	8.4	3.05	.53
	보통	845	9.6	12.8	48.2	22.2	7.2	3.05	
	잘사는편	473	12.9	12.5	44.6	23.0	7.0	2.99	
거주 지역	세마동	246	15.4	13.4	46.3	20.7	4.1	2.85	2.05
	신장동	219	11.0	11.9	48.4	22.4	6.4	3.01	
	남촌동	93	8.6	12.9	47.3	19.4	11.8	3.13	
	초평동	145	12.4	12.4	35.9	27.6	11.7	3.14	
	중앙동	261	8.0	11.5	56.3	19.2	5.0	3.02	
대원동	344	11.3	12.8	42.4	25.6	7.8	3.06		
전체	1,408	10.9	12.6	46.7	22.7	7.2	3.0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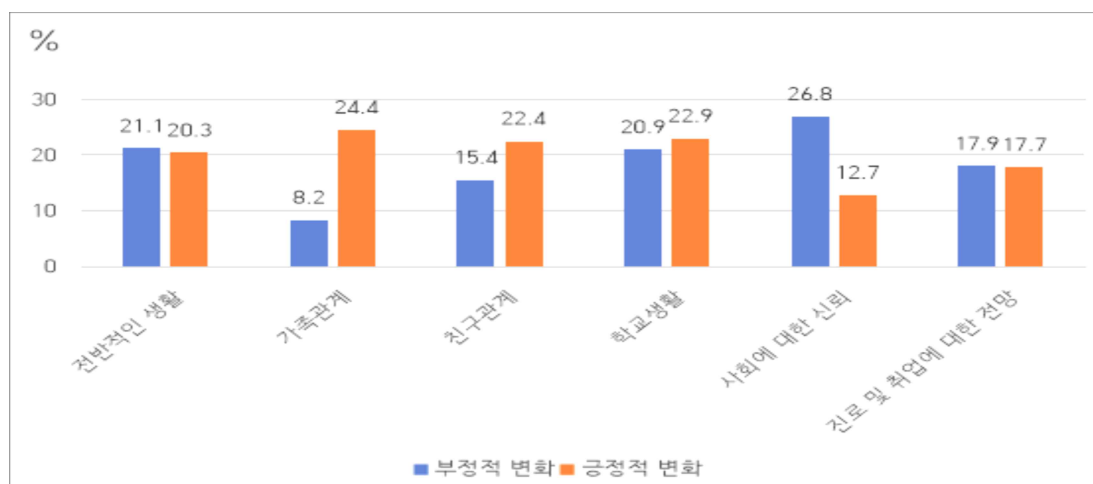
\*p&lt;.05. \*\*p&lt;.01. \*\*\*p&lt;.001

- ‘코로나19 이후 학업스트레스의 변화’에 대한 평균점수 역시 5점 만점에 3.03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3.44점)와 비교했을 때 0.41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오산시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코로나19 이후 학업스트레스의 증가 정도는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함.
- ‘코로나19 이후 학업스트레스의 변화’의 평균점수를 주요 변인별로 차이 검증한 결과, 성별, 학교급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이 3.10점으로 남자 청소년(2.95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3.2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3.01점), 초등학교(2.82점) 순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2.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

- 오산시 청소년들의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관련된 질문은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변화부터 가족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에 이어 사회에 대한 신뢰와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전망까지 이루어졌음.
-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서 오산시 청소년들은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이 21.1%로,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20.3%)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음.
- 세부적인 생활영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오산시 청소년의 삶에서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은 사회에 대한 신뢰가 26.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교생활(20.9%),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전망(17.9%), 가족관계(8.2%)의 순으로 나타났음. 반면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은 가족관계가 24.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교생활(22.9%), 친구관계(22.4%),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전망(17.7%), 사회에 대한 신뢰(12.7%)의 순으로 나타났음.
-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이후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이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보다 높은 영역은 가족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이었음. 반면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보다 높은 영역은 사회에 대한 신뢰와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전망이었음.



<그림 3-5> 코로나19 이후 오산시 청소년들의 영역별 삶의 변화 응답 결과(%)

&lt;표 3-94&gt;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 - 전반적인 생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부정적 변화	약간 부정적 변화	변화 없음	약간 긍정적 변화	매우 긍정적 변화	평균 (1~5점)	차이 검증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7,170	1.8	28.6	56.1	12.8	0.6			
성별	남	667	3.3	16.5	58.6	12.6	9.0	3.07	.89
	여	733	1.6	20.7	58.5	10.8	8.3	3.03	
학교급	초	463	2.6	14.9	57.5	11.4	13.6	3.19	11.31***
	중	473	1.9	19.2	56.9	14.4	7.6	3.07	
	고	458	2.8	21.8	61.1	9.2	5.0	2.92	
경제 수준	어려운편	83	4.8	24.1	57.8	3.6	9.6	2.89	11.96***
	보통	845	2.0	18.9	62.5	12.1	4.5	2.98	
	잘사는편	473	2.7	17.5	51.8	12.3	15.6	3.21	
거주 지역	세마동	247	0.8	17.8	57.5	10.9	13.0	3.17	3.63**
	신장동	216	3.2	16.7	59.7	15.7	4.6	3.02	
	남촌동	93	4.3	20.4	60.2	8.6	6.5	2.92	
	초평동	146	2.1	19.2	54.8	9.6	14.4	3.15	
	중앙동	261	1.5	15.7	61.7	13.4	7.7	3.10	
	대원동	345	3.2	23.2	58.6	8.4	6.7	2.92	
전체	1,409	2.4	18.7	58.7	11.6	8.7	3.05		

\*p&lt;.05. \*\*p&lt;.01. \*\*\*p&lt;.001

-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인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29.9%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응답하였으며, 부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1.1%로 나타나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음. 그리고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58.7%로 나타났다.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인 생활이 코로나19 이후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13.4%) 대비 6.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30.4%) 대비 9.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인 생활의 변화’에 대한 평균점수 역시 5점 만점에 3.05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인 생활의 변화’의 평균 점수를 주요 변인별로 차이 검증한 결과, 학교급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1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3.07점), 고등학교(2.92점)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이 3.2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수준 2.98점, 어려운편 2.89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급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전반적인 생활에서 코로나19 이후 삶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함. 거주지역별로는 세마동이 3.1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초평동(3.15점), 중앙동

(3.10점), 신장동(3.02점), 남촌동(2.92점), 대원동(2.92점) 순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표 3-95>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 - 가족관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부정적 변화	약간 부정적 변화	변화 없음	약간 긍정적 변화	매우 긍정적 변화	평균 (1~5점)	차이 검증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7,170	0.4	9.2	68.3	19.8	23	-	-
성별	남	666	0.9	7.2	66.2	12.0	13.7	3.30	.88
	여	733	1.0	7.4	68.5	10.6	12.6	3.26	
학교급	초	461	1.1	7.8	61.8	10.4	18.9	3.38	7.45**
	중	473	1.3	7.8	63.4	14.6	12.9	3.30	
	고	460	0.4	6.1	76.7	8.9	7.8	3.18	
경제수준	어려운편	82	3.7	14.6	57.3	11.0	13.4	3.16	28.51***
	보통	845	0.5	6.7	74.8	11.5	6.5	3.17	
	잘사는편	474	1.3	7.0	56.1	11.0	24.7	3.51	
거주지역	세마동	247	0.4	7.7	59.9	15.4	16.6	3.40	2.81*
	신장동	218	0.5	7.3	72.5	10.6	9.2	3.21	
	남촌동	93	1.1	11.8	64.5	14.0	8.6	3.17	
	초평동	145	0.7	9.0	59.3	13.8	17.2	3.38	
	중앙동	262	0.8	5.0	70.6	10.7	13.0	3.30	
대원동	344	1.7	6.4	72.4	8.1	11.3	3.21		
전체		1,409	0.9	7.3	67.4	11.3	13.1	3.28	-

\*p<.05. \*\*p<.01. \*\*\*p<.001

- 코로나19 이후 ‘가족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24.4%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응답하였으며, 부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8.2%로 나타나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음. 그리고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67.4%로 나타났음.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가족관계가 코로나19 이후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응답한 오산시 청소년의 비율은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22.1%) 대비 2.3%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부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9.6%) 대비 1.4%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코로나19 이후 가족관계의 변화’에 대한 평균점수 역시 5점 만점에 3.28점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가족관계의 변화’의 평균점수를 주요 변인별로 차이 검증한 결과, 학교급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3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3.30점), 고등학교(3.18점)순으로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이 3.5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수준 3.17점, 어려운편 3.51점 순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학교급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가정생활에서 코로나19 이후 삶이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함. 거주지역별로는 세마동이 3.4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초평동(3.38점), 중앙동(3.30점), 신장동(3.21점), 대원동(3.21점), 남촌동(3.17점) 순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표 3-96>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 - 친구관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부정적 변화	약간 부정적 변화	변화 없음	약간 긍정적 변화	매우 긍정적 변화	평균 (1~5점)	차이 검증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7,170	1.1	25.5	57.9	14.1	1.3	-	-
성별	남	669	2.2	12.4	60.1	13.6	11.7	3.20	1.91
	여	730	2.1	14.2	64.0	9.9	9.9	3.11	
학교급	초	463	1.9	12.1	57.0	12.5	16.4	3.29	9.08***
	중	473	2.7	14.2	60.5	13.1	9.5	3.12	
	고	458	1.7	13.1	69.0	9.6	6.6	3.06	
경제수준	어려운편	82	6.1	13.4	54.9	11.0	14.6	3.15	14.58***
	보통	844	1.8	13.9	66.4	12.6	5.5	3.06	
	잘사는편	475	2.1	12.2	56.2	10.1	19.4	3.32	
거주지역	세마동	246	1.6	15.0	58.5	14.2	10.6	3.17	1.85
	신장동	217	1.8	11.5	66.4	12.9	7.4	3.12	
	남촌동	93	2.2	18.3	60.2	11.8	7.5	3.04	
	초평동	146	1.4	11.6	57.5	10.3	19.2	3.34	
	중앙동	261	1.9	13.8	60.2	13.4	10.7	3.17	
	대원동	346	2.9	11.3	65.9	9.8	10.1	3.13	
전체		1,409	2.1	13.3	62.1	11.6	10.8	3.16	-

\*p<.05. \*\*p<.01. \*\*\*p<.001

- 코로나19 이후 ‘친구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24.4%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응답하였음. 반면 부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5.4%로 나타나, 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음. 그리고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62.1%로 나타났음.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친구관계가 코로나19 이후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응답한 오산시 청소년의 비율은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15.4%) 대비 7.0%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부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26.6%) 대비 11.2%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코로나19 이후 친구관계의 변화’에 대한 평균점수 역시 5점 만점에 3.16점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친구관계의 변화’의 평균점수를 주요 변인별로 차이 검증한 결과, 학교급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2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3.12점), 고등학교(3.06점)순으로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이 3.3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어려운편 3.15점, 보통수준 3.06점 순으로 나타났음. 거주지역별로는 초평동이 3.3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세마동(3.17점), 중앙동(3.17점), 대원동(3.13점), 신장동(3.12점), 남촌동(3.04점) 순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표 3-97>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 - 학교 생활

146(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부정적 변화	약간 부정적 변화	변화 없음	약간 긍정적 변화	매우 긍정적 변화	평균 (1~5점)	차이 검증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7,170	39	44.5	40.1	9.9	1.5	-	-	
성별	남	667	3.1	15.4	56.4	11.5	13.5	3.17	2.34*
	여	730	2.5	20.5	56.3	10.7	10.0	3.05	
학교급	초	463	2.2	14.5	55.3	10.6	17.5	3.27	15.44***
	중	471	3.2	16.1	56.1	13.0	11.7	3.14	
	고	458	2.6	23.8	57.2	10.3	6.1	2.93	
경제수준	어려운편	83	3.6	19.3	51.8	12.0	13.3	3.12	12.78***
	보통	842	2.0	19.4	61.0	10.7	6.9	3.01	
	잘사는편	474	4.0	15.2	49.4	12.0	19.4	3.28	
거주지역	세마동	247	1.2	18.6	51.8	14.6	13.8	3.21	3.02'
	신장동	217	2.8	16.1	61.3	12.0	7.8	3.06	
	남촌동	93	7.5	22.6	46.2	14.0	9.7	2.96	
	초평동	145	3.4	15.2	53.8	9.0	18.6	3.24	
	중앙동	260	1.5	14.2	60.8	12.3	11.2	3.17	
	대원동	345	3.8	20.9	57.7	7.0	10.7	3.00	
전체	1,407	2.8	18.1	56.4	11.2	11.7	3.11	-	

\*p<.05. \*\*p<.01. \*\*\*p<.001

- 코로나19 이후 ‘학교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22.9%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응답하였음. 반면 부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0.9%로 나타나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음. 그리고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62.1%로 나타났음.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학교생활이 코로나19 이후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응답한 오산시 청소년의 비율은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11.4%) 대비 11.5%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부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48.4%) 대비 20.9%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코로나19 이후 학교생활의 변화’에 대한 평균점수 역시 5점 만점에 3.11점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학교생활의 변화’의 평균점수를 주요 변인별로 차이 검증한 결과, 성별, 학교급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이 3.17점으로 여자 청소년(3.05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2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3.14점), 고등학교(2.93점)순으로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이 3.2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어려운편 3.12점, 보통수준 3.01점 순으로 나타났음. 거주지역별로는 초평동이 3.2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세마동(3.21점), 중앙동(3.17점), 신장동(3.06점), 대원동(3.00점), 남촌동(2.96점) 순으로 나타났음.

<표 3-98>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 - 사회에 대한 신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부정적 변화	약간 부정적 변화	변화 없음	약간 긍정적 변화	매우 긍정적 변화	평균 (1~5점)	차이 검증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7,170	30	329	55.4	7.6	1.0	-	-	
성별	남	666	7.7	17.0	60.5	8.6	6.3	2.89	1.35
	여	730	5.5	23.4	60.3	4.7	6.2	2.83	
학교급	초	459	4.8	18.5	56.6	9.6	10.5	3.02	13.70***
	중	473	7.4	20.3	60.5	7.0	4.9	2.82	
	고	459	7.0	22.2	64.3	3.3	3.3	2.74	
경제수준	어려운편	83	8.4	25.3	55.4	4.8	6.0	2.75	14.41***
	보통	844	6.0	21.9	64.1	5.2	2.7	2.77	
	잘사는편	471	7.0	16.8	55.0	9.1	12.1	3.03	
거주지역	세마동	246	5.3	23.6	54.1	8.1	8.9	2.92	2.81*
	신장동	217	6.9	20.3	63.1	5.5	4.1	2.80	
	남촌동	93	10.8	21.5	55.9	7.5	4.3	2.73	
	초평동	145	7.6	18.6	55.2	9.0	9.7	2.94	
	중앙동	260	5.0	13.1	67.7	7.7	6.5	2.98	
대원동	346	6.9	23.7	59.8	4.6	4.9	2.77		
전체	1,406	6.5	20.3	60.5	6.5	6.2	2.86	-	

\*p<.05. \*\*p<.01. \*\*\*p<.001

- 코로나19 이후 ‘사회에 대한 신뢰’의 변화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12.7%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응답하였음. 반면 부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6.8%로 나타나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음. 그리고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60.5%로 나타났음.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사회에 대한 신뢰가 코로나19 이후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응답한 오산시 청소년의 비율은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8.6%) 대비 4.1%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부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35.9%) 대비 9.1%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코로나19 이후 사회에 대한 신뢰의 변화’에 대한 평균점수 역시 5점 만점에 2.86점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사회에 대한 신뢰의 변화’의

평균점수를 주요 변인별로 차이 검증한 결과, 학교급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0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2.82점), 고등학교(2.74점)순으로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이 3.0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수준 2.77점, 어려운편 2.75점 순으로 나타났음. 거주지역별로는 중앙동이 2.9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초평동(2.94점), 세마동(2.92점), 신장동(2.80점), 대원동(2.77점), 남촌동(2.73점) 순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표 3-99>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 -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전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부정적 변화	약간 부정적 변화	변화 없음	약간 긍정적 변화	매우 긍정적 변화	평균 (1~5점)	차이 검증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7,170	6.4	35.2	51.3	6.6	0.4		
성별	남	665	2.9	10.8	66.6	9.3	3.14	3.58***
	여	729	4.3	17.6	62.3	8.5	2.97	
학교급	초	460	2.4	10.0	64.3	10.0	3.22	17.20***
	중	471	4.5	13.2	63.7	10.4	3.05	
	고	458	3.9	19.7	64.8	6.6	2.89	
경제 수준	어려운편	83	4.8	15.7	60.2	12.0	3.01	26.75***
	보통	841	3.8	15.8	68.6	7.4	2.93	
	잘사는편	472	2.8	11.4	57.8	11.2	3.28	
거주 지역	세마동	247	1.6	17.4	59.9	10.5	3.11	1.44
	신장동	217	3.7	12.9	67.7	6.9	3.04	
	남촌동	92	3.3	20.7	57.6	9.8	3.00	
	초평동	146	4.8	13.7	60.3	8.2	3.11	
	중앙동	260	2.3	11.5	67.7	10.8	3.10	
대원동	342	6.1	13.7	65.5	7.6	2.96		
전체	1,404	3.6	14.3	64.4	8.9	8.8	3.05	

\*p<.05. \*\*p<.01. \*\*\*p<.001

- 코로나19 이후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전망’의 변화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17.7%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응답하였음. 반면 부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7.9%로 나타나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약간 더 많았음. 그리고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64.4%로 나타났음.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학교생활이 코로나19 이후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응답한 오산시 청소년의 비율은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7.0%) 대비 10.7%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부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41.6%) 대비 23.7%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코로나19 이후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전망의 변화’에 대한 평균점수 역시 5

점 만점에 3.05점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전망의 변화’의 평균점수를 주요 변인별로 차이 검증한 결과, 성별, 학교급별, 경제수준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이 3.14점으로 여자 청소년(2.97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2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3.05점), 고등학교(2.89점)순으로 나타났음.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편이 3.2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어려운편 3.01점, 보통수준 2.93점 순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거주지역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제 4 장 요약 및 시사점결론

- 본 연구는 오산시 청소년의 현황과 상태를 실증적·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중장기 청소년정책의 비전과 목표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되었음. 특히 본 조사에서는 코로나 19 이후 2023년 현재 청소년 삶의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오산시 청소년정책 수립의 기본 바탕이 되는 청소년 삶의 현주소를 종합적·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었음.
- 본 연구에서 조사내용은 ①청소년의 건강과 주관적 삶의 질, ② 존중과 가치, ③ 참여 및 사회인식, ④ 학습과 활동, ⑤ 진로 및 직업탐색, ⑥ 부적응 경험, ⑦ 사회진입 경험/학교폭력예방교육 경험, ⑧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삶의 변화 등 크게 8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음.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성별, 학교 및 학년, 가정의 경제수준, 거주지역 등을 조사하였음.
- 조사결과와 시사점이 주는 시사점을 압축적으로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1. 건강과 주관적 삶의 질

- 오산시 청소년들의 건강과 주관적 삶의 질과 관련해서는 주관적 안녕감, 일상적 스트레스, 심리상담서비스 이용 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일상생활 만족도 평가, 사회적 역량, 자아존중감 등을 조사하였음.
- 오산시 청소년들의 주관적 안녕감의 평균점수는 10점 만점에 6.59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5.35점)와 비교했을 때, 0.31점 높게 나타났음. 주관적 안녕감의 세부영역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어제의 행복 정도는 7.03점, 어제의 근심과 걱정 정도는 4.60점, 어제의 우울정도는 3.11점, 요즘의 삶의 만족도 6.91점,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 6.65점으로 나타남. 그리고 주관적 안녕감은 학교급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오산시 청소년들의 주관적 안녕감은 보통수준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근심·걱정과 우울정도가 평균 5점 이하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우울은 3.11점으

로 가장 낮아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 오산시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의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2.84점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지난 1년동안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에 대해서 이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87.9%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오산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점수가 보통수준 이상으로 높은 수준인데 비해서 심리상담서비스 이용경험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의미하며, 향후 청소년 심리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함.
- 주관적 건강상태와 관련해서는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음. 우선 신체적 건강 수준에 대한 평균점수 역시 4점 만점에 3.21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3.46점)와 비교했을 때 0.25점 낮게 나타났음. 그리고 학교급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정신적 건강수준과 관련해서도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3.19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3.41점)와 비교했을 때 0.22점 낮게 나타났음. 그리고 학교급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 역시 오산시 청소년들의 주관적 건강상태(신체적, 정신적)는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며, 정책을 수립할 때 학교급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함.
- 영역별 삶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 내가 사는 집(8.49점), 가족과의 관계(8.39점), 생활에서의 안전(8.17점)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었음. 반면 나의 외모(6.58점), 나의 미래(7.19점),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물건(7.36점), 내가 다니는 학교(7.62점), 나의 자유시간(7.73점), 우리동네(7.79점) 등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외모, 미래, 돈이나 물건, 학교 등에 대한 불만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관심이 보다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함.
- 사회적 역량과 관련해서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린다는 정도에 대한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3.14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3.09점)

와 비교했을 때 0.05점 높게 나타났음.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 한다는 정도에 대한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3.12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3.15점)와 비교했을 때 0.03점 낮게 나타났음. 그리고 학교급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른 사람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잘 해결한다는 정도에 대한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3.00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3.01점)와 비교했을 때 0.01점 낮게 나타났음. 이상의 결과들은 오산시 청소년들의 사회적 역량의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3점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사람과의 협력이나 갈등발생시 해결역량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향후 청소년정책 수립시 협력과 갈등해결에 대한 관심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함.

- 자아존중감과 관련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정도에 대한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3.19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3.11점)와 비교했을 때 0.08점 높게 나타났음.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는 정도에 대한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3.10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3.14점)와 비교했을 때 0.04점 낮게 나타났음.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는 정도에 대한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3.19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2.98점)와 비교했을 때 0.21점 높게 나타났음. 그리고 학교급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들은 오산시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이 4점 만점에 3점 이상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니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와 비교했을 때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졌다는 생각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보다 더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 2. 존중과 가치

- 존중받는 정도와 관련하여 ‘우리 가족은 나의 의견을 존중한다’ 는 질문에 대한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3.44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3.51점)와 비교했을 때 0.07점 낮게 나타났음. 그리고 주요 변인별로 차이검정한 결과,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내 친구들은 나의 의견을 존중한다’ 는 정도에 대한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3.27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3.37점)와 비교했을 때 0.10점 낮게 나타났음. 그리고 주요 변인별로 차이검증



한 결과,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내가 다니는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정도에 대한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3.22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3.18점)와 비교했을 때 0.04점 낮게 나타났음. 그리고 주요 변인별로 차이검정한 결과, 학교급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정도에 대한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2.95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3.04점)와 비교했을 때 0.09점 낮게 나타났음. 그리고 주요 변인별로 차이검정한 결과, 학교급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에 기초할 때, 오산시 청소년들의 존중받는 정도는 4점 만점에 3점 이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지만, 2022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4가지 항목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향후 오산시 청소년정책 수립시 청소년들의 의견이 존중되는 형태로의 방향전환을 위한 관심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시사함.

- 부모님과 함께 하는 활동과 관련해서도 ‘나의 고민에 대한 대화’에 대해 매일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9%로 나타났으며,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36.4%로 나타났음.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에 대해 매일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2.1%로 나타났으며,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14.1%로 나타났음. ‘책, 텔레비전, 영화에 대한 대화’에 대해 매일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3.2%로 나타났으며,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28.6%로 나타났음. ‘정치, 사회적 주제에 대한 대화’에 대해 매일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0%로 나타났으며,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52.6%로 나타났음. 그리고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고민에 대한 대화,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책/텔레비전/영화에 대한 대화, 저녁식사에서 거의 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낮게 나타나서, 향후 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을 강화하는 정책적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강화하는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과 관련하여 아버지와 2시간 이상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8.5%로 나타났으며, 전혀 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6.5%로 나타났음. 어머니와는 2시간 이상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6.6%로 나타났으며, 전혀 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2.3%로 나타났음. 부모님이 안계신 경우 양육자 함께 보내는 시간과 관련하여 양육자와 2시간 이상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5.6%로 나타났으며, 전혀 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29.8%로 나타났음. 그리고 2020년 전국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오산시의 청소년들이 양육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비율은 4.7%p 높게 나타났으며, 거의 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25.4%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의 경우 양육자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비율이 2020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모님이 안 계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보다 더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하고 세밀한 정책적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함.

- 부모님의 관심과 관련하여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집에 늦게 들어와도 관심이 없다’ 문항에 대한 평균점수 역시 4점 만점에 1.69점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내가 고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다’ 문항에 대한 평균점수 역시 4점 만점에 1.26점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오산시의 경우 청소년에 대한 부모님의 관심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경제수준별·거주지역별 등에 따라서 그 수준차가 있다는 것을 시사함. 이러한 특징들은 오산시 청소년정책을 수립할 때 중요한 참고사항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 오산시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과 관련해서 ‘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는 또래를 친구로 사귄 수 있다’ 문항에 대한 평균점수 역시 4점 만점에 3.32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2.99점)와 비교했을 때 0.33점 높게 나타났음. 그리고 성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는 또래를 이성친구로 사귄 수 있다’ 문항에 대한 평균점수 역시 4점 만점에 2.98점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점수(2.83점)와 비교했을 때 0.15점 높게 나타났음. 그리고 성별, 학교급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결과적으로 오산시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은 2020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비해서 높지만, 성별, 학교급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문화수용성이 낮게 나타난 집단을 대상으로 다문화수용성 향상 프로그램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함.

### 3. 참여 및 사회인식

-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참여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4%로 나타났으며,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1.4%로 나타났음. 그리고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4%로 나타났으며,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8.9%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오산시 청소년들의 경우 청소년관련 문제나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과정에서 전혀 참여하지 않다는 비율이 적극 참여한다는 비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청소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함.
- 그리고 청소년 정책이나 수립 과정에 대한 참여도에 대한 주요 변인별로 차이검증한 결과, 학교급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도에서도 주요 변인별로 차이검증한 결과, 학교급별, 경제수준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필요도에 대한 주요 변인별로 차이검증한 결과, 학교급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참여 활성화정책을 수립할 때 상대적으로 참여도가 낮게 나타나는 대상들에 대해서 정책적 관심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함.

### 4. 학습과 활동

- 청소년활동 참여 경험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문화/예술 관련 활동’이 7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직업/진로 관련 활동’ (65.3%), ‘건강/보건 관련 활동’ (61.6%), ‘자기(인성)계발 관련 활동’ (49.1%), ‘과학/정보 관련 활동’ (44.6%), ‘모험/개척 관련 활동’ (44.0%), ‘환경 보존 관련 활동’ (41.0%), ‘자원봉사활동’ (37.5%), ‘국제교류활동’ (13.5%)의 순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들은 오산시 청소년들의 경우 문화/예술 활동과 직업/진로 활동, 건강/보건 활동 등은 상대적으로 참여경험이 높은 반면, 국제교류활동, 자원봉사활동, 환경보존활동, 모험/개척활동, 과학/정보활동 등은 상대적으로 참여경험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향후 청소년활동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오산시 청소년들의 참여경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의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지원이 필요가 있음.

- 한편 청소년들의 희망하는 청소년활동은 ‘문화/예술관련 활동’이 38.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직업/진로 관련 활동’ (14.5%), ‘모험/개척 관련 활동’ (14.2%), ‘과학/정보 관련 활동’ (7.2%), ‘국제교류활동’ (6.4%), ‘건강/보건 관련 활동’ (5.9%), ‘환경 보존 관련 활동’ (5.0%), ‘자원봉사활동’ (4.7%), ‘자기(인성)계발 관련 활동’ (3.8%)의 순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에 기초할 때, 오산시 청소년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활동과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활동 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함. 따라서 향후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활동들이 체계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직접 활동주제와 내용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거나 진행한 경험과 관련하여 36.3%가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직접 아이디어를 내거나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할 기회에 대해 많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6.8%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에 기초할 때 오산시 청소년들의 경우 자기주도적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형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청소년의 자기주도성과 PBL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 가입하여 활동하는 청소년 단체 및 동아리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청소년 단체나 동아리는 22.4%, 사이버 단체나 동아리는 16.7%, 기타 단체나 동아리는 24.6%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들은 오산시의 경우 청소년단체나 청소년동아리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청소년정책 수립시 청소년동아리 활동과 단체활동에 대한 관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함.
- 청소년활동시설 이용경험의 경우 공연시설(75.0%), 도서관(63.7%), 전시시설(52.0%), 수목원/수목림/자연휴양림(45.4%)은 상대적으로 이용경험이 높은 반면,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야영장)의 이용경험은 27.3%로 매우 낮게 나타남. 이는 오산시 청소년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경험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 청소년정책사업에 대한 인지도 역시 상담전화(73.9%), 섯다운제(55.3%), 청소년자원봉사활동(53.3%), 청소년증(50.1%)만 50% 이상의 인지도를 나타내었고, 나머지 정책사업들(청소년 참여활동,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국제교류활동, 위기청소년상담 및 복지활동, 가정밖 청소년 복지사업, 학교밖

청소년지원, 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지원,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아르바이트 청소년 권익 보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청소년정책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함.

- 청소년증 발급 경험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비율은 27.2%,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율은 72.8%로 나타났다. 청소년증을 발급받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청소년증을 알지 못해서(46.7%)와 청소년증이 필요하지 않아서(31.6%), 청소년증을 발급받는 절차가 까다로워서(4.1%) 등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오산시 청소년 대상 청소년증 발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만드는 데 중요한 참고사항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 학교생활만족도와 관련하여 ‘나는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에 대한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2.90점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우리 학교는 우리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에 대한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2.87점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는 정도에 대한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2.83점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학교급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우리 학교는 교칙이 엄격하다’에 대한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2.43점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이 만족스럽다’에 대한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3.17점으로 나타났으며, 2성별, 학교급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향후 학교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오산시 교육정책 수립시 중요한 참고사항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 사교육 경험 및 혼자 공부하는 시간과 관련하여 사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4.5%로 나타났으며, 사교육으로 학습하는 일주일 총 시간은 9시간 13분으로 나타났으며, 혼자 공부하는 시간은 1시간 56분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방과 후 어른 없이 있는 시간에 대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3.6%로 나타났으며, 거의 없다는 61.8%로 나타났음. 방과 후 어른 없이 있을 때 불안

정도와 관련하여 매우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5%로 나타났으며 전혀 불안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75.1%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에 기초할 때, 오산시 청소년들은 방과후 어른없이 거의 매일 나홀로 보내는 청소년이 13.6%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과후 나홀로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리고 방과후 나홀로 있을 때 불안정도는 평균 4점 만점에 1.36점으로 낮은 하지만, 불안정도가 학교급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기초할 때, 방과후 나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책적 서비스를 계획할 시, 불안정도가 심한 청소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함.

## 5. 진로 및 직업탐색

- 오산시 청소년들의 진로교육경험을 조사한 결과, 진로와 직업과목(90.0%), 진로 관련 검사(84.8%), 현장학습 또는 견학(84.6%), 인터넷 또는 동영상(83.4%)을 통한 진로교육 경험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소집단 동아리(73.4%), 재량활동(창의적 체험활동)(72.9%), 상담선생님의 상담(69.3%), 저명인사 및 선배초청 강연(65.0%)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실제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 역시 진로관련 검사(77.1%), 현장학습 및 견학(75%), 진로와 직업과목(74.0%)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재량활동(창의적 체험활동)(69.6%), 소집단 동아리(67.3%), 저명인사 및 선배초청 강연(64.8%), 상담선생님 상담(64.4%), 인터넷 또는 동영상(60.6%)의 순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에 기초할 때, 오산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진로교육과 도움이 되는 정도의 순위가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인터넷이나 동영상을 통한 진로교육처럼 실제로 경험은 많이 하지만 도움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진로교육경험이 존재하고 있어서, 만족도가 낮은 진로교육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문제점에 대한 변화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오산시 청소년들의 진로체험 경험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은 진로박람회(59.7%), 청소년수련관/사회복지관 프로그램(44.6%), 대학 학과(전공) 견학 프로그램(40.3%), 산업체 진로/취업프로그램(39.4%)의 순으로 진로체험활동을 경험하고 있었음. 이러한 결과에 기초할 때, 오산시 청소년들의 진로체험 경험의 정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진로체험 경험기회를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향후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그리고 실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진로박람회(76.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 학과(전공) 견학 프로그램(75.2%), 청소년수련관/사회복지관 프로그램(68.2%), 산업체 진로/취업프로그램(66.4%)의 순으로 나타남. 하지만 진로체험 경험이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학교급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진로체험 경험의 만족도와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향상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오산시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와 관련하여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81.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다’ (76.0%), ‘내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73.2%), ‘나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72.1%),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 본 적이 있다’ (71.0%)의 순으로 나타났음. 반면 ‘나는 관심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직업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다’ 는 41.4%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이는 ‘관심있는 직업 종사자와의 만남을 통한 진로 및 직업탐색의 경험’ 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청소년들이 관심있는 직업 종사자와의 만남을 통한 진로 및 직업탐색의 경험을 보다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그리고 진로성숙도 역시 학교급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진로성숙도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진로성숙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의 청소년에 대해서 보다 더 정책적 관심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오산시 청소년들의 인생 및 직업관과 관련해서도, ‘진로나 직업을 선택할 시기가 되면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해 선택할 것이다’ 와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미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에 대해서 긍정적인 응답이 각각 81.7%로 높게 나타났음. 반면 ‘나는 분명한 인생목표가 있다’ 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65.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이는 오산시 청소년들의 경우 분명한 인생목표 설정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함. 따라서 향후 진로 및 직업탐색 관련 프로그램에서 ‘분명한 인생목표 설정’ 과 관련된 내용을 보다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6. 부적응 경험

- 오산시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교를 그만 둔 적이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1,365명 중 13명(1.0%)이 응답하였음. 그리고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학교를 그만 둔 적이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은 2020년 전국 청소년종합실태조사(0.8%)에 비해서 0.2%p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학업중단의 주된 이유로 1순위로 응답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심리·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40.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 (30.0%), ‘신체 건강상의 이유로’ (10.0%), ‘내 특기를 살리려고’ (10.0%), ‘학교친구들과의 문제(폭력, 왕따 등)로 인해’ (10.0%)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의 이용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이용 경험률은 100.0%로 나타났음. 하지만 학업중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수가 1,365명 중 13명(1.0%)로 매우 적어서 결과 해석시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오산시 청소년들의 가출경험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최근 1년 동안 가출한 경험이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1,376명 중 41명(3.0%)이 응답하였음. 오산시 청소년들의 가출동기는 ‘부모님(보호자)과의 문제(불화, 폭행, 간섭 등) 때문에’ (48.6%)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때문에’ (20.0%),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5.7%),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2.9%)의 순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가출경험은 성별, 학교급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들은 향후 가출청소년 대상 청소년정책 수립시 중요한 참고사항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 오산시 청소년들의 자살 시도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자살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31.4%로 나타났음.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계획해 본 적이 있다’ 고 응답한 비율도 전체 응답자 중 8.5%로 나타났으며,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 고 응답한 비율도 4.8%로 나타났음. 자살을 생각하게 된 주요 이유는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가 30.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가족 간의 갈등’ (27.2%),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학교폭력 등)’ (8.1%), ‘미래(진로)에 대한 불만’ (6.0%), ‘경제적인 어려움’ (1.8%)의 순으로 나타났



음. 이상의 결과들은 오산시 청소년들의 자살에 대한 생각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청소년들의 자살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특히 학교급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 차이가 있어서, 정책적 대안 마련시 학교급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 차이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7. 사회진입 경험 및 학교폭력예방 경험

- 오산시 청소년들의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과 관련하여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5.8%로 나타남.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부당경험의 정도를 살펴보면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험’은 25.3%로 가장 높았음. 그리고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한 경험’은 20.0%, ‘계약 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하였거나,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한 경험’은 14.7%,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험’은 10.7%, ‘작업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한 경험’은 10.7%, 성적 피해(성희롱·성추행 등)를 당한 경험’은 9.3%, ‘최저임금 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한 경험’은 9.3%, ‘구타나 폭행을 당한 경험’은 6.7%,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험’은 6.7% 등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들은 오산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부당한 경험을 당하고 있어서, 향후 정책적 개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 학교폭력예방교육은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69.2%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학교폭력예방교육 경험의 도움정도에 대해서는 평균점수 역시 4점 만점에 2.95점으로 비교적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학교폭력예방교육 전반에 대해서 재점검이 필요하며, 학교폭력예방교육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되도록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특히 학교폭력예방교육 경험의 도움정도가 학교급별, 경제수준별, 거주지역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개선대책 마련시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8.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삶의 변화

- 코로나19 이후 학업 스트레스의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29.9%였으며, 학업스트레스가 감소하였다는 응답

은 23.5%로 나타나 코로나19 이후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했다는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음.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성별·학교급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년이, 그리고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했다고 응답하였음.

- 그리고 코로나19이후 청소년의 삶의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21.1%)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20.3%)보다 높게 나타났음. 세부 영역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이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보다 높은 영역은 가족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이었음. 반면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보다 높은 영역은 사회에 대한 신뢰와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전망이었음. 결과적으로 코로나19가 종료된 이후 청소년의 삶의 영역 중에서 가족관계와 친구관계, 학교생활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많은 반면, ‘사회에 대한 신뢰’와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전망’에서는 부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많아졌다는 것을 시사함. 따라서 향후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청소년들의 삶의 변화 양상과 특징들을 토대로 오산시에서는 청소년정책을 수립할 때 사회적 신뢰와 진로·취업에 대한 전망에 대한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고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참고문헌

- 김기현, 문호영, 황세영, 유민상, 김균희 이용해 (2020). 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김영지, 최홍일, 유성렬, 이은주 (202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부록(조사 설문지)

## I. 건강

## 주관적 안녕감

1-1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 보통 → 매우 행복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2 어제 어느 정도 근심 또는 걱정을 하였습니다?

전혀 하지 않았다 ← 보통 → 매우 많이 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3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였습니다?

전혀 우울하지 않았다 ← 보통 → 매우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4 요즘 자신의 삶(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았다 ← 보통 → 매우 만족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5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까?

☞ 학생의 경우, 일이란 학교생활, 숙제, 공부 등을 말합니다.

전혀 가치 없다 ← 보통 → 매우 가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스트레스

2 최근 1년(2022. 9. 1 ~ 2023. 8. 31)동안 다음 내용에 대하여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스트레스란 '주변 사람들이나 일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려운 느낌'을 말합니다.

나는 ...	그런 적이 없다	한두 번 경험했다	가끔 경험했다	자주 경험했다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 심리상담

3 최근 1년(2022. 9. 1 ~ 2023. 8. 31)동안 심리상담전문가(학교상담실, Wee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학과 전문의 상담 등)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받았다                      ② 안 받았다

건강평가

4

다음의 문항들을 잘 읽고 각 문항마다 자신의 현재 상태와 가장 일치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일상생활 만족도 평가

5

다음의 것들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매우 만족	해당 없음
1) 가족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2) 내가 사는 집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내 삶에서 선택의 자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친구들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내가 다니는 학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나의 외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물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 나의 건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9) 나의 미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0) 나의 자유 시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1) 우리 동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2) 생활에서의 안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정서

6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은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린다	①	②	③	④
2)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 한다	①	②	③	④
3) 다른 사람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잘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4)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6)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 II. 권리와 존중

### 의견 존중

7 다음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1) 우리 가족은 나의 의견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X
2) 내 친구들은 나의 의견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3) 내가 다니는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X

### 부모님(또는 양육자)과의 활동

8 최근 1년(2022. 9. 1 ~ 2023. 8. 31) 동안 다음과 같은 활동을 부모님(또는 양육자)과 함께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구분	거의 하지 않는다	월 1~3 회	주 1~3 회	주 4~6 회	매일 한다	해당 없음
1) 나의 고민에 대한 대화	①	②	③	④	⑤	X
2)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①	②	③	④	⑤	⑨
3) 책, 텔레비전, 영화에 대한 대화	①	②	③	④	⑤	X
4) 정치, 사회적 주제에 관한 대화(선거 등)	①	②	③	④	⑤	
5) 여가 활동	①	②	③	④	⑤	
6) 저녁 식사	①	②	③	④	⑤	

### 부모님(또는 양육자)과의 관계

9 주중에 매일 부모님(또는 양육자)과 함께 얼마나 시간(대화 시간 포함)을 보냅니까?

☞ 함께한 시간을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구분	전혀 하지 않는다	30분 미만	1시간 미만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해당 없음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⑨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⑨
3) 양육자 ☞ 위 1), 2)에서 모두 '해당 없음'인 경우만 응답	①	②	③	④	⑤	X

부모님(또는 양육자)과의 관계

10 부모님(또는 양육자)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돌보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1) 학교 수업(학원 포함)이 끝난 후 집에 늦게 들어와도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고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가족관·사회관

11 다음의 각 문항들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는 또래를 친구로 사귄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속하는 또래를 이성친구로 사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Ⅲ. 참여 및 사회인식

참여

12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분	참여도				필요도			
	전혀 참여 하고 있지 않다	별로 참여 하고 있지 않다	가끔 참여 한다	적극 적 으로 참여 한다	전혀 필요 하지 않다	별로 필요 하지 않다	가끔 은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1)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함(교칙 제정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이나 수립 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함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청소년이 사회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참여함(인터넷 의견 제시, 집회 참여, 단체 가입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 IV. 학습과 활동

### 청소년 활동 경험

**13** 최근 1년(2022. 9. 1 ~ 2023. 8. 31) 동안 아래와 같은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구분	없다	있다
1) 문화/예술 관련 활동(공연 감상 등)	⓪	①
2) 과학·정보 관련 활동(경진 대회, 과학 실험 등)	⓪	①
3) 모험/개척 관련 활동(탐사·등반, 야영 등)	⓪	①
4) 자원봉사 활동(일손 돕기, 자선·구호 등)	⓪	①
5) 직업/진로 관련 활동(직업 체험, 진로 탐색 등)	⓪	①
6) 국제 교류 활동	⓪	①
7) 건강/보건 관련 활동(신체단련, 안전·응급처치 등)	⓪	①
8) 자기(인성)계발 관련 활동(자기표현, 마음 수련 등)	⓪	①
9) 환경 보존 관련 활동(생태, 숲 체험, 환경 살리기 등)	⓪	①

 **13** 에서 하나라도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13-1** 에 응답해 주십시오.

**13-1** 위 활동 중에 본인이 직접 활동 주제와 내용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거나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4** 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위 9가지 활동 중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을 순서대로 두 가지  
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15** 청소년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거나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별로 없다  
③ 조금 있다                      ④ 많이 있다

**16** 현재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 또는 동아리가 있습니까?

구분	없다	있다
1) 청소년 단체나 동아리(스카우트, 누리단·한별단, 해양소년단 등)  학교 등 공식 기관의 단체 포함(종교 단체 제외)	⓪	①
2)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단체나 동아리(예. 인터넷 카페 등)	⓪	①
3) 기타 단체나 동아리(종교 단체 포함)	⓪	①



## 청소년 활동 경험

17

최근 1년(2022. 9. 1 ~ 2023. 8. 31) 동안 아래와 같은 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구분	없다	있다
1) 청소년수련관(청소년센터 등),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야영장	①	②
2) 유스호스텔	①	②
3) 도서관(단, 학교도서관은 제외)	①	②
4) 공연 시설(공연장, 영화상영관 등)	①	②
5) 전시 시설(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 공원 등)	①	②
6) 사회복지관	①	②
7) 수목원/수목림/자연 휴양림	①	②

## 정책 사업 인지도

18

다음의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청소년 정책 사업	모른다	알고 있다
1) 청소년 참여활동(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역사회변화 프로그램 등)	①	②
2) 청소년 수련활동(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센터 등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프로그램)	①	②
3) 청소년어울림마당(청소년문화존)	①	②
4) 청소년자원봉사활동	①	②
5) 청소년국제교류활동	①	②
6) 청소년증	①	②
7) 위기청소년상담 및 복지 지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①	②
8) 가정 밖 청소년 복지사업(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①	②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꿈드림센터, 내일이름학교)	①	②
10) 상담전화 1388(모바일 및 온라인 상담 포함)	①	②
11)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지원(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①	②
12)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셋다운제)	①	②
13)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①	②
14) 아르바이트 청소년 권익 보호(청소년근로보호센터)	①	②

## 청소년증

19 귀하는 청소년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20 로 이동

② 아니오



19-1 만약 없다면, 귀하가 청소년증을 발급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청소년증을 알지 못해서
- ② 청소년증이 필요하지 않아서
- ③ 청소년증을 발급받는 절차가 까다로워서
- ④ 청소년증 발급 대상이 아니어서
- ⑤ 기타(적어주십시오: \_\_\_\_\_)

☞ 현재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0 부터 응답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재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25 로 이동하여 계속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생활 만족도

20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한 느낌은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2) 우리 학교는 우리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3)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①	②	③	④
4) 우리 학교는 교칙이 엄격하다	①	②	③	④
5) 선생님, 친구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이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 학업성취도

21 현재 학업 성적은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못한다    ② 못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우수한 편이다    ⑤ 매우 우수하다

## 사교육

22 최근 1년(2022. 9. 1 ~ 2023. 8. 31) 동안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 수업, 학습지 과외 등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일주일에 총 몇 시간입니까?

① 예(있다)

② 아니오(없다) → 23 로 이동



22-1 학원 또는 과외 일주일 총시간(소수점 이하는 없애고 기입합니다.)

일주일 총   시간

사교육

23

최근 1년(2022. 9. 1 ~ 2023. 8. 31) 동안 학교 수업이나 학원/과의 수업 외에 혼자서 교과 공부를 한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 숙제를 한 시간도 포함하되, 1일 평균 시간으로 표기합니다.

하루   시간   분

방과 후 활동

24

평일 방과 후에 부모님(또는 양육자)이나 돌봐 주는 어른 없이 집에 혼자 혹은 형제나 자매끼리만 있는 경우가 1주일에 며칠 정도나 됩니까?

① 거의 없다 → 25 로 이동

- ② 1~2일 정도
- ③ 3~4일 정도
- ④ 거의 매일



24-1 평일 방과 후 혼자 또는 형제자매끼리만 있을 때, 불안합니까?

- ① 전혀 불안하지 않다
- ② 별로 불안하지 않다
- ③ 약간 불안하다
- ④ 매우 불안하다

V. 진로 및 직업탐색

진로 활동

25

학교에서 다음의 각 문항에 해당되는 진로 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해 보았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구분	경험해 본 적 없다	경험해본 적 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1) '진로 직업' 과목 수업을 통한 진로 교육	○	①	②	③	④
2) 현장학습이나 견학을 통한 진로 교육	○	①	②	③	④
3) 상담센터의 상담 중심 진로 교육	○	①	②	③	④
4) 진로관련 기사를 통한 진로 교육	○	①	②	③	④
5) 인터넷 또는 동영상을 통한 진로 교육	○	①	②	③	④
6) 소집단 혹은 동아리 활동을 통한 진로 교육	○	①	②	③	④
7) 저명인사나 선배의 초청 강연을 통한 진로 교육	○	①	②	③	④
8) 재량 활동(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한 진로 교육	○	①	②	③	④

진로체험 경험

26

학교에서 다음의 각 문항에 해당되는 진로 체험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해 보았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구분	경험해 본 적 없다	경험해본 적 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1) 진로 박람회(잡월드, 키자니아 포함)에 간 경험	○	①	②	③	④
2) 청소년 수련관, 사회복지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	①	②	③	④
3)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	①	②	③	④
4) 대학에서 실시하는 학과(전공) 관련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	①	②	③	④

진로 및 직업선택

27

다음 각 항목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2)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6) 나는 관심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직업에 대하여 알아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8

아래의 각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분명한 인생목표가 있다	①	②	③	④
2) 진로나 직업을 선택할 시기가 되면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3)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미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 학업중단

29

초·중·고등학교(정규학기, 인가 대안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를 그만 둔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30 로 이동



29-1 가장 최근에 학교를 그만 둔 때는 언제였습니까?

① 초등학교 때

② 중학교 때

③ 고등학교 때

29-2

학교를 그만 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부터 순서대로 세 가지를 골라 적어 주십시오. (이유가 두 개 이하인 경우 1개 혹은 2개만 작성)

1순위

2순위

3순위

영역	내용	
개인	① 신체 건강상의 이유로 ② 심리·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③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가족	④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⑤ 부모님(또는 양육자)과의 갈등으로 인해 ⑥ 부모님(또는 양육자)의 별거, 이혼 등으로 인해 ⑦ 부모님(또는 양육자)의 폭력 때문에 ⑧ 부모님(또는 양육자)의 잦은 싸움 등 불화로 인해 ⑨ 부모님(또는 양육자)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학교	학업/진로	⑩ 학업성적이 잘 안 나와서 ⑪ 검정고시를 준비하려고 ⑫ 공부하기 싫어서 ⑬ 내 특기를 살리려고 ⑭ 이민 또는 해외 유학 가려고 ⑮ 취업을 하여 돈을 벌고 싶어서 ⑯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
	친구	⑰ 학교친구들과의 문제(폭력, 왕따 등)로 인해 ⑱ 이성문제로 인해 ⑲ 학교를 그만 둔 친구의 영향으로
	교사	⑳ 선생님의 차별 때문에 ㉑ 선생님의 체벌 때문에 ㉒ 선생님과 싸워서
	환경	㉓ 학교의 규칙이 엄격해서 ㉔ 학교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서 ㉕ 학교 분위기(문화, 동아리, 자치활동 등)가 나와 잘 맞지 않아서 ㉖ 학교가 너무 멀어서 ㉗ 전학이 잘 안되어서
기타	㉘ 유해환경(유해업소, 폭력집단 등) 때문에 ㉙ 아르바이트로 피곤해서 ㉚ 비행으로 보호처분 혹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서 ㉛ 그 외(적어주십시오: _____)	

29-3

학교를 그만 둔 이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가출 경험

30

최근 1년(2022. 9. 1 ~ 2023. 8. 31) 동안 가출한 적이 있습니까?

※ ‘가출’이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① 가출한 적이 있다

② 가출한 적이 없다 → 31 로 이동



30-1 가출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 학업문제(학업 부담, 성적 등) 때문에
- ② 부모님(보호자)과의 문제(불화, 폭행, 간섭 등) 때문에
- ③ 학교에서의 갈등이나 폭력 때문에
-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 ⑤ 친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 ⑥ 기타(적어주세요: \_\_\_\_\_)

자살 시도 경험

31

아래의 각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없다	1번	2~3번	월 1~2회	주 1~1회 이상
1) 지난 1년 동안 자살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계획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1-1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아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 ② 가족 간의 갈등
- ③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학교폭력 등)
- ④ 경제적인 어려움
- ⑤ 미래(진로)에 대한 불만
- ⑥ 기타(적어주세요: \_\_\_\_\_)



## VII.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삶의 변화

### 코로나19 관련

34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학이 연기되고 온라인 수업이 실시되는 등 여러 교육환경이 변화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이전에 비해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 ① 매우 감소하였다
- ② 약간 감소하였다
- ③ 변화 없다
- ④ 약간 증가하였다
- ⑤ 매우 증가하였다

35

코로나19로 인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구분	매우 부정적으로 변화함	약간 부정적으로 변화함	변화 없음	약간 긍정적으로 변화함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함
1) 전반적인 생활	①	②	③	④	⑤
2) 가족관계	①	②	③	④	⑤
3) 친구관계	①	②	③	④	⑤
4) 학교생활	①	②	③	④	⑤
5) 사회에 대한 신뢰	①	②	③	④	⑤
6)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전망	①	②	③	④	⑤

## VIII. 응답자 특성

### 성별

D1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 ② 여자

### 학교 및 학년

D2

다니고 있는 학교 및 학년은?

- ① 초등학교 4학년
- ② 초등학교 5학년
- ③ 초등학교 6학년
- ④ 중학교 1학년
- ⑤ 중학교 2학년
- ⑥ 중학교 3학년
- ⑦ 고등학교 1학년
- ⑧ 고등학교 2학년
- ⑨ 고등학교 3학년
- ⑩ 학교에 다니지 않음



## 함께 사는 사람

**D3** 현재 누구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모두 표시하세요.)

- ① 친아버지                      ② 친어머니                      ③ 새아버지                      ④ 새어머니  
 ⑤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 ⑥ 친척                      ⑦ 형제자매                      ⑧ 친구 또는 선후배  
 ⑨ 청소년보호시설(쉼터, 그룹홈, 일시보호시설, 소년원 등)    ⑩ 혼자 살고 있다  
 ⑪ 기타 (구체적으로 누구와? \_\_\_\_\_)

## 가정의 경제수준

**D4** 가정의 경제수준은 남들과 비교해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매우 어려운편이다  
 ② 어려운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잘 사는 편이다  
 ⑤ 매우 잘사는편이다

## 부모님의 출신 국가

**D5** 부모님의 출신 나라는 어디입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두 분 모두 한국인                      ② 두 분 모두 외국인                      ③ 한 분만 외국인  
 ④ 두 분 모두 북한이탈주민                      ⑤ 한 분만 북한이탈주민                      ⑥ 모르겠다

## 거주 지역 (고등학생과 학교밖청소년만 응답해 주세요.)

**D6**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세마동(양산동, 외삼미동, 지곶동, 서량동)  
 ② 신장동(금암동, 내삼미동, 수정동, 은계동)  
 ③ 남촌동(가장동, 궐동, 청학동)  
 ④ 초평동(서동, 가수동, 누읍동, 탑동, 벌음동, 두곡동)  
 ⑤ 중앙동(오산동, 부산동)  
 ⑥ 대원동(원동, 고현동, 갈곶동, 청호동)

인 쇄 일: 2023.11.17

발 행 인: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송진영의원, 조미선의의원, 전예슬의원)

연구주관: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유성렬(백석대학교)

공동연구원 김진호(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지연(백석대학교)

협력기관: 꿈빛나래청소년문화의집, 오산남부청소년문화의집, 오산중앙청소년문화의집,

오산시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